



2019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 삼일운동과 평택  
- 민족운동과 평택



비매품/무로



9 786993 696346 <br> ISBN 978-69-6963-46-3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 655. 2002  
FAX 031. 654. 8807  
www.ptmunhwa.or.kr

2019. 3. 7 ~ 4. 4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장 소 | 평택남부문예회관 3층 세미나실

대 상 | 누구나

수 강 료 | 무료

문 의 | 평택문화원 031.656.0600

---

3. 7      민중이 주체가 된 평택지역 3.1운동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

3. 14     3.1운동 독립선언서,  
            작성과 배포 어떻게 이뤄졌나  
            이정은(대한민국역사문화원장)

---

3. 21     민족대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임형진(경희대학교 교수)

---

3. 28     3.1운동 참여세력,  
            기생도 만세를 불렀다  
            이동근(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

4. 4      3.1운동은 과연 비폭력적이었나  
            성주현(송실대학교 교수)

---

#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평택학 시민강좌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평택학 시민강좌

# 민족운동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택학 시민강좌

# 평택학

일시 / 2019년 9월 3일 ~ 10월 1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3층)

9월 3일(화) 민족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9월 10일(화) 국외로 간 민족운동가들은 누구였나  
박환(수원대학교 교수)

9월 17일(화) 우리 문화재 어떻게 지켰나  
김인덕(청암대학교 교수)

9월 24일(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활동하였는가  
한시준(단국대학교 교수)

10월 1일(화) 종교는 어떻게 민족운동을 참여했는가  
성주현(송실대학교 교수)

# 목 차

• 민중이 주체가 된 평택지역3.1운동 .....	005
-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 독립선언서 어떻게 제작 배포되었나 .....	021
- 이정은(대한민국역사문화원장)	
• 종교연합과 민족대표 .....	041
- 임형진(경희대학교 교수)	
• 3.1운동에 기생(妓生)은 어떻게 참여하였나 .....	061
- 이동근(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 3.1운동은 과연 비폭력운동이었나적이었나 .....	077
- 성주현(송실대학교 교수)	
• 평택지역 민족운동 어떻게 전개되었나 .....	107
-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 국외로 간 민족운동가들은 누구였나 .....	129
- 박환(수원대학교 교수)	
• 우리 문화재 어떻게 지켰나 .....	137
- 김인덕(청암대학교 교수)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둔 독립운동의 성과 .....	151
- 한시준(단국대학교 교수)	
• 종교는 어떻게 민족운동을 참여했는가 .....	181
- 성주현(송실대학교 교수)	



# 삼일운동과 평택 1강

민중이 주체가 된 평택지역 3.1운동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평택 3.1만세운동 봉기도



# 민중이 주체가 된 평택지역 3·1운동

김해규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 차 례

- I. 머리말
- II. 경부선 평택역 설치와 중심지 이동
- III. 근대교육의 발달과 천도교의 확산
- IV. 3·1운동의 지역 별 움직임과 참여계층
- V. 맺음말

## I. 머리말

1919년 3월 1일에 발생한 3·1운동은 한국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이며 민중운동이었다. 3·1운동에서 우리민족은 종교적, 계급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일제의 식민지배에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투쟁했다. 이것으로 민족의 독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고, 국내에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국내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뿐 아니라 현재에도 ‘3.1운동’보다는 ‘3.1혁명’으로 개념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월 9일 현덕면에서 시작되어 4월 1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이었다. 이 기간 동안 평택지역에서는 진위군 북면 봉남리와 병남면 평택리를 비롯 전 지역에서 약 24차례에 걸쳐 5,800

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257명이 체포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64명, 부상 174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는 평택지역 만세운동을 ‘광포하다’고 표현했을 만큼 적극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시기적으로도 평택지역의 3·1운동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그것은 천도교의 영향과 철도교통의 발달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참여계층도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인들 뿐 아니라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던 일반 민중들이 중심이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진위면 봉남리와 평택역전, 안성시 원곡면 그리고 각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산봉우리가 중심 거사지역으로 이용되었다. 이 같이 전개된 평택지역 3.1운동은 평택지역 민(民)들을 민족의식을 각성시켜 1920, 30년대 부문별 사회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일부 청년들은 중국이나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강연에서는 이 같이 전개된 평택지역 3.1운동의 배경을 살펴본 뒤 지역 별 전개과정과 참여계층, 그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 II. 경부선 평택역 설치와 중심지 이동

평택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구릉이 낮고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서쪽에는 아산만이 있고, 내륙으로는 안성천, 진위천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하천이 발달하였다. 생산활동은 주로 논농사가 위주였으며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도 발달했고, 서평택의 해안가와 안성천 하류에서는 어업과 수산업, 염업이 발달했다. 논농사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간척지의 포락(浦落)이 자주 발생했으며, 수해(水害)와 염해(鹽害), 한해(旱害)의 피해가 잦아 농업생산력이 매우 낮았다.

평택지역의 변화는 근대이후 근대적 교통망과 행정구역개편이 가져왔다. 갑오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은 안성천을 경계로 경기도와 충청도로 나뉘었고 여러 고을의 월경지 또는 두입지가 많았다. 그러다가 갑오개혁과 1906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안성천 이북과 진위천 동쪽은 진위군, 진위천 서

쪽은 수원군, 안성천 남쪽에는 평택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세 지역이 오늘날처럼 공간적으로 통합한 것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세 지역은 통합 진위군이 되면서 정치, 행정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 평택지역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경부선 철도역 설치도 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 평택지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했다면, 경부선 철도역 설치의 평택지역의 중심을 기존의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에서 평택역전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부선은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평택지역에는 평택역, 서정리역, 진위역이 설치되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조선철도여행안내』에 따르면 ‘평택역은 진위군청이 있고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지점이며, 평야가 넓어 농산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아산만과 연결되어 있어 수로교통의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안성과 4리 17정, 둔포와 2리 7정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유리하며 대로가 지나가고 교통이 편리한 점, 군청과 경찰서, 우편소, 학교조합, 조선상업은행지점, 소학교 등이 소재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말한다. 경부선 평택역전에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혼마찌와 같은 일본인 거리와 일본인 조계지도 형성되었다. 1924년 통계에 따르면 진위군 전체 일본인 이주자들은 총 656명으로 이 가운데 412명이 평택역전 병남면 평택리에 거주했다.

평택역전에 근대도시가 형성되고 평택평야의 미곡과 경기만 일대의 어염이 안성천 수로를 통해 평택역전으로 집중되면서 일본인 거주 지역(혼마찌) 서쪽으로 평택장이 개장했다. 평택장은 1910년대 초반에는 시장형성이 미미했지만 평택역과 편리한 교통망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안성장과 수원장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장시로 거듭났다. 1910년대 후반 주요 거래품목은 미곡(米穀), 어염(漁鹽), 농우(農牛)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미곡(米穀)이었다. 그래서 1914년경이 되면 일본인 미곡상 4명에 조선인 15명이 존재했고, 1918년에는 진위면 전체의 곡물영업자가 400여 명으로 증가했다.

〈1910년대 후반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평택역전)의 인구〉

구분	조선인(名)	일본인(名)	중국인(名)	합계(名)
1916	1,363	411	43	1,817
1917	1,580	442	55	2,077
1918	1,997	511	47	2,535
1919	2,252	454	38	2,744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8.

### Ⅲ. 근대교육의 발달과 천도교의 확산

평택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근대교육과 천도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95년 교육입국조서와 소학교령이 반포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에서도 진위군수와 유지층을 중심으로 소학교설립이 준비되었다. 1898년에는 진위면 가곡리에 진위군수 김영진의 주도로 사립 전문소학교가 설립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1899년 진위면 봉남리에 공립진위소학교가 개교했다. 공립진위소학교는 1905년까지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관립, 공립소학교가 도합 60개에 불과했으므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설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진위소학교는 독립된 학교건물을 갖추지 못했고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나 학생모집이 잘 되지 않아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다.

근대교육운동은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구국운동의 확산과 1906년의 ‘보통학교령’, 고종의 ‘홍학조칙’의 영향으로 활발해졌다. 학교설립은 대체로 전직관료나 지역 유지층이 근대학교설립에 적극 나섰고, 학생들은 양반의 자제들도 있었지만 평민층의 자제들이 대다수였다. 1905년에서 1919년 사이 평

택지역의 공립 및 사립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05~1920년 사이 진위군의 공립 및 사립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자	설립 연도	위치	학생 수	성격
진위공립소학교	김영진 외	1899			공립
평택공립소학교	강난수 외	1913	팽성읍 객사리→ 평택리		사립→ 공립
진문소학교	권중석, 고재항	1907	진위면 가곡2리	50~60명	사립
진위소학교	이범철	1898			사립
진흥의숙	이범창	1906	고덕면 울포1리	40~50명	사립
수성학교	서상천	1907	청북읍 백봉리	53명	사립
동명의숙	김춘희 외	1906	합정동 조개터	80여 명	사립
성공회신명강습소	김인순	1906	팽성읍 객사리 성 공회 성요한교회		사립
구씨학원	구택희	1915	진위면 봉남리		사립
숙성리개량서당		1914	오성면 숙성1리		사립
진동학교		1910	중앙동 서두물		사립
노동야학	유준홍	1909		50여 명	사립
사범양성학교	김영진	1908			
OO사숙	이병철	1909	서탄면 마두리	수십 명	사립

※참고 : 박철하,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수정인용,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이들 학교들은 공립의 경우 일제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반면 사립의 경우에는 1908년 ‘사립학교령’ 이후 강난수씨가 운영했던 팽성읍 남산리의 ‘남산리학교(추정)’처럼 일부학교만 ‘모범학교’로 지정되어 공립학교로 전환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점차 폐교되는 수순을 밟았다. 1917년 일제의 기록에는 진위군(현 평택시) 전체에 사립학교는 1개뿐이고 서당은 115개이며, 학생 수는 8,503명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당이다. 당시는 서당들은

한문서당이 다수였지만 한문과 근대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개량서당도 많았다. 일부 서당들은 민족의식도 높아 오성면 속성1리의 개량서당의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오성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근대학교와 서당의 존재는 농촌지식인층의 증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때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농촌지식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학교를 매개로 연결된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교육과 함께 평택지역 3·1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천도교를 꼽을 수 있다. 천도교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급격히 쇠퇴했지만 평택지역은 이민도 등의 활동으로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현덕면 권관리에 거주했던 이민도는 서평택지역의 명문가였던 함평 이씨 가문의 종손으로 1879년 동학에 입도(入道)했다. 1893년에는 ‘척왜양창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1906년 수원교구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3년에는 천도교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했고 평택지역의 접주였다. 이민도 외에도 이병헌(이민도의 아들), 김용희, 김영식 같은 인물들도 활동했으며, 장교진, 정동주, 김지현, 이규성, 이인수, 고문재, 박인훈 등 동학교도들도 다수였다.

1906년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교구가 설치되고 근대조직을 갖추기 때에는 수원교구에 속했으며 고덕면과 현덕면에는 수원교구 소속의 면전교실이, 진위면 야막리에는 진위교구가 설치되었다. 1910년대 고덕면전교실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은 박원병(朴元秉), 원세봉(元世鳳), 진종만(陳鍾萬), 김영학(金永學) 등이며, 현덕면전교실은 이민도(李敏道), 손수한(孫壽漢), 오기영(吳起泳), 이유상(李儒像), 최이래(崔利來) 등이었다. 진위교구에는 초대교구장으로 판단되는 박창훈(朴昌勳)을 비롯해서 장건후(張建厚), 이규성(李圭成), 김지현(金芝鉉), 장태진(張台鎭), 노병규(盧秉奎) 등이 이었다.

현덕면에 천도교인들이 많았던 마을로는 권관리와 기산리, 장수리를 들 수 있다. 현덕면에서 이민도를 비롯해서 이병헌, 최이래, 이인수 등은 권관1리에 살았으며, 오기영, 김화경 등은 장수리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덕면에는 문곡리, 두릉리 일대에 천도교인들이 많았다. 특히 문곡리에는 천도교인들이 다수 거주하여 고덕면전교실은 이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위교구가 있었던 진위면 야막리는 당시 밀양 박씨가 다수였고 주민들 대부분이 천도교인이었다. 주민 박종구(남, 1904년생)씨는 본인도 조부 박창순 때부터 천도교를 믿었다고 했으며 야막리의 진위교구당에서 있었던 집회에는 서탄면 회화리, 화성시 양감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회고했다. 이 같은 천도교의 확산과 조직은 평택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IV. 3·1운동의 지역 별 움직임과 참여계층

평택지역의 3·1운동은 시기적으로는 이웃한 안성시나 화성시, 천안시보다 이른 3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진위면(북면) 봉남리, 병남면(구 평택시) 평택리가 중심이었고, 면(面) 단위에서는 각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에서 전개되었다. 또 종교적으로는 천도교, 계층별로는 농민층과 상인계층이 적극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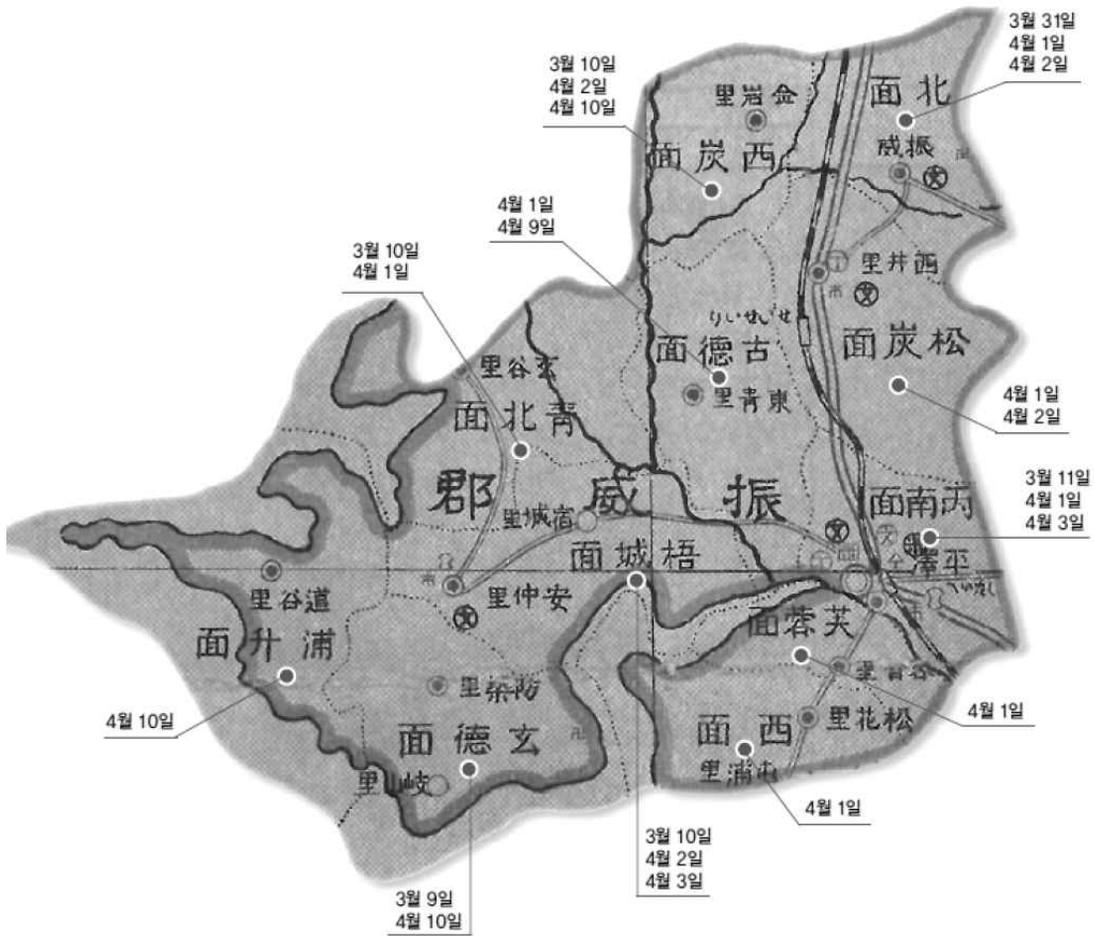
평택지역이 주변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은 철도교통의 발달과 천도교의 영향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1919년 당시 평택역전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일본인 이민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근대도시가 발달했으며, 주요관공서와 근대시설, 시장이 형성되어 일제 식민통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교통의 이점 때문에 철도 교통에서 떨어진 지역보다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일찍 접할 수 있었고, 평택남부지역의 만세운동이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천도교와의 관련성이다. 평택지역은 천도교 구파에 속했던 인사들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3·1운동 당시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천도교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현덕면 권관리와 기산리, 진위교구가 있었던 진위면 야막리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봉남리가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당시 이곳이 형식상으로는 진위

군의 읍치(邑治)였으며 천도교인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진위군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진위군의 읍치(邑治)였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북부지역의 만세운동은 진위면(북면) 봉남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봉남리나 은산리, 야막리, 사리의 시위 군중들이 봉남리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 시기별로 만세시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평택지역 3·1운동 봉기도>

위의 지도를 보면 평택지역에서는 3월 9일 현덕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된 뒤 4월 10일까지 23회의 시위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일본 측이 작성한 조선군사령부의 정보와 『매일신보』, 구속자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만든 도표이다.

〈평택지역 3·1운동 발생지역〉

날짜	장소	중심인물	인원	검거자	출전
3월 9일	현덕면 기산리 옥녀봉, 권관리계두봉	이민도 외			국내자료
3월 10일 3월 10일	오성면 숙성1리		150여 명	연행 8명	국내자료
	청북읍 토진리, 현곡2리 신포장터				국내자료
3월 11일	평택역전	이도상, 목준상, 한영수 외	수십 명	13명 (5명 구속, 8명 훈방)	판결문, 『매일신문』
3월 21일	진위면 야막리	박창훈	500여 명		국내자료
3월 31일	진위면 봉남리	박성백, 최구홍, 유동환, 전영록, 유만수 등	500여 명	6명 구속	판결문
4월 1일	평택역전		3,000여 명 +400명	사망 1명, 부상 4명	일본 측 기록
	서면, 부용면(팽성읍)				국내자료
	송탄면 독곡리		500여 명	2명 사망	국내자료
	고덕면	황순태 외			국내자료
	청북읍 백봉리, 오성면 안	안육만, 최만화, 김원근 외			6명 구속

	화리				
	진 위 면 (북면) 은산리	정경순, 정재운, 정문학, 최선유	약간 명	2명 구속	판결문
4월 2일	진 위 면 (북면), 송탄면 (현 이충동, 중앙동, 지산동 등)			사상자 약간 명	국내자료
	오성면 안중리				일본 측 자료
4월 3일	서탄면 금암리, 사리	윤기선, 윤교영, 한성주, 윤대선			국내자료
	진위군 여러 개 마을 오성면 학현리 봉오산	김용성, 공재록, 이사필	약간 명		판결문
4월 9일	고덕면, 진위면, 서탄면 금각리	시위 후 평택역전으로 이동	100여 명 40여 명	6, 7명 사망, 60여 명 부상	일본 측 자료
4월 10일	서탄면 금암리		100(40)여 명	사망1명, 부상 약간 명	일본 측 자료
	서탄면 사리		500여 명		국내자료
	서탄면 수월암리		다수		국내자료

위 표에서처럼 평택지역 3·1운동은 3월 9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전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했다. 대체로 3월 중순까지는 천도교인들과 3월 11일 평택역전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농촌지역 봉기가 활발했던 4월 1일을 전후해서는 농민층이나 관료층, 천도교인을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연대하여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또 평화시위가 3월 31일 봉남리 시위와 4월 1일 평택역전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연대시위가 발생하면서 폭력적 형태로 발전한 것도 특징이다. 3월 31일 봉남리에서는 천도교인들이 주동이 된 500여 명의 군중들이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을 끌어내어 앞에 세우고 만세를 강요했던 사례가 그 중 하나다. 4월 10일 고덕면에서는 일본 군 8명과 자위단 8명이 선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마을을 순찰하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주민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반항하자 발포하여 6, 7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서탄면 금암리에서는 40여 명이 주재소를 습격했다.

식민지배에 포섭된 관료층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례도 있다. 서탄 면장 윤기선은 서탄면 사리에 거주했으며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宮內府) 시종(侍從) 벼슬을 했다. 서탄면 사리는 마을규모가 크고 칠원 윤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어서 동족끼리의 결속이 강했다. 윤기선은 낙향 후 1917년 조선 면제(面制)가 실시되면서 서탄면장에 취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9년 4월 2일 면장 윤기선은 면서기 한성수를 시켜 각 마을 구장(이장)들에게 동민들을 금암리 면사무소 앞으로 모이게 했다. 400여 명의 면민들이 모이자 윤기선은 ‘세계의 대세로 보면 조선은 독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계속 투쟁하라’고 연설하며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고 윤교영, 윤대선은 격문을 돌리고 시위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참여계층을 살펴보자. 평택지역은 천도교 지도층과 관료층, 상인층, 농민층, 학생층이 고루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과 직업, 학력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사료는 ‘판결문’과 단편적인 기록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 3·1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참여계층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천도교인들이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농촌지식인들로 근대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1910년대 천도교인들은 진위교구나 고덕면전교실, 현덕면전교실에서 개최하는 3년제 교리강습소에서 천도교 교리 뿐 아니라 역사와 지리, 과학 등 근대학문을 배웠다. 그렇다면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민도, 박창훈 등 천도교인들은 근대적 지식을 갖췄었던 농촌지식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식인들 중에는 학생층도 있었다.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시위로 검거된 14명 가운데 안충수를 비롯한 5명은 소학교 학생이었다. 오성면 양교5리 사람으로 구속된 한영수와 평택역전 미곡상 이도상, 목준상, 서탄면장 윤기선과 윤교영, 진위공립소학교 교원 출신의 윤대선도 일정수준의 근대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밖에 오성면 숙성리 만세시위는 숙성1리의 개량서당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하고 있어 주도층 대부분은 근대교육을 받은 농촌지식인들이었다.

## V. 맺음말

평택지역 3·1운동은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이며 민중운동이었다. 또 일제가 ‘광포(狂暴)하다’고 표현했을 만큼 격렬하고 적극적이었으며 관료층, 농촌지식인층, 상인계층, 농민층, 학생층 등 신분과 계층을 망라한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예컨대 진위군 인구 6만 여 명이었던 시기에 연인원 6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257명이 체포되고, 사망 64명, 부상 174명이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평택지역 3·1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필자는 3·1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며 글을 맺으려고 한다.

첫째, 초기에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했다. 최초 봉기도 천도교인들의 주도로 현덕면 옥녀봉과 계두봉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진위면 야막리, 봉남리 시위도 이들이 주도했다.

둘째, 경부선 철도 평택역이 설치되고 평택역전에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만세시위의 중심이 평택역전과 구 읍치(邑治)인 진위면 봉남리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근대학교와 서당, 천도교 교리강습회 등으로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은 농촌지식인층들이 참여했다.

넷째, 초기에는 천도교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농민층이나 상인층, 농촌지식층, 관료층이 가담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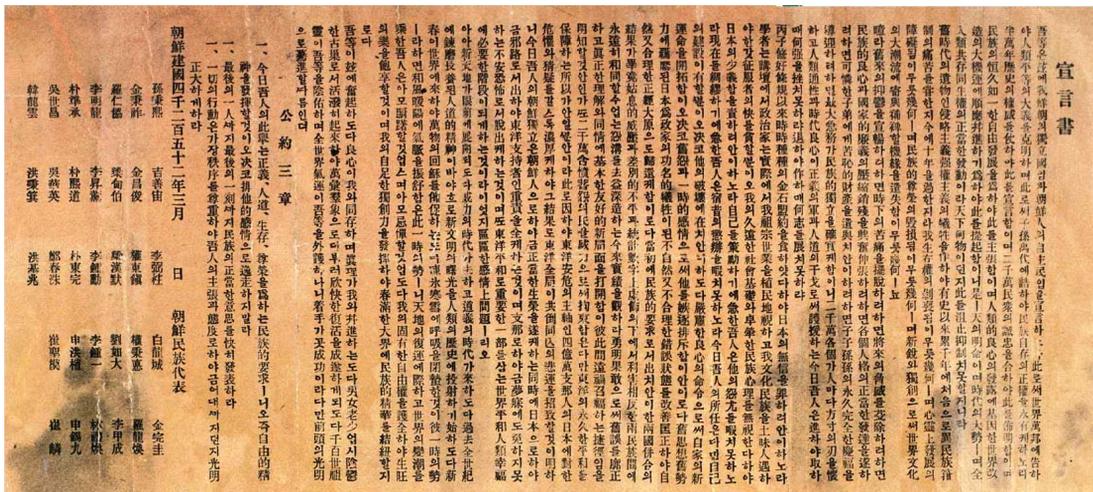
다섯째, 초기에는 비폭력적으로 전개되다가 일제의 검속과 탄압이 강화되면서 폭력화되었다.



# 삼일운동과 평택 2강

##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제작 배포되었나

이정은(대한민국역사문화원장)



독립선언서



#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제작 배포되었나

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장

## 차 례

- I. 배경
- II. 민족대표의 대중화 노력
- III. 민족대표의 비폭력 시위운동 방침
- IV. 시위 참여자들의 동기와 인식

### I. 배경

3·1운동을 추진했던 민족대표는 일제의 무단통치라는 삼엄한 군사계엄체제 하에서 독립운동을 일관되게 주도할 만한 주체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직업적’ 독립운동가 또는 투쟁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제정세의 변화, 광무황제의 국장이라는 계기 등 외부적 조건에 힘입어 운동을 촉발시켰다. 여기서 3·1운동의 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민족대표들은 운동의 중앙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1. 사회적·도덕적 권위의 한계

민족대표들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였다. 천도교와 기독교는 유교적 전통의 한국사회에 새로운 종교였으며, 아직은 대중 일반에까지 크게 인정을 받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는 도성 출입을 금지당해 왔던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 한 마디로 이들 민족대표들이 사회적

인 동원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족대표들 스스로도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신망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3·1운동을 계획하면서 먼저 민중의 신망을 가진 비중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박영효·윤치호·한규설·김윤식·윤용구·송병준 같은 인물과 교섭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sup>1)</sup> 이런 인사들이 거절 또는 유보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종교계 인물인 33인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 2. 조직적 한계

민족대표 등이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교단 조직과 학생조직이었다. 서북지방은 비교적 개신교와 천도교의 교세가 강하여 사전에 별도로 독립운동을 추진할 만큼 조직적인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갑성이 마산과 대구에 가서 지역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민족대표로서 참여를 타진했을 때 “우리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독립청원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뜻을 말하니 그 사람들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sup>2)</sup> “자기는 과연 재외 선인이 그 운동을 하는 여부와 조선 내에서 청원을 하는 여부와 또 이것의 성공여부를 의심하여 동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sup>3)</sup>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민족대표의 구성도 서울과 서북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조직적 기반에만 의존했다면 운동은 서북지방과 같이 종교조직이 강한 지역이거나, 학생층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시지역 즉 3월초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발발했던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나고 끝났을 것이다.

## 3. 이념적 한계

이들의 운동지도 이념에도 한계가 있었다. 독립은 자주적 독립 쟁취의 의지와 주도면밀한 전략과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천지의 대세와 보편적 당위성에 의해 저지 억제치 못할 섭리와 대세”로 보았으며, 그 방법으

1) 이병헌, 『三一運動秘史』, p. 48.

2) 「이갑성 취조서」, 이병헌, 위 책, p. 292.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p. 1270(대구 기독교계 유지 李萬集).

로서 끝까지 우리의 독립주장을 일관되게 함으로써 일제의 반성을 촉구하는 관념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 이외에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운동은 시작과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내맡겨진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3·1운동이 발발, 성공하기에는 중앙의 운동주체가 가진 역량의 한계 이외에 다른 두 가지 더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고한 지배체제가 있었다. 3·1운동이 발발한 시점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력한 지배체제가 완성된 시점이라는 점이다. 조선총독부의 무단지배체제, 토지조사사업의 완성,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조선면제의 시행, 식민지 무역관계를 핵으로 하는 경제적 종속이 이 시기에 완성되어 있었고,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전쟁 특수경기로 단숨에 항상적인 재정적자 상태를 탈피하여 일본 자본주의체제를 완성했다.

둘째는 우리 독립운동의 기반이 타격을 입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연해주와 만주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추진했던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큰 타격이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과 협력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어렵게 건설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기반은 국내외에서 탄압을 받아 거의 파괴당하고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 지도층의 주체적 역량 이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기의 세계정세의 대변화, 광무황제의 급서와 국장례를 앞두고 망국의 한과 비애의 정서가 팽배한 時利, 수만의 지방인사가 광무황제의 인산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함으로써 서울의 시위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조직적인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해 주

4) 尹炳奭,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 試論」, 『근대한국 民族運動의 思潮』, 集文堂, 1996. 참조.

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지방사회 민중들은 1918년 8월부터 초래되기 시작하여 1919년 3월에 절정에 달한 米價의 暴騰으로 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허기진 배와 피폐해진 생활로 절감하고 민중 봉기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으며,<sup>5)</sup> 조선 전래의 자치적인 향촌사회는 헌병경찰제, 면리 통폐합과 조선면제의 시행, 각종 법령과 규칙의 강제를 통해 식민지 권력의 직접적 통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주로 농민인 향촌민들은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 또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중앙의 운동계획에 호응하여 참여하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sup>6)</sup>

이미 이 시기 한국민중들은 새 시대의 전망과, 광무황제(고종) 급서로 촉발된 망국의 비애감, 전국에서 몰려든 국장 참배객으로 인해 조직적 한계의 보완, 식민지 지배의 민족적 모순을 쌀값 폭등으로 인한 굶주림, 관 일방적·직접적 규제에 의한 생활상의 압박 등으로 불만 당기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 II. 민족대표의 대중화 노력

민족대표들은 일제 무단통치하에서 매우 제한된 수단과 동원력을 가지고 3·1운동을 촉발시켰다. 민족대표들은 시위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1) 민족대표들은 운동의 폭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기 추진되던 천도교·기독교가 연대하고, 여기에 불교계, 또한 이와 별도로 추진되었던 학생층을 합류시켜 독립운동을 일원화하였다.

2) 민족대표들은 운동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이 운동의 3대 원칙의 하나로 대중화할 것을 표방하였다.

---

5) 이정은, 1990,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참조.

6) 이정은, 1992, 「日帝의 地方統治體制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참조.

3) 독립선언서에 자유·정의와 인도·인류평등의 고원한 이상주의를 담았다. 그럼으로써 군중들의 모든 상이한 목표들을 하나의 더 큰 이상적인 목표로 귀결시켜 운동에 결속감과 방향을 부여하였다. 군중과 고원한 이상주의 관계는 엘리아스 카네티의 군중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군중은 하나의 방향을 필요로 한다. 군중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그 구성원 전체에게 공통인 이 방향은 평등의 감정을 강화시킨다. 개개 구성원의 외부에 있으면서 전원에게 공통인 이 목표는 군중 자체에 치명적인 모든 상이한 개인적인 목표들을 없애 버린다. 군중의 존속을 위해서는 방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sup>7)</sup>

4) 이를 위해 시위 일자를 3월 3일 광무황제의 국장 이틀 전인 3월 1일로 결정하였다. 수만 명의 지방 국장 배관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며, 광무황제에 대한 애도의 정서를 독립운동과 결부시켜 운동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을 예상한 선택이었다. 이 결정은 3·1운동의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5) 그들은 사전에 독립선언서를 2만 매 이상 인쇄하여 조직적으로 지방에 전달함으로써 동시다발의 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6) 그들은 각기의 종교조직 또는 학생 조직을 통하여 사전에 운동을 조직화하였고, 실제로 운동을 현장에서 지도하기 위해 어떤 민족대표는 3월 1일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sup>8)</sup>

7) 그들은 독립선언과 더불어 이와 동시에 「조선독립신문」 1만매를 별도로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이것은 이후 나타난 수십 종의 지하 신문·격문류의 효시가 되어 항일 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8)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은 이후 대중화 과정에서 시위운동의 한 패턴으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시위 양상의 온건성과 급진성의 차이에 불구하고 독립선언, 독립만세, 선언서 배포, 가두시

7) 엘리아스 카네티, 洪甲淳역, 『군중과 권력』, 대일서관, p. 25.

8) 민족대표의 일원인 유여대는 의주에 남아 현지 시위를 직접 주도하였다.

위의 형태를 따랐다.

이와 같이 민족대표들은 그들이 직접 진두에 서서 운동을 지도·지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독립에의 의지를 표방”하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는 사전 연락과 조직화 작업을 하였으며, 그들이 체포되어 감으로써 대중들에게 더욱 비장한 결심을 이끌어 내어 대중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3·1운동이 “독립”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민족대표의 “비폭력 방침”이나, “운동지도 포기와 투항” 때문이 아니라 강고한 일제의 군사계엄적인 통치체제 때문이었다.<sup>9)</sup>

### Ⅲ. 민족대표의 비폭력 시위운동 방침

1919년 3월 1일 발발한 3·1운동에서 민족대표들이 발표한 「선언서」는 3·1운동의 이념을 제시한 것일 뿐 아니라, 전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규범”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의 공약 3장이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 一. 今日 吾人의 此舉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이니, 오즉 自由의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 一.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 一.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여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sup>10)</sup>

즉, 우리의 이 행동은 배타적 감정으로 군중심리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것, 끝까지 독립을 요구하는 의사표명을 계속할 것, 질서를 지키고 폭동화 되

9) 미국도 1776년 독립선언 후 7년간의 독립전쟁을 거쳐 1783년 11월 13개 주의 독립을 달성하였다.

10) 민족대표, 「선언서」 1919. 3. 1.

지 않도록 하라는 것, 즉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운동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의사표현을 계속할 것을 행동지침으로 제시하였다 할 수 있다.

민족대표들이 제시한 이 시위운동의 “규범”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독립운동의 실천방안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지배에 대한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표시하는 것 이자, 셋째, 일본 제국주의 무단통치하에서 완전 무장해제된 한국 민족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방식이기도 했다.<sup>11)</sup>

이에 따라 만세시위운동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 즉 불특정 대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가지나 읍내, 동리, 장터 등지를 행진하며 집단의 의사를 표명하는 대중시위운동 방식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민족대표의 비폭력 평화 시위의 원칙은 대중이 쉽게 동조하여 광범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대개의 경우 지배와 저항 사이에는 대칭 평형의 형태를 이룬다. 강력한 무단 통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강력한 군사독재에 대하여는 강력한 민주화 투쟁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것을 갈브레이드는 대응력(countervailing power)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칭성은 권력의 근원과 행사수단들 사이에까지, 이를테면 조직에는 조직, 재산에는 재산, 조종에는 조종 등으로 연장된다. 여기에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권력의 대칭성을 무너뜨리는 형태이다. 이를 “비대칭적 대응”이라 하며, 마하트마 간디의 대영 비폭력 무저항운동,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의 대중적 시민불복종운동을 통한 인권운동에서 그 예를 찾는다. 이러한 비대칭적 대응의 힘은 다음과 같은 갈브레이드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비폭력적 저항은 그것과 대립되는 권력구조를 마비시키고 혼란시켰다.<sup>12)</sup>

1919년의 3·1운동이야말로 이러한 비대칭적 대응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만약 무장투쟁과 같은 과격한 투쟁방식으로 3·1운동을 전개했다

11) 신용하, 2001, 「3·1독립운동의 非暴力方法의 사회적 배경과 社會的 조건」, 『3·1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 서울대 출판부 참조.

12) 갈브레이드, 박현채 역, 『권력의 해부』, 한빛, 1984 참조)

면, 물론 일제 무단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정된 조직의 단기 저항으로 끝났을 것이다.

1919년 3-4월 당시 일본 식민지 당국의 군사계엄통치 상태 하에서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과 같이 통제된 한국사회에 존재할 수 있었던 대중적 성격의 집단형성은 학교와, 종교단체의 집회 이외에는 5일마다 지방에서 서는 시장의 장터에 모인 장꾼뿐이었다. 이런 장소와 기회를 활용하여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나마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산상 봉화시위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시위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독립운동의 時空間을 夜間과 山上에까지 확대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일본의 무력 앞에서 촛철의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는 한국인들의 숭고한 용기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일제는 전국 동시다발의 전주민적인 시위운동에 직면하여 상당히 당혹한 흔적이 있다. 그것은 1919년 4월 3일 조선헌병사령관이 본국에 띄운 다음과 같은 電文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제야 말로 軍隊도 이미 百二十一個所로 分散하여 鎭定에 힘쓰고 있으나 元來 武裝 또는 限定된 結社團體의 企圖가 아니고 住民 全部의 反抗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遺憾이나마 斷然한 處置로 나갈 수 없는 狀況에 있다.”<sup>13)</sup>

그러나 3·1운동 계획단계에서 설정한 시위운동의 규범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지켜져 나갔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한 시일이 지나면서 운동의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변형되거나 아예 무시 또는 파기의 양상으로 나아갔다. 황해도, 평안남·북도에서는 서울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3월 1일 또는 3월 2일부터 곧바로 이런 “규범”을 뛰어넘어 일제 관현과 충돌하거나 면사무소, 주재소 등 일제 관공서에 쇄도하여 압박하는 “공세적”, “급진적” 시위운동으로 나아갔다.

13) 전보(1919. 4. 3. 오후 11시 39분발, 조선헌병대사령관),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 p. 90.

서북지방의 초기 시위운동의 이러한 “공세적” 성격은 일본 관헌의 무력 사용에 의한 인명의 살상 또는 주도인사의 구금으로 야기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그리고 3월 하순에 들어서 경기 및 경남북 지역에서 전개된 시위운동은 이와 달리 처음부터 공세적인 시위계획에 의해 기존의 학교나 장터의 “다중” 또는 “대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원”된 대중에 의한 조직적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의 1910년대 지배체제는 군사계엄체제, 수탈성, 폭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사회에 대하여 관일방적, 수직적, 일방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강제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인의 전면적인 거부와 저항이 전국에서 일어난 전민족적인 3·1운동이었다. 지방사회는 자발적인 참여, 수평적 연대, 다원적 대응이라는 형태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전면 거부하고 독립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방차원에서라도 쟁취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3·1운동은 만들어 진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 진행되면서 대중들이 만들어 갔으며, 일제 식민지 통치의 본질을 겨누고 그 철폐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 IV. 시위 참여자들의 동기와 인식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을 하자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형태로 독립에의 확신을 갖고 행동에 나섰다.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을 띠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서든지 1919년 3월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한국은 일본의 지배 하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아졌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특별한 신분과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자신의 일, 즉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섰다. 다음은 3·1운동 참여자들의 판결문을 통해 이 운동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1) 국제정세 변화를 기초로 한 독립운동의 움직임을 天運의 到來로 인식하였다.

피고는 한일합방 이래 한결같이 조선 독립을 염원해 왔는 바, 오늘의 천운이 순환하여 조선독립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전국 각처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14)

피고는 합병 후 독립사상에 불타오던 바, 현금의 세계대세는 각국이 부르짖는 민족 자결에 따라 제 나라 국토를 되찾는 이 때를 당하여 우리 조선도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할 좋은 기회를 확신하였는 바, 금년 3월 1일을 기하여 경향 각지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소리가 드높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도 조선사람으로서 기쁨에 넘쳐 거촌 주민들 함께 조선독립을 외친 결과…….15)

2)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가 새로운 시대 즉 正義·人道의 시대의 도래로 이해된 면이 있다.

오늘날 무력이 횡행하던 강제시대는 이미 아니고 도덕으로써 융합하는 평화의 시기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天命人道로서 무릇 인심은 사사로이 행하는 일을 배격하는 까닭에, 금번 평화회의 조건 가운데 민족 자결의 건이 들어 있어 貴國도 이미 날인한 바 있다…….16)

세계대전란의 결과 무도한 독일을 연합국이 정복하고 정의 인도를 주창함과 동시에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세계 각 약소국 및 속령 식민지 등을 독립시키려고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의되고 우리 조선도 이번 민족 대표자가 경성에서 회의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또는 각 지방에서도 축하의 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을 듣고 우매한 농민이라 하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지난 4월 1일 30리 거리에 있는 新市라는 시장으로 가서 일반 군중 5백여 명 중에 가담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던 중…….17)

14) 『독립운동사자료집』 5, p. 593. 황해도 연백군 운산면 석산리 金永杉(농업) 상고취지.

15) 위 책, p.570. 황해도 해주군 백정리 李致成(30세, 농업) 상고취지.

16) 위 책, p.732. 황해도 송화군 상리면 철관리 孫應奎(69, 농업) 상고취지.

3) 파리강화회의 소식은 한국독립이 확실시된다는 확신을 준 면이 있다.

지난 4월 4일 남천리로 장을 보러 나갔다가 경성에서 내려 온 過客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금번 파리 평화회의에 의해 조선독립이 승인되었다는 것인 즉, 그 기쁨은 산보다도 바다보다도 크고 벅차 종일 축배를 들고 취흥이 도도하여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조선 독립만세를 두어 번 외쳤던 바……18)

금년 3월 이래 조선각지에서 온 국민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신문지상 또는 사람들의 전하는 말로서 분명히 알게 되어 기쁨에 넘쳐 있었으나 다만 입으로만 독립만세를 불렀다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자칫 민중의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미루어 오다가 파리강화회의 소식을 듣고부터는 조선 독립이 확실하여 드디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로 작정하여 거촌의 주민들과 함께 4월 2일 밤 이들과 함께 구포동(鷗浦洞)에서 만세를 부르고……19)

4) 폴란드 등의 독립이 이러한 인식에 확신을 더해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피고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한낱 우민인 바 만국평화회의가 민족자결을 결의하여 1백여 년간 쇠망을 거듭한 폴란드도 독립을 성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밖에도 강대국 속방이던 여러 민족이 들고 일어나 저마다 독립을 주장함에 있어 우리 조선도 독립됐다는 회보에 접하여 너무도 기뻐 금년 3월말과 4월 1일에 걸쳐 인산면 기린리 장터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만세를 외친 바……20)

5) 지방에 따라서는 민족자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거론됨으로써 독립

---

17) 위 책, p.866. 평북 구성군 관서면 대우동 金君織(39, 농업) 및 朴永化(47, 농업) 상고취지.

18) 『독립운동사자료집』 5, p. 604.

19) 위 책, p. 621. 황해도 금천군 고동면 구성리 李榮基(30세, 농업) 상고 취지.

20) 위 책, p. 621. 황해도 금천군 고동면 구성리 李榮基(30세, 농업) 상고 취지.

가능성을 더욱 믿게 해 주었던 경우도 있었다.

구주전란 진정 이후 프랑스 파리의 평화회의에서 속방인 여러 나라 가운데 인구 5백만 이상과 역사상 국기를 지니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독립을 부여한다는 소식을 듣던 바……21)

6) 기독교도가 미국과 연합하여 한국 독립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

3월 10일 경 동면(청송군 현서면) 栢子洞 서당 주인 李圭伯에게서 '오늘(는) 3월 23일경 화목시장에서 예수교도 기타 유지 수백 명과 함께 한국 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조선에서 예수교도는 미국과 연합하여 한국의 독립을 결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永川 및 慈川 각 시장에서 근일 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이 있다'는 취지를 듣고 독립운동을 선동하기로 하고……22)

이러한 미국에 대한 기대는 단지 기독교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1919년 4월 9일 일본 동경의 궁내성에는 일본 국왕 앞으로 보내는 한 편지가 동경부청을 경유하여 접수되었는데, 그 편지는 경기도 楊州郡 別內面 高山里에 사는 유생 柳海正(19세, 농업)이 보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임금님을 속이고 한국을 강탈한 나머지 태황제(고종-필자)폐하를 독살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이가 갈리지 않을 수 없다. 만국이 구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기를 꺼린다면 분개한 백성이 일제히 꺾기하여 불의의 나라에 보복할 것이다. 자기도 1자루의 칼을 품었으니, 1번 죽음으로써 원한을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다. 미

21) 위 책, p. 600. 황해도 연백군 봉북면 용남리 金鍾奭(22세, 농업) 상고 취지 ; 위 책, p. 601.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나진포리 金珪培(27세, 농업) 상고 취지.

22) 위 책, p.1475.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동 金基洙(61세, 농업, 예수교) 상고 취지.

국 강화(회의) 위원은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연합국이 손을 잡고 그 죄를 물을 때에는 호랑이 앞의 토끼 신세가 될 것이다.<sup>23)</sup>

7) 운동의 전파과정에서 보면, 독립이 되었으니 만세를 부르라고 전달된 곳도 있었고 독립이 되었다고 믿었던 경우도 있었다.

본인은 서흥읍에서 50리나 더 들어간 깊숙한 두메산골의 글방 서생인 바 금년 3월 10일 상오 9시경 서당에서 생도들을 상대로 수업을 시작하려던 차 조선독립선언서가 마을의 奎炳雲에게 송달되었다는 기별을 받고 가 본 즉 金善化로부터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는데, 내용인 즉 조선은 분명히 독립되었으니 귀 교회에서도 교도 및 학생을 인솔하여 본군 도면 陵里읍으로 나가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하라는 것이기에 본 인도……이에 참가하여……<sup>24)</sup>

8)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朴宗林(28세, 무직, 기독교도)은 조선독립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독립사상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유럽 열강 강화회의에서 조선독립이 허용될 것이라고 믿어 조선독립 사상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이날 같은 거리의 高麗橋 부근에서 그 조선독립만세를 열광적으로 부르면서 같은 거리의 남대문까지 행진하고……<sup>25)</sup>

9) 독립이 되었다고 생각진 않았다 하더라도 강대국에 의해 독립이 결정되려 하 있으므로 지속적인 소요를 통해 파리강화회의 결정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양주군 榛接面 富平里 奉先寺 승려 李淳載 등은 부평리 이민들을 모아 시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만들어 진별리, 중촌리 등 4개 리의 각 민가에 배포

23) 위 책, p.308.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 유해정(19세, 농업, 유생) 상고 취지.

24) 위 책, p.647. 황해도 서흥군 소사면 방곡리 千光欽(26세, 서당 교사) 상고 취지.

25) 위 책, p.520.

했다.

지금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12개국을 독립국으로 만들 것을 결정하고 있는 모양이니, 조선도 이 기회에 극력 소요를 영속시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6)</sup>

10) 만세 시위를 통해 해외 독립운동가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면도 있었다. 서울 玉川洞의 고등보통학생 崔潤昌(20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國民會報」라는 유인물 50여 통을 인쇄하여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지금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12개조로 이루어진 민족독립(자결)주의를 성명하여 세계개조, 망국 광복의 기회이니, 우리 동포는 거국 일치하여 해외 동포를 성원하라.<sup>27)</sup>

11) 많은 사람이 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될 수 있다고 믿은 면도 있었다. 가평군 군북면사무소 앞 시위에 참여한 鄭在明이 진술이 그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독립 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된다는 것이므로 나도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sup>28)</sup>

개성군 송도면의 서적상 朴致玳는 서울 광무황제 인산에 참여했다가 만세 시위를 목격하고, 거기서 "만세를 부르면 조선이 독립된다"는 말을 듣고 개성에 돌아가 송도고보생 유흥준과 개성학당 임병구와 함께 「조선독립 開城會」를 조직, 학생들을 규합하려다 체포되었다.<sup>29)</sup> 이 때 함께 한 유흥준은

---

26) 위 책, pp. 302~303.

27) 위 책, p. 235.

28) 위 책, p. 506.

29) 위 책, p. 517.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년 3월 4일 군중이 개성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때 만세를 부르면 조선이 일본의 손을 떠나 독립할 수 있다고 믿어서 자기도 같이 만세를 불렀다.<sup>30)</sup>

즉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독립이 승인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여럿이 공동으로 만세를 고창하고 독립의 희망을 발표하면 열국이 이를 승인하여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sup>31)</sup>

이상에서 볼 때 러시아혁명과 세계大戰의 종전 결과로 인한 軍國主義的君主政體의 멸망과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주권·민족자결의 분위기 고양, 폴란드 등 약소국의 독립 등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전개가 식민지 한국 민중에게도 "정의와 인도의 도래라는 희망과, 독립의 전망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지방 확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유와 설명이 어떠한 평범한 민중까지도 자신이 보고 들은 바에 기초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들이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사슬에서 벗어날 독립의 기회가 왔고, 나도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3·1운동을 전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순한 동기와 의식에서 참여자들이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지만 이들의 의식도 운동에 참여하면서, 또 법정에서 투쟁을 계속하면서 더욱 단련되고 의식이 고양되었다. 3·1운동 참여자들의 판결문, 특히 상고 취지서 매 페이지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0) 위와 같음.

31) 위 책, p.164. 경기도 고양군의 鄭浩錫(35세, 무직) 재판 기록. 정호석은 3월 5일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고양군 동막 興英學校 만세시위와 공덕리 시위에 참여하였다.

①“본 피고는 조선사람 으로서 살아왔는데, 10여년전 언어가 다르고 의복조차 판이한 일본에게 합병 당한 이후 피고의 독립사상은 날로 굳어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제나라의 독립축원하여 만세를 불렀다 하여 징역형을 과함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상고한다.”(곽영조(19세), 황해도 황주군 검이포 대정정)<sup>32)</sup>

②“조선 반만년의 역사국 인민이 일본의 합병된 후 근 10년에 이르는 동안 독립사상에 굶주려 독립을 열망한 바 조선 국민대표 손병희 이하 32인의 독립선언서에 충심으로 감동하여.....“(차병규, 26세, 평안남도 대동군 금제면 이인리)<sup>33)</sup>

③우리 조선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당당한 국가인데 이번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좋은 기회를 만나 조선민족으로서 어찌 잠잠히 있으리요. 피고가 만세를 불렀는데 무엇이 죄가 되랴. 일본과 조선이 도저히 병합하기 불가능한 것은 명백하다. 지세로 보나 풍토·인정·언어로 보나 빙량이 상방하고 기름과 물이 합할 수 없듯이 어찌 동화가 되랴. 자기의 물건을 자기에게 돌리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랴. 피고에 대한 6개월 징역은 부당하므로 상고함(송예목, 26세, 강서군 준산면 오흥리, 농업, 상고취지서).<sup>34)</sup>

④“자기들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를 발동한 것으로서 범죄가 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제1심 및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하였다.”(조인원, 56세,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 외 김상훈, 유중무, 김용이, 조병호, 백정운, 조만형, 박재석, 박봉래 9명의 上告趣意).<sup>35)</sup>

⑤“일본은 君父를 시해하고 월 동포를 살해하기를 수백 명이나 되어 나는 통곡하고 원한은 골수에 묻힌다. 문명세계에서 한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덮어 두고 단지 가옥과 기물 및 야망적인 풍속을 타파하려는 적수공권의 선량한 국민에게 병기를 사용하는 총독부를 비롯하여 복심법원 각 군청 경찰관 주재소 은행 조합 척식회

3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3·1운동 재판기록) 1972, p. 632.

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 책, p. 790.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 책, p. 827.

35) 서울고등법원 판결문(대정 8년 刑上 제643호), 등본(미간행).

사 등기소 등과 같이 도둑놈 소굴에 소요를 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안지호, 63세, 함안군 대산면 산서리, 상고 취지).<sup>36)</sup>

---

36) 「대구복심법원 안지호 상고심 판결문」, 이규석, 『함안항일독립운동사』, 함안문화원, p. 122.



# 삼일운동과 평택 3강

종교연합과 민족대표

임형진(경희대학교 교수)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 종교연합과 민족대표

- 천도교를 중심으로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

## 차 례

- I. 서론
- II. 천도교의 3·1독립혁명 준비
- III.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
- IV. 불교와의 연합
- V. 결론-3·1운동과 종교연합

### I. 서론

100년 전 3월 1일 한반도는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진동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10여년을 인고하던 전 민족이 분연히 일어선 것이다. 함성의 무리에서는 신분, 연령, 남녀 차이도 없었고, 이념과 종교도 통합되어 있었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교주 의암 손병희의 주도 하에 교단의 모든 인력과 자금, 조직을 3·1운동에 쏟아 부었다. 운동의 대중화, 일원화(대동단결)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한 천도교는 이에 가담할 세력을 규합하니 기독교와 불교계가 호응했다. 평화적 운동방식을 추진하다 보니 종교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손병희는 최남선을 시켜 독립선언서를 초안하게 하

고 이를 타 종단에 보내 추인을 받았다.

2월 27일 밤 천도교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밤새 3만5천장의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다. 한밤의 인쇄기 소리를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의 조선인 고등계 형사에게 발각되었지만 의암은 그를 거금으로 매수하면서 민족의 전도를 방해치 말라고 꾸짖었다. 만주로 달아난 그는 후일 3·1운동 소식을 듣고 자결했다.

인쇄된 기미독립선언서는 태극기와 함께 천도교 조직을 통해 전국으로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드디어 3월 1일, 운동을 전개키로 한 탑골공원에는 엄청난 인파로 붐볐다. 민족대표 33인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운동을 지휘할 경우 자극받은 군중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근처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비폭력 원칙의 철저한 고수였다. 잠시 후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위대한 3·1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한 독립만세의 소리는 전국으로, 3월 말에는 만주, 시베리아, 미주 등 해외에서까지 조선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선언케 했다. 3월부터 5월까지 3달 동안의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500만 명을 넘었다. 투옥된 조선인이 4만7천여 명에 이르렀다. 운동의 3대원칙 중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운동 방식은 세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비폭력 무저항이 그렇게 큰 힘이었고 고귀했는지는 행하는 조선 민중들도 몰랐다. 그러나 무저항은 만세운동을 잔인하게 압살하던 일제를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훗날 우리의 3·1운동 소식을 접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라고 찬탄했다. 그 빛은 간디의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운동으로 이어졌다. 간디는 영국정부의 통치에 비협력, 불복종, 무저항함으로써 영국을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었고, 1763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인도통치를 종식시켰다. 우리의 3·1운동이 없었다면 20세기의 성인 간디도 없었고, 인도의 자랑스러운 독립도 불가능했다.

## II. 천도교의 3·1독립혁명 준비

1910년대 들어 천도교도의 숫자는 일본 측의 기록으로도 3백만을 호칭한다고 기록될 정도로 늘어났다.<sup>37)</sup> 당시 일제는 천도교 세력을 단순한 종교세력이 아닌 정치세력으로 간주해 경무국 관할 하에 두어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sup>38)</sup> 1910년 천도교월보사 간부진이 항일 합방에 반대하는 편지를 각국 영사에게 돌려 구속된 사건이나, 그 이듬해에는 테라우치 총독이 손병희를 직접 불러 천도교의 성미제를 트집 잡아 협박과 회유를 하기도 하는 등 천도교는 일제기간 내내 총독부의 주요감시대상인 민족운동집단이었다.<sup>39)</sup>

천도교가 구국종교로서 민족운동의 전면에 나선 것은 1919년 3·1 민주혁명에서 타종단에 자금지원과 기밀연락 등 전면적인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내부로부터 싹터 성장한 민족의식에 따라 민중을 이끈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운동은 당시 3·1 민주혁명을 의식한 것이 아닌 거족적 민중운동을 동학에서의 보국안민적 구국이념에 따라 1910년 9월말로부터 이미 천도교 중진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천도교의 구국적 신앙에 입각한 대중봉기운동을 동학혁명의 재현과 계승으로 하여 그 이후 1919년 3월 1일까지 근 10년간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특히 우이동의 봉황각을 설립한 후 손병희는 꾸준히 지역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 교육시키고 있었다. 모두 장차 반드시 쓰일 때가 있을 것이라는 선구자적 혜안의 준비였다. 이 외에도 1911년의 대한

37)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教』 조선총독부. 최길성, 장상언역, 1991, 『조선의 유사종교』 계명대출판부, 60쪽.(그러나 일제의 공식적 기록은 가장 교인수가 많을 때도 14만 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천도교단에서는 흔히 5백만 교도라고 불리고 있었다. 천도교도의 놀라운 교세 증가는 박은식의 “신도가 날마다 증가하여 300만을 헤아린다. 그 발전의 신속함은 거의 고금의 종교계에 일찍이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다. 박은식, 1920,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서문당, 126쪽.

38) 일반적으로 일제는 일반 종교는 조선 총독부 학무국에서 관할했지만 천도교는 유사종교로 취급해 경무국 관할로 두고 있었다.

39) 『전기』, 258-264쪽 참조. 천도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 박은식은 “(천도교에 대해)종교단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경찰을 파견하여 중앙총부와 각지의 교구를 감시하며, 달마다 재무, 회계의 장부를 보고하게 하여 없는 흠을 억지로 찾아내어 다수 징벌을 행한다. 교회의 주요한 인물은 날마다 그들의 정찰과 속박을 받는다. 지방교도의 심상한 출입도 구금당하여 곧 노예나 가축 따위의 대우를 받는다. 교인이 비교인과 소통하는 일이 있으면 사리의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반드시 교인을 패소시켰다.”라고 적고 있다. 박은식, 앞의 책, 126쪽.

제국민력회, 1912년의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 1914년의 천도구국단결성<sup>40)</sup> 등은 천도교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천도교도들 사이에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16년부터 천도교도들을 동원해 독립만세시위의 민중봉기를 일으킬 것을 교주 손병희에게 요청하는 신도가 있었다.<sup>41)</sup> 이때에 손병희는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1917년에도 같은 압력이 밑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당시 독일이 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에 가담한 일본의 패전을 대전제로 한 움직임이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승리를 바랐었다. 일본이 연합국에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구축국인 독일이 승리하고 일본이 가담한 연합국이 패전하면 한국독립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승장구하자 조선민족 사이에서는 독일이 승전하는 경우의 국제정세의 변동을 포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그것이 1917년 겨울에 임규를 통해 천도교와 선이 닿은 김시학이 발의한 독립 운동안이었다.<sup>42)</sup> 이 안은 우선 천도교·기독교·유림의 3종단을 연합하고, 사회계에서 이상재, 송진우, 우치민 등과 구관료계에서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김윤식 등을 연합해 1만 명이 서명한 독립청원서를 독일 수뇌에 제출하고 거족적 독립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여러 사람의 찬동을 얻었고, 손병희도 찬성하여 급진전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그러나 이 계획은 일본이 패전국으로 세계대전이 종결될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인데, 1918년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승전국에 일원이 되자 결국 국제정세의 대한 오판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40) 이들 비밀 지하독립운동단체들의 결성과 운동에는 천도교의 중진 지도자였던 목암 이종일선생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그가 남긴 「默菴備忘錄」에 실려있다. 「목암비망록」은 한국사상연구회간, 『한국사상』 제16호(1978)에서 21호(1989)까지에 원문과 해석이 실려있다.

41) 장효근일기(성신여자사범대학 한국사논총 제1집 所收, 1976), 1916년 11월 26일조에는 이날 천도교의 보성사 총무 장효근이 교주 손병희를 찾아가서 민중봉기를 협의하였으나 교주가 답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拜聖師 協議民衆蜂起 然不答 氣塞之事。」

42) 愛國同志援護會編, 한국독립운동사, 1956, 95쪽 참조.

43) 위의 책, 95-96쪽 참조.

교단 핵심지도자들의 끈임없는 직접적 독립운동방법론을 수용치 않던 손병희에게 1918년은 새로운 전기가 안팎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즉, 밖으로는 그 해 1월에 제1차 대전의 종전에 따른 윌슨 미대통령의 평화안 14개조의 발표였다. 따라서 식민지 국가의 입장에서는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국제연맹의 결성이라는 문제에 주목해 이때를 민족운동의 최적기로 판단할 수 있었다. 더욱이 1918년은 이미 해외로 망명한 독립지사들의 독립운동이 가시화되고 있었다.<sup>44)</sup>

1917년 상해의 신규식, 조소앙 등은 조선사회당을 만들어 스톡홀름에 있는 만국사회당대회에 참가를 신청해 놓았고 같은 해에 이미 만주의 독립지사들 중심으로 [대동단결선언]이 유포되었으며, 이듬해 말에는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대한독립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sup>45)</sup> 그리고 적의 심장부였던 동경에서 벌어진 1919년의 2.8독립선언은 손병희의 결심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1919년 1월 상순 재일유학생들이 본국에 파견한 송계백이 서울에 도착하여 그의 선배인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을 찾아가서 일본 유학생들이 작성한 독립선언문 초안을 보였다. 현상윤은 흥분하여 역시 중앙학교 교장인 송진우와 그의 친우인 최남선에게 보이고, 그의 은사인 보성학교 교장 최린에게 송계백을 데리고 가서 역시 독립선언문을 보였다. 최린도 역시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현상윤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최린씨는 천도교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천도교만으로는 힘이 약하니 널리 사회지명지사를 규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최남선씨를 내방하여 찬동을 구하였다. 그러나 최씨 역시 최초에는 자중론을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그 시에 마춤 동경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을하기로 하고 그 밀사로 송계백군이 동성으로 나와 나를 내견하고 모자내피 속에 넣어가지고 온

44) 천도교인 중 권동진과 오세창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독립운동 준비를 역설했고 최린도 이에 가담했다. 손병희 역시 한용운에게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고 받고 있는 중이었다.

45) [대한독립선언]은 기미년 이전인 무오년에 발표되었다 해서 일명 무오독립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발표일자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기미독립선언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았다.

「최린씨는 천도교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천도교만으로는 힘이 약하  
선언서의 초본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최남선·송진우  
양씨에게 輸示하였다. 그리한즉 이것을 본 최남선씨는 심기일전하야  
운동에 참가할 것을 快諾하였다. 나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최린 씨  
에게 보인즉 최씨는 다시 권·오 양씨와 손병희 씨에게 보였다.」<sup>46)</sup>

일본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독립선언서를 본  
사실은 그때까지 단지 논의단계에 있던 천도교와 중앙학교의 독립운동 논의  
를 급진전시켰다. 최린은 권동진, 오세창 등에게 일본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를 보이고 그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알린즉 이들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일으  
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데 대하여 천도교주 손병  
희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1월 20일경 손병희를 찾아갔다. 천도교는 당시 잘  
짜여진 강력한 중앙집권적 위계질서의 조직을 갖고 있었으므로 교주 손병희  
의 허락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손병희는 3인의 독립운동을 일으키자  
는 제의에, 「형들에게 이미 여사한 기획이 있다면 나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신명을 걸고 조국을 위해 노력하겠다」<sup>47)</sup>고 응답하였다. 또  
한 손병희는 일본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에 대하여도 「젊은 학생들이 이  
가치 의거를 감행하려 하는 이때에 우리 선배들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sup>48)</sup>  
고 응답하였다.

손병희가 이와 같이 3·1 혁명 제의에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한 것은 그가  
동학의 혁명적 전통으로 보아 천도교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력을  
밑으로부터 받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오랫동안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미 손병희는 1912년부터 우이동 봉황각에서

46) 현상윤, 「三一運動의 回想」, 신천지 제1권 제3호, 1946년 3월, 27~28쪽.

47) 「朝鮮三一運動신우사건」,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p.863. 이것은 일본헌병대 사령  
부의 조사기록이다. 한편 최린의 「자서전」, 한국사상 제4집, 1962, p.164에는 이 회  
합에서의 손병희의 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차 우  
리 면전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대하다. 우리들이 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  
하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이미 정한 바 있으니 제군은 십분 분발하여 대사를  
그르침이 없게 하라.」

48) 현상윤, 「삼일운동의 회상」, 전개잡지, 28쪽.

483명의 전국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교육이 시켜 왔는데 모두 이때를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연성수련을 명목으로 전국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총 7차례에 걸쳐서 49일간 수련시켰지만 내용은 민족의식과 고양이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들이 한 행동은 천도교 포교이었지만 대부분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의식교육에 철저하였다. 특히 몇몇은 서당 등을 개설해 계몽운동에 진력하였다.

이날(1919년 1월 20일경)의 회합이 천도교의 본격적인 3·1 혁명 준비의 시작의 날이었다. 이 무렵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등 천도교는 그들이 일으킬 독립운동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합의하였다.<sup>49)</sup>

- ① 독립운동은 대중화하여야 할 것.
- ② 독립운동은 일원화하여야 할 것.
- ③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

이것은 3·1 독립혁명의 원칙을 천도교에서 결정한 중대한 합의였다. 또한 이날 손병희는 이상의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법과 진행은 권동진·오세창·최린·정광조 등에게 일임하였다.<sup>50)</sup> 천도교는 다시 권동진·오세창은 천도교 내부의 일을 맡고 최린은 천도교와 외부와의 관계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천도교는 사회 각 진영에 비밀리에 접촉하고 거사에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개신교의 감리교와 장로교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고 급기야 역사적인 3·1 독립혁명은 종교연합적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천도교가 행한 노력과 희생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전교단이 일치단결해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누구의 의도 있을 수 없었다.

49) 최린, 「자서전」, 전개잡지, 164쪽에서는 이것이 최린 자신의 구상이었다고 하고, 장효근일기, 1918년 12월 15일조와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325~326쪽에는 이것이 천도교 교단의 원칙이었다고 쓰고 있다. 최린도 천도교 측의 일원이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기술을 택하였다. 이 원칙의 제안자는 최린인 것으로 보인다.

50) 현상윤, 「삼일운동의 회상」, 상계잡지, 28쪽 참조.

### Ⅲ.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sup>51)</sup>

최린이 독립운동에 연합할 세력과 인사로서 제1차적으로 구관료계 명사와 교섭했다가 실패하여 실의 속에 빠져 있을 때, 최남선은 최린에게 기독교측에도 독자적인 독립운동의 움직임<sup>52)</sup>이 있는 것 같으니 기독교와의 연합을 재시도하도록 제의하고 이승훈과의 교섭은 최남선이 담당하기로 하였다.<sup>53)</sup>

이때 교리와 그 성립 배경이 판이한 두 개의 종교집단이 첫 번째의 좌절 속에서 연합을 재시도하게 된 배경은 당시 정세의 객관적인 요청이 조직세력을 가진 두 개의 종단으로 하여금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든 조건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때 기독교측의 대표로서 이승훈을 선택한 것은 그 후 그의 민족대연합전선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매우 정확한 선택이었다.

최남선은 이승훈을 상경시킬 방법을 현상윤과 상의하고 부탁하였다. 현상윤은 2월 8일경에 정주사람 정노식에게 가서 그에게 이승훈의 상경방법을 문의하고 부탁하였다. 정노식은 자기집에 유숙하고 있는 오산학교출신인 김도태에게 부탁하여 오산학교의 경영을 위하여 좋은 기회가 있으니 즉시 상경하여 최남선을 만나 달라고 전언하도록 하였다. 김도태는 2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2월 9일 정주에 도착하는 즉시 오산학교로 가는 도중에서 오산학교 교원 박현환을 만나 이승훈의 동정을 물은즉 부천 방면에 가 있다고 하였다. 이때 이승훈은 선천의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도태는 박현환에게 이승훈의 상경을 전언하도록 부탁하였고, 박현환은 즉시 선천으로 가서 이승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승훈은 이 소식을 듣고 2월11일경에 상경하였다. 당시 이승훈은 「105인사건」으로 5년의 징역형을 치르고 나와 일경에게 요시찰인으로 감시받고 있었다. 최남선은 일경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51) 이하는 신용하, “3·1독립운동 발발의 경위”, 『한국근현대사론Ⅱ』, 지식산업사, 1977, 주로 참조함.

52) 기독교 측의 독립운동 움직임은 관서지방의 장로교 계통과 서울의 감리교 계통에서 각기 논의되고 있었다.

53) 최린 『자서전』, 167쪽.

이승훈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송진우로 하여금 그를 만나도록 하였다. 송진우는 이승훈에게 천도교측의 독립운동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기독교측에서도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운동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훈은 즉석에서 이를 쾌락하였다. 그는 이미 정주에서 상해로부터 파견된 신한청년당의 선우혁으로부터 파리강화회의에의 대표파견 사실을 통고 받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의봉기를 권고받아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으며,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기독교측의 독립운동이 이미 은밀히 준비되고 있었다. 이승훈의 쾌락에 의하여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전선 형성은 처음에는 매우 순조로운 듯하였다.

이승훈은 2월 12일 귀향하여 정력적으로 독립운동의 준비를 진행했다. 그는 선천으로 가서 장로교 목사 양순백을 만나 서울에서의경과를 설명하고 천도교와 기독교과 연합한 독립선언에 참가하겠다는 동의를 얻었다. 이승훈은 또한 양전백 댁에서 장로교 장로 이명룡, 장로교 목사 유여대, 장로교 목사 김병조 등과 회합하여 서울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모두 즉석에서 이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승훈은 2월 14일에는 평양으로 가서 일부러 기흥병원에 입원하여 그를 문병 온 장로교 목사 길선우와 감리교 목사 신흥식 등에게 서울 소식 및 선천 동지들과 합의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들의 참가 동의를 얻었다. 이승훈은 기물병원에서 그 외에도 이 일대에서 문병차 찾아오는 기독교 계통의 인사들과 접촉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고취하였다.

이승훈은 당시 한국기독교계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는 평안도 지방에서 기독교계로부터 독립운동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 대체로 성공하자 2월 16일 밤차로 신흥식을 대동하고 상경하였다. 감리교 목사 신흥식을 대동한 것은 서울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감리교 계통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승훈은 2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은신처로서 昭格洞 133번지 김승희댁에 숙소를 정하고 송진우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송진우는 1차 내방은 하였으나 전과는 달리 그 태도가 매우 모호하여 믿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는 최남선을 회견할 방도도 없었다. 이때 송진우 등은 구대한제국의 고관출신 원로들이 독립운동에 회의적이자 매우 의기소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준비를 하고 상경한 이승훈은 매우 실망하였으며, 마음속에 의혹을 품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승훈이 천도교와의 연합이 뜻과 같이 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2월 20일 기독교청년회 간사인 감리교의 박희도가 그를 방문하였다. 박희도의 방문은 신홍식과 이명룡이 알선했다. 박희도는 서울에서 기독교청년들 사이에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측 단독으로라도 독립운동을 일으키자고 제의하였다. 이승훈도 이에 동의하여 연합운동은 일단 중단되고 기독교 단독의 운동이 준비되었다.

이날 밤(2월 20일) 유창동 299번지의 박희도 집에서 이승훈·박희도·오화영(南監理敎 목사)·정춘수(동 목사)·오기선(북감리교 감리사)·신홍식 등이 회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의되었다.

- ① 천도교와의 연합을 단념하고 기독교 단독의 독립운동을 추진할 것.
- ② 독립운동의 방법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것
- ③ 독립청원서에 서명할 기독교동지를 서울과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모집할 것.
- ④ 기독교동지의 모집은 연고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담할 것. 우선 정춘수는 원산 방면을 담당할 것.

이승훈·박희도 등이 기독교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협의한 바로 그날 밤, 이와는 별도로 기독교 장로교파의 함태영의집에서 함태영, 세브란스병원 사무원 이갑성, 평양 기독교서원 총무 안세환, 장로파 조사 오상근, 목사 현순 등이 모여 역시 기독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협의하였다.

이튿날인 2월 21일 아침 이승훈이 동지규합의 일환으로 함태영을 찾아가서 전날밤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그의 찬동을 구하자 함태영은 이갑성에게 알려 이에 동의하고, 역시 그 전 날밤의 함태영 집에서 있었던 회합을 설명하여, 각각 별도로 모였던 기독교의 두 회합이 하나로 합류하게 되었다.

기독교측이 기독교 단독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또는 우연의 일치였는지, 이날(2월 21일) 오후에 최남선이 이승훈을 소격동 은신처로 방문하여 그간 일경의 주목 때문에 상통을 못하였음을 사과하고 천도교와의 연합을 재시도하기 위하여 최린과 상면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남선과 송진우의 소극성으로 하마터면 양교의 연합이 처음 시도에서부터 접촉이 안되어 각각 별도로 독립운동이 추진될 뻔 하다가 가까스로 다시 접촉이 이루어질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이승훈은 최남선과 함께 최린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유를 말하고, 전날 기독교측 여러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기독교측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최린은 당황하였다. 천도교의 최린은 최남선을 통하여 기독교와의 연합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린 자신의 소홀함과 최남선을 통한 기독교측의 이승훈과의 접촉의 불충분으로 중대한 문제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었다. 최린은 독립운동은 민족 전체에 관한 대사업이므로 종교의 종류를 불문하고 합동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최남선도 중간에서 합동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승훈도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였다. 처음부터 이승훈은 민족연합전선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기독교측의 독립운동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로서는 민족연합전선의 형성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바라는 바였다. 그러나 전날밤 기독교 동지들과의 회합에서 기독교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기독교 동지들과 협의한 후에 최종 승낙을 통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하마터면 기회를 놓쳐 버리고 실패로 귀결될 뻔한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의 기틀이 이승훈과 최린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측은 독립운동의 자금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기독교측은 사실상 각 교회의 연합세력으로 되어 있었고, 교회마다 재정궁핍으로 곤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의 회합에서 독립운동 비용을 기독교 동지들이 각기 분담하여 염출하기로 하였으나 시일은 급박한데 재정궁핍의 상태에서 단시일에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염출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승훈은 이 자리에서 최린에게 기독교측의 독립운동 준비자금의 염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천도교측에서 우선 5,000원을 빌려주면 만사여의할 것 같으며, 만일 5,000원이 안되면 우선 급한 비용으로 3,000원 정도라도 반드시 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린은 천도교측도 일전에 은행에 저금했던 예금 전부를 일경에게 압수당하고 역시 곤란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선해보겠으며, 만일에 자금이 되면 금자성이라는 암호 名刺를 이승훈의 숙소에 보낼 터이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최린은 천도교주 손병희에게 가서 그간의 기독교측과의 연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5,000원이 안되면 3,000원이라도 빌려주는 것이 연합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손병희는 5,000원을 요청하였으니 그대로 주는 것이 좋다고 쾌락하였다. 이것은 3·1운동 준비의 모든 자금을 천도교측이 부담하는 것을 승인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최린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그날 저녁에 나는 동대문 밖 상춘원에 가서 의암선생을 뵈었고 그동안 경과사항을 일일이 보고하고 이승훈이 청구한 금액에 관하여 솔직히 이승훈 말대로 오천원이 못되면 삼천원이라도 좋다고 하면서 우선 삼천원만 주어두는 것이 기독교측에 대하여 우리의 성의를 표사하는 데 좋은 조건이오 또는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측과 연결하는 인연이 지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말씀이 오천원을 청구하였으니 그 액수대로 융통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천도교 재정 형편으로 보면 은행저금을 전부 일경에게 압수를 당하고 대단히 곤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대사에 임하는 초월한 태도에 감격하였다. 다음날 이십이일에 천도교 금융관장 노현용이 금오천원을 제동 나의 집에 가져왔다. 나는 즉시 오천원을 가지고 소격동 이승훈 숙소에 가서 금자성이라는 명자를 통하여 들어가서 직접 교부하였다. 이승훈은 대사가 이로 인하여 성취될 가망이 있다고 대단히 기뻐하였다.」<sup>54)</sup>

이승훈은 최린을 만나 연합에 재합의하고 독립운동 자금의 차용을 요청한

---

54) 최린, 『자서전』 169쪽.

날인 2월 21일 밤 이갑성의 집에서 기독교측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밤 회의에서는 장로교측 대표로 이승훈·함태영·이갑성·안세환·김세환(수원삼일여중학교 교사)·김필수·오상근이 참석하고, 감리교측 대표로 박희도·오화영·오기선 등이 참석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의되었다.

- ① 이승훈이 천도교와의 연합의 새로운 진전을 보고하자 처음에는 반대론이 상당히 일어났으나 이갑성·함태영·안세환 등이 독립운동은 종파를 초월한 거족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승훈을 지지함으로써, 운동방법에 큰 차이가 없는 한 천도교와 연합할 것에 합의하고 그 교섭위원으로 이승훈·함태영을 지명하였다. 이승훈과 함태영은 천도교측과 교섭하여 그 결과를 다음날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② 독립운동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다수의 대표자들이 연서하기로 하며, 독립청원서의 초안 작성은 이승훈·함태영에게 위임하였다.
- ③ 국내독립운동과 국외독립운동을 연결하고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玄樞를 상해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 ④ 전국 각 교회에서 동지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20일 회의에서 선정된 지방순회위원 이외에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명하였다. 이승훈은 평안북도, 신흥식은 평안남도, 이갑성은 경상남북도, 김세환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의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북도의 책임자만이 책임자가 없으므로 이갑성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 김병수에 부탁하여 전라도지방을 순회하여 동지를 모집케 하였다.

기독교측 교섭위원으로 위임된 이승훈·함태영은 이튿날인 2월 22일 저녁무렵에 최린을 그의 제동 집으로 방문하여 전날 밤 기독교측이 합의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날 낮에 천도교측에서 기독교측에 5,000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두 종교의 연합은 이미 낙관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를 대표하여 이승훈·함태영 등은 천도교의 최린에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독교측에는 천도교측이 만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여 폭력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풍설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알고자 한다고 하였다. 최린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말하였다. 천도교측도 이번의 독립운동은 비폭력으로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교의 견해가 처음부터 합치되었다.

둘째, 기독교측은 독립선언서보다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린이 반대하여 독립운동은 「독립선언」 이라야 옳고 「독립청원」 을 할 바에는 구태여 연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린은 독립선언의 방법에 의한 양교의 연합을 역설하였다. 이승훈·함태영도 이에 찬동하고 기독교 동지들과 상의한 후 회담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2월 22일 저녁 무렵에 최린의 집에서 이승훈·함태영·최린 3자회담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하여 양교 대표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기독교측은 이날(2월 22일) 밤 함태영의 집에서 이승훈·함태영의 교섭결과를 듣고 연합여부를 확정하는 기독교측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승훈·함태영·박희도·안세환·오기선 등이 참석하였다. 다른 기독교 대표자들은 동지를 모집하기 위하여 지방순회에 나가고 서울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승훈과 함태영의 보고를 듣고, 천도교측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부담한 데 대하여 만족하였으며, 양교의 연합에도 전원 합의하였으나 독립선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결과 대부분의 기독교 대표들이 독립선언의 방법에 의한 독립운동에 찬동하였다.

이승훈·함태영 양인은 기독교측을 대표하여 2월 24일 최린을 방문하고 무조건 연합의 의사를 통고하였다. 이로써 3·1독립운동을 위한 역사적인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전선이 성립하게 되었다. 천도교의 최린과 기독교의 이승훈·함태영은 이날 양교의 연합을 확정함과 동시에 독립운동의 추진방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

- ① 거사일을 3월 1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이때에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독립을 선언할 것.
- ② 독립선언서는 이를 다수 비밀히 인쇄하여 서울에서는 독립선언 당일 이를 군중에게 배부하여 만세를 부르도록 하고 각 지방에는 이를 분송할 것.
- ③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에 분송할 때 서울에서의 독립선언 일시 및 독립선언서 배부 절차를 전달하여 각 지방에서도 서울에 따르게 할 것.
- ④ 독립선언서 기타 문서의 기초와 독립선언서의 인쇄는 천도교측에서 담당할 것.
- ⑤ 독립선언서의 배부와 분송은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에서 각각 담당할 것.
- ⑥ 일본정부와 일본 귀족원·중의원의 양원 등에 보내는 통고문은 천도교측에서 담당하여 보내고, 미국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의 열국 강화위원회에 보내는 청원서는 기독교측에서 담당하여 보낼 것.
- ⑦ 조선민족대표로서 각 서면에 연명할 사람은 천도교와 기독교측에서 각각 십수 명을 선정하도록 할 것(기독교측에서는 가급적 다수의 동지를 모아서 연서하기 위하여 지방에 사람을 내려보내 동지 모집에 종사케 하였으나 이 협정에 의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⑧ 독립운동에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불교도도 연명에 가입시킬 것.

#### IV. 불교와의 연합

천도교와 기독교와의 연합이 형성되자 불교와의 연합의 과제가 대두되었다.

최린은 기독교와의 연합을 모색하던 2월 10일경에, 《장효근일기》에 의하면, 이미 불교계 대표로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한용운과 접촉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그 대표가 될 것을 수락 받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린의 자서전에는 그가 한용운을 계동의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 2월 24일 밤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 관헌의 조사자료에 2월 24일에 「또 독립운동에 대하

여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불교도도 우 연명에 가입시키기로 정하였다」고 한 바와 같이 최린이 이승훈 등과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을 확정할 때 한용운 등의 참가의사를 기독교측에 알리어 공식적으로 양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인 바로 그날밤 양교의 협정에 의거해서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한용운의 집으로 찾아가서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합의사실을 알리고 불교와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린의 자서전에는 한용운과의 교섭의 성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의 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정세와 국내 인심 동향을 말하는 중 그는 비분강개한 어조로 천재일우의 이 기회를 우리로서 어찌 좌시묵과할 수 있는 일이나고 말하였다. 나는 그의 의사를 간파하고 그간 경과사실을 피력하였드니 그는 즉석에서 불교측 동지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것을 승낙하였다. 그후 한용운은 불교측 동지를 규합하기에 노력하였으나 시기가 급박하고 일경의 감시가 심하여 널리 통지하지 못한 관계로 한용운·백용성(본명 백상규) 이인만 참가하였으나 불교측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다.」<sup>55)</sup>

한용운은 실제로 시일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호남과 영남지방의 심산유곡에 자리잡은 여러 사찰에 긴급히 연락하여 동지를 모으는 활약을 한 것 같다. 한용운은 “우리 불교에 관한 것인데 호남방면의 박한구·陳震應·도진호 제사와 경남의 오성월 師許에 회담을 교섭하였으나 교통 기타사정으로 면담치 못하고 백용성선사만의 승낙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한용운이 이때 동래의 범어사를 3·1운동 관계로 다녀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한용운은 이때 불교측 승려들의 광범위한 호응은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당시 한용운은 이미 독립투사로서 불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불교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의 참가로써 불교계의 독립운동 세력은 3·1운동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불교측 대표자수는 적었으나 한용운·백용성의 참가로 사실상 불교와의 연합전선은 형

55) 최린, 『자서전』, 전계잡지, 171쪽.

성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3·1운동과 종교연합

국내적으로도 해외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독립운동의 소식전달에 독립의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었다. 우선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갖춘 종교조직의 연합이 이루어 졌다. 민족독립을 위한 이질적인 각 종교가 대화합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목표에 접근키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제 천도교에서는 더 이상의 조직강화와 교단정비는 정치적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내외의 분위기가 성숙한 것이다.

우선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던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타종교와의 연합에 적극 나서고 민중운동의 원칙을 비폭력·대중화·일원화로 세워 마침내 3월 1일을 거사날짜로 결정, 거국 거족적인 만세독립운동을 일으키니 그것은 국내외 각지로 파급 확산되어 갔다. 결국 국민국가 실현과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1민주혁명은 천도교의 민중운동 3대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는데 그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22년에 폐막된 워싱턴의 태평양 회의를 통해 3·1독립만세운동과 같은 거사를 천도교의 보성사팀이 중심이 되어 민중들의 합세와 지지·호소 하에 재차 제2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봉기하려 기도하였다.<sup>56)</sup> 뿐만 아니라 3·1운동후의 여러 곳의 임시정부수립에 천도교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그들의 보국안민이념 실천의 연장선이 었다.

이처럼 3·1독립운동은 1876년 개항 후 외세에 대한 일련의 민족저항운동, 즉 1884년의 갑신정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1896-98년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1905년 이후의 국권수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1910년 이후의 국내외 독립운동 등이 민중에 의하여 집약화된 전민족적인

56) 이현희, 「동학혁명과 민족구국운동」, 동학혁명 100주년기념사업회, 133-134쪽 참조.

항일독립운동이었다.

물론 3.1독립운동은 거족적 독립운동으로서 어느 한 종파나 한 계층이 단독으로 추진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각계각층의 성원이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거의 동시에 단결하여 궤기한 전민족적인 대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파당을 초월한 대규모의 거족적 운동은 3.1독립운동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사적 관심의 첫째 대상은 어떻게 이 지난한 각계각층의 전민족적 동시궤기가 가능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독립」이라는 동일목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 동일목표는 언제나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3.1독립운동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 「초기 조직화의 단계」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세력집단의 흐름이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기획하면서 결국 「민족대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종교간의 연합이 그 중심을 이룬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종교란 가르침(敎)의 으뜸(宗)을 의미한다. 당시 우리 민족의 최고 현안은 독립의 쟁취였고 이민족의 압제를 벗어난 자주독립국가의 실현이었다. 이 절대절명의 민족적 과제에 교리와 교설이 판이한 종교간의 연합이 실천되어 거대한 민족운동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점은 오늘까지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3.1운동의 비폭력 무저항의 운동은 종교간의 연합을 이룬 성직자들이 앞장을 선 운동이었기에 가능했다. 비록 비폭력 무저항에 일제는 가장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 탄압하고 억압했지만 숭고한 우리 민족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꺾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를 탄압하던 일제로 하여금 스스로 야만인이라는 치욕을 갖게하고 말았다. 비폭력이 가장 무서운 무기이고 용서가 가장 큰 복수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3.1운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동방의 등불 코리아로 칭송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통합정신과 지도력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 삼일운동과 평택 4강

## 3.1운동에 기생(妓生)은 어떻게 참여했나

이동근(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삼십일일 오후네사츨되야 안성조  
합기생일농이 만세를부드며 시의  
운동들시작함의 안성부니 각처에  
쳐일시에쇼동되야 군중찰여명과  
갓치연합이며 그들일체하들고 군  
청과경찰처와 면사무소에 드러가  
쳐 만세를부드고 그로부터동이동  
산에올나 일체허구한국 티구의를  
들고 산이진동호도록 쇼동호후에  
안성부니일동들 방방곡곡히 도라  
단이면쳐 고성으로만세를부드다  
가 오후여섯시경진영된 모양인듯  
하더니 그날밤일곱시반쯤되여 다  
시소동이시작되여 군중약 삼천명  
이 각각등에불을켜들고 쇼동함의  
음니면장민영천씨가 보통학교로  
집합케고 곡진호철명늘호여 즉  
시희산케하얏더라 안성부구통신

안성기생들의 만세운동 기사(『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 3.1운동에 기생(妓生)은 어떻게 참여했나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 차 례

- I. 일제강점기 기생의 존재양상
- II. 기생들의 3·1운동과 특징

#### I. 일제강점기 기생의 존재양상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기생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다. 1927년 이능화(李能和)가 펴낸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이다. ‘해어화(解語花)’란 기생을 부르는 별칭이었다. 해어화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으로 본래 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데리고 연꽃을 구경하다가 양귀비를 가리키며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연꽃이 어찌 나의 해어화만 하겠느냐?”고 하여 생긴 말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기생은 우리나라만 쓰는 호칭이다. 지난날 잔치나 술자리에 나가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여자를 일컫는 말로 ‘예기(藝妓)’와 함께 쓰였다. 특히 ‘기생’의 한자어는 우리나라 문헌에서 조선시대 와서야 비로소 출전을 찾을 수 있다. ‘기생’의 ‘생’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학생’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또한 성씨 뒤에 붙어 ‘젊은이’ 또는 ‘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교생, 서생, 선생, 학생, 이생, 허생 등과 같은

경우이다.

기생의 원류를 찾아보면 이능화의 앞 책에 신라 중엽에 처음으로 원화(源花)를 받들었는데 이것이 기녀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원화는 여자 화랑을 말하는데, 진흥왕 37년(576)에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라는 두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 3백여 명의 젊은이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행실과 재주를 평가하여 나라의 등용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질투하여 그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여 죽음으로써 이는 없어지고 남자 화랑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또한 성호 이익은 기녀의 종류를 양수척(楊水尺)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양수척은 읍에 예속되어 적을 두고 남자를 노(奴), 여자를 비(婢)로 삼고 수척에 있는 비를 기생으로 삼았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은 수척은 관기의 별명으로서, 우리나라에는 기생이 없었고 본래 유기장(柳器匠)인 양수척이 있었는데 그 종족은 관적(호적)이 없었으며 수초(水草)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오로지 사냥과 유기를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고려 때 이익민(李義旻)의 아들 지영(至榮)이 양수척을 기적(妓籍)에 올리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 뒤부터 남아가 태어나면 노로 삼고 여아가 태어나면 기생으로 삼았다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기생의 시초라 하였다

실질적으로 기생제도가 정비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관기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교방이 두어져 기생을 관장하고 교육을 맡아보았다. 교방에서는 가무 등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는 물론, 행의(行儀)·시(詩)·서화(書畫) 등을 가르쳐 상류 고관이나 유생들의 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기생의 수는 대략 3만 명에 달했다. 소속 관아가 서울에 있으면 경기(京妓), 지방에 있으면 지방기(地方妓)라고 불렀다. 경기는 관동이나 삼남 지방에서 뽑혀 올라온 소위 선상기(選上妓)들이었다. 100명에서 300명 사이를 오가던 경기는 진찬, 진연 같은 궁중잔치에 동원 됐다. 이들은 평소에는 내의원과 혜민서에 속해 있으면서 의술을 펴는 의녀 즉 약방(藥房)기생과 공조나 상의원에서 왕과 왕비의 의복을 지어 바치는 침선비 즉 상방(尙房)기생

으로 나뉘었다. 지방기는 기(妓)와 비(婢)로 구분했다. 감사·수령·방백들의 침석에 불려가는 수청기에서부터 물 길고 불 때는 급수비까지 역할이 다양했다. 미모와 재능이 뛰어난 지방기도 종종 궁중연회에 뽑혀 올라 왔다.

전통적인 기생들의 삶의 변화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전통적인 사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왕실은 재정적인 이유로 갑오개혁 때 약 300여 명의 관기(官妓)를 해고했고, 기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양반 세력도 가파르게 기울어 갔기 때문이다. 이후 관기에서 내 몰린 기생들은 1패(牌), 2패, 3패로 나뉘어져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1패는 본래 의미의 기생으로서 궁중과 관청 등의 연회에서 가무를 하는 일급 기생을 말한다. 2패는 은밀히 몸을 파는 여자를 은근자로 이르는데, 기생 출신으로 남의 첩 노릇하는 경우가 많아 1패에서 한 급을 내려 2패로 불렸다. 3패는 탐양모리로서 매음하는 창녀를 일컫는다.

1895년 이후 궁중 관기는 장악원 직제에서 태의원(太醫院)과 상의사(尙衣司)로 소속되었다. 그리고 내의원(內醫院)의 의녀(醫女)와 상의사의 침선비(針線婢)는 1907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직제 상 관기가 폐지된 것은 1907년이었다. 하지만 국가에 소속된 일종의 공인 예술가로서 ‘관기’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08년 9월 「기생 및 창기 단속령」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다. 경시청에 의해 모든 기생들이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는 기생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궁중 관기가 사라진 것은 이 무렵이었다.

기생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관기들이 중심이 되어 한성기생조합소, 평양예기조합 등이 설립되었다. 이후 1913년부터 조합은 출신 지방별로 모여 한성기생조합이 광고기생조합으로 개편되고, 다동기생조합 등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방에서도 기생조합이 새로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기생조합은 내부에 ‘학예부’와 같은 기생양성 기관을 두어 전통 악가무(樂歌舞)를 재생산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서 이전 시대의 여악의 기능을 이어 나갔다. 또한 기생조합은 요릿집

과의 계약을 통해 기생이 ‘놀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업적 조직의 성격을 띠면서 기예의 대중화와 상품화를 가져왔다.

기생조합은 1914년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식 명칭인 ‘권번’으로 바뀌게 되었다. 권번은 파티나 연회장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에서 연유하여 일을 맡은 당번 모두를 권번이라 했다. 이것은 일본 내 기생들의 기관이자 기생학교였던 ‘교방’의 기능을 민간에서 모방한 것으로 다이쇼 기간에 일본에서 예기들의 조합을 좁혀서 ‘칸반(爛番)’이라고 하였고, 조선총독부는 그 한자음을 따와 ‘권번’시대를 열어갔다. 권번은 기생을 관리하는 업무대행사로 등록된 기생을 요청에 따라 요릿집에 보내고 화대를 수금하는 일을 맡았다. 신입기생은 권번에서 인물이나 태도, 가무, 서화 등을 심사해 채용했으며, 권번은 어린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요릿집 출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권번은 요릿집과 기생의 중계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전통예능 교육의 장이기도 하였다. 권번에서는 기생들에게 가사, 시조, 잡가, 민요, 가곡 등과 가야금, 거문고, 양금, 장구 등을 가르치고, 궁중무용은 물론 이요 민속무용과 서양댄스, 서화까지 가르쳤다. 일제강점기 권번은 대중예술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다.

일제강점기의 기생은 오늘날 연예인의 선조 격이다. 재주와 끼도 많고 스캔들도 만들고, 대중 인기의 수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기생은 사진엽서와 각종 미용제품 신문광고의 주인공이었다. 일반적으로 샴푸, 비누, 화장품의 광고는 대부분 기생이 등장하였다. 외모가 아름답고 가무에 소질이 있으며, 이들의 삶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는 곧바로 대중의 화젯거리가 되었다. 기생들은 일반적 여성들에 비해 미용과 패션, 화장 등 미적인 면에서 월등히 시대를 앞서나가며 유행을 선도해 나갔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 기생들의 활동은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유명하였던 요릿집 ‘명월관’, ‘천향원’ 등이 재개업을 하면서 전국 5천여 명의 권번 기생도 부활하였다. 당시 서울 4대 권번은 삼화·한성·서울·한강권번으로 예전과 같은 부흥을 꾀하였다. 하지만 미군정 시기에 일제 잔재인 ‘공창의 단속’에 맞물려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미군정 이후에 그 명맥을 서울 2대 권

번인 한성·예성권번이 이어 받았지만, 1948년 당국은 가무음곡을 금지하면서 ‘접대부’라는 제도로 권번 기생을 강제 편입시키게 되었고, 기생은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일제는 1908년 9월 28일 경시청령 제5호 「기생단속령」과 제6호 「창기 단속령」을 반포하였다. 기생과 창기가 그 계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기생과 창기단속령이 따로 공포되었다. 기생은 기예를 우선시하며, 창기는 매음으로 위업을 하는 자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장악원에서 관리하던 관사기녀(官私妓女)들을 경시청(警視廳)에서 이속하여 관할하기 위한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기생들의 자유영업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생과 창기 모두 공창화의 진행 속에서 식민 통제 아래에 두고자 한 것이었다.

「기생단속령」 제1조에 기생은 부모나 친족이 관할 경찰서를 경유하여 경시청에 신고해서 인가증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생을 그만 둘 때에는 인가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제2조에 기생은 경시청에서 지정하는 때에 조합을 설치하고 규정을 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했다. 기생들이 인가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구류나 십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기생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경시청의 명령권 안에서 관리하고자 만든 법령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기생들은 조합운영을 위한 매일 경비의 견적서도 작성해야 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내용, 조약 개정, 치료소의 검진보고서, 결산보고, 공연활동, 순회연주 등도 모두 보고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조선에서 일본식 공창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거류지의 공창제도와는 대조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가 실시한 조선 공창제도의 특징은 일본 국내 또는 거류지에서 풍기단속을 위해 유곽을 설치한 것과는 달리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음업을 공허하면서 매음부의 성병검사를 중심으로 공창화를 실시한 점이었다.

일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1908년 반포한 「기생 및 창기 단속령」을 통해 건강진단을 의무 규제화시킨 것 자체가 공창제도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일제는 ‘기생’과 ‘창기’를 구별하였

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생을 창기로 격하시키면서 공창제라는 틀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예기’, ‘창기’, ‘작부’로 구분하여 공창제의 강화 속에 성병 검사는 지속되었다. 1914년 이후 기생조합이 권변화하면서 조선 기생의 위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제도권 안으로 편승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기생들을 창기와 동일시하며 지속되었던 공창제의 틀인 ‘건강진단’이라는 시스템에 더 얽어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생들은 저마다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젊을 때의 기생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꿈꾸었다. 비록 일제의 공창화 정책과 상업화 되어가는 사회질서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생들은 식민지 현실 속에 생존권의 문제에 크게 맞부딪히게 되었다. 기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주와 기예를 팔고, 몸을 팔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 결국 이것은 창기들의 확산을 가져왔고, 기생들의 재주와 기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극복하고 기생들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또 다른 방식의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서였다.

기생들은 사회활동으로 고아원, 유치원 유지 및 학교설립기금보조 등의 교육관련 경비보조를 위한 공연예술 활동, 기근이나 수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제활동 및 경비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연주활동, 재만동포를 위한 구제 공연 예술활동, 그리고 조선음악정화 및 조선음악장려, 부흥을 위한 공연예술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생들의 자선공연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기생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서, 사회적·관습적 외부시선에 대한 기생들의 적극적 대응 행위이기도 하였다.

기생들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를 살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임금이 승하하자 조선 민중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덕수궁 내전은 물론 대한문 밖에서는 수백 명이 엎드려 매일같이 슬프게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다. 이때 누구보다도 국부를 잃은 슬픔을 서럽게 토해냈던 것이 기생들이었다. 기생들은 고종의 환후가 깊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활동을 멈추고 근신을 하기도 했다. 경성기생들은 가무음곡에 대한 행동을 멈추고 근신하면서 요리점에 불려가도 조용히 놀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 23일에는 경성 기생 500여 명이 모두 상복을 입고 대한문 앞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통곡하며 설움과 슬픔을 토해 내었다. 이들은 곡을 하고 난 다음 스스로 가무음곡을 중지하고 요리점 출장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국부를 잃은 백성으로서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왕궁에 속했던 궁인(宮人)의 후예로서 예를 갖춘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행동들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1910년대 식민지 통제 하에서 기생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정체성과 민족적 명분을 찾고자 했던 행동이었다. 비록 식민지 백성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살고 있었지만, 조선의 백성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정서를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 II. 기생들의 3·1운동과 특징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와 경제적 예속관계에 강력한 저항으로 맞섰다. 1919년 전국에서 울려 퍼진 3·1운동의 함성은 농민, 노동자, 상인, 지식인, 청년학생, 기생들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세운동의 대열에 함께했다. 3·1운동은 거족적인 민족해방운동이었으며 동시에 보잘 것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민중들의 힘이 다시금 역사 속에서 하나로 뭉쳐 위력을 보였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부에 대한 예로서의 행동이 지속된 후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확산되자 기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운동의 대열에 제일 먼저 앞장섰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생들의 대표적인 3·1운동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기생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3·1운동

일시	장소	운동 상황	참여기생	형량
3. 19	경남 진주	1만여 군중의 만세운동 속에 남강에서 축석루까 지 행진하며 만세 부름	기생독립단	기생 6명 체포당 함
3. 29	경기 수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 수원자혜의원(화성행 궁 봉수당) 앞에서 만세 부름	수원예기조합 30여 명	김향화(징역 6개 월)
3. 31	경기 안성	안성조합 기생들의 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1천여 명이 시위	안성조합 기 생	
4. 1	황해 해주	해주군 종로에서 3천여 명의 만세운동 물결 속에 기생들이 합류하여 만세 부름	해주기생 10여 명	김월희(징역 6개 월) 문월선(징역 6개 월) 이벽도, 문향희, 해중월(징역 4개 월)
4. 2	경남 통영	통영면 부도정 시장의 수 천 군중의 만세 운동의 선봉에서 만세 부름	기생단 7명	정막래, 이소선(징 역 6개월)

기생들이 벌인 3·1운동을 각 지역별로 발생한 만세운동의 양상 속에서 파악해 보면, 먼저 경상남도 진주기생들의 만세운동이 3월 19일 시작되었다. 경상남도 진주군의 만세운동은 3월 18일 진주읍 장날 시작되었다. 사전에 준비되었던 만세운동으로서 오후 1시경 이영규가 비봉산 위에서 나팔을 불자 모여 있던 군중들이 일제히 봉기하였다. 오후 4시경 만세운동의 대열이 경상도청 앞에 이르렀을 때 시위군중들은 약 3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대규모의 만세운동으로서 일본군 헌병과 경찰은 저녁 무렵 약 300명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멈추지 않고 야간에도 지속되었다. 시위 군중들은 각각 나누어져 요소 요소에서 봉화를 올렸으며, 오후 7시에는 ‘노동독립단’의 군중 대열이, 2시간 뒤에는 ‘걸인독립단’이 나타나 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날 3월 19일에는 만세운동의 여파로 진주읍내 상점들이 철시투쟁에 들어갔다. 오전 11시 읍내에서 다시 약 7,000여 명의 군중이 봉기하여 악대를 선두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진주 기생들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군중대열과 함께 축석루를 향했다.

진주 기생들은 영업 터전이었던 상점들의 상인들이 적극적인 철시투쟁을 진행하는 것과 때를 같이했다. 진주의 기생들은 임진왜란 당시 의기(義妓) 논개(論介)의 뜻을 이어 받아 힘찬 만세운동을 벌였다. 오후 3시경 1만여 군중이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때, 일제의 표현을 빌자면 ‘기생독립단(妓生獨立團)’의 일대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남강 변두리를 둘러 축석루(矗石樓)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기생독립단은 “우리가 죽어도 나라가 독립이 되면 한이 없다”고 외치며 저항하다 기생 6명이 일제경찰에 검거되었다. 진주 기생들의 3·1운동으로 많은 시위 군중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생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으며, 기생 6명이 체포된 뒤에도 그 영향은 지속되어 진주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의 기운이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군에서 벌어진 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수원지역이 폭발적인 3·1운동의 현장이었고, 그로 인한 일제의 보복적 만행이 일어났던 적극적 항쟁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원기생들의 3·1운동에 참여했던 주동인물 김향화를 비롯하여 30여 명의 기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미인보감』의 자료가 있어 좀 더 자세하게 수원기생들의 면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수원군 수원면의 3·1운동은 수원기생들의 3·1운동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청년학생들과 시장 상인들, 노동자들의 만세운동은 기생들의 만세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활동 무대는 남수리와 북수리 일대로서 화성(華城) 성내(城內)였고, 기생조합이 남수리에 있으면서 북수리 성내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

었다.

수원면의 집단적이면서도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장날 장터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3월 29일에 수원기생 약 30여 명이 건강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자혜의원(慈惠醫院)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수원기생들의 만세가 있던 직후 야간에는 상인과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고 일본인 상점에 투석하여 창유리를 파괴하는 등 시위의 양상은 격렬해졌다.

3월 29일 벌어진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 주모자는 수원예기조합의 김향화였다. 김향화는 당시 나이 스물셋으로 수원예기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던 일등 기생이었다. 김향화는 기생들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기생들을 이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뜰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내쫓기어 경찰서 앞으로 나와서 동료 기생들을 선동하며 만세운동을 이어갔고 이에 경찰에게 제지를 당한 뒤 바로 체포되었다. 김향화는 체포된 뒤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김향화는 보안법위반으로 8개월의 구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언도 받았다. 이 재판에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수원기생 김향화의 의로움을 지켜보았다. 김향화는 경성에서 나고 자라서 수원기생이 된 후 수원예기조합의 꽃이 되었다. 가름한 얼굴에 주근깨가 있으나, 목청은 탁 트여서 애절하면서도 구슬프게 노래를 잘하며 순하고 귀여운 기생이었다. 그 순하고 귀여운 기생이 다른 기생 30여 명과 함께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을 염원하며 만세를 부른 것이었다.

안성군 기생들의 3·1운동은 3월 31일 벌어졌다. 안성조합의 기생 일동이 오후 4시경 만세를 부르며 운동을 시작하자 안성 각처에서 일시에 소통하여 군중 천여 명의 연합시위가 일어나고 군청과 면사무소, 경찰서에 몰려가 시위하였으며, 산상시위도 전개하다가 6시쯤 해산하였는데, 다시 오후 7시 30분쯤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횃불을 들고 3천여 명이 시위하자 면장 민영선이 보통학교에 군중들을 모아놓고 회유하여 해산시켰다. 이때의 안성조합 기생들은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朝鮮研究會, 1918년 7월)에 보이는

송계화(宋桂花, 당시 26세), 고비연(高飛鸞, 당시 20세), 변매화(卞梅花, 당시 20세), 이봉선(李鳳仙, 당시 19세), 강련화(姜蓮花, 당시 19세)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황해도 해주군의 기생 만세운동은 4월 1일 일어났다. 4월 1일 오후 2시경 기생들이 시내 종로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남문 밖 훈련장에서 3,000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만세를 불렀다. 4월 1일 해주 읍내의 기생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종로로 나오며 대열을 지어 만세를 불렀다. 기생들의 시위대열은 그대로 행진을 계속하여 남문 밖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사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열에 참가하였다. 기생들의 대열은 다시 동문으로 들어갔고 시위 군중이 늘어나 3천여 명이나 되었다. 종로 큰 거리로 들어선 기생들은 일시 행진을 중지하고 독립 연설을 하며, 어떤 기생은 준비하였던 격려문을 들고 나와서 큰 소리로 읽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헌병, 경찰들의 탄압으로 기생들은 쓰러지고 붙들렸다. 기생들 중 해중월, 벽도, 월희, 향희, 월선, 화용, 금희, 채수 등이 검거되어 김월희(金月姬), 문월선(文月仙)이 징역 6개월, 이벽도(李碧桃), 문향희(文香姬), 해중월(海中月)이 징역 4개월의 언도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주 기생들의 만세운동도 사전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 해주 기생들은 만세운동의 물결을 접하고 독립선언서를 직접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스스로 글을 지었다. 그리고 5천여 장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대나무 깃대에 꽂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해주 기생들은 옥양목 치마 저고리를 입고 흰 머리띠로 치마를 졸라 맨 다음 머리에는 태극 수건을 쓰고 오전 10시 ‘대한독립만세’를 큰 소리로 외치며 군중들의 앞에 섰다. 해주 기생들의 만세를 주동했던 김월희와 문월선의 경우는 취조 과정에서 만세운동 전에 해주 도립 자혜병원 간호부 김온순을 만나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50원씩 헌금을 한 일도 발각되었다.

경상남도 통영 기생들의 만세운동은 통영지역의 만세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인 4월 2일 일어났다. 기생 정막래(丁莫來, 21세)와 이소선(李小先, 小仙, 20세)이 사전 계획을 세워 1919년 4월 2일 오전 10시경 기생조합의 다른 5

명의 기생과 함께 사전에 기생단(妓生團)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막래는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팔아서 상복과 짚신을 구입하고 다른 기생들에게 나누어준 뒤 상복 차림으로 기생조합소를 출발하여 4월 2일 오후 3시경 통영면 부도정(敷島町) 시장에서 만세운동의 선두에 서서 수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정막래와 이소선은 바로 검거되어 군중을 선동한 죄로 보안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언도 받았다. 정막래와 이소선이 미리 준비한 상복 차림으로 만세를 부른 것은 기생들이 고종 임금에 승하했을 때 국부를 잃은 슬픔을 표현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것은 관기의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는 것이었고, 전통적으로 예능의 전수자로서 지니고 있던 민족적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생들이 상복차림으로 만세를 부르며 시위군중의 앞에선 것은 그 만큼 자신들도 민족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기생제도가 존재했었다. 기생(妓生)은 조선사회의 신분제 틀 안에서 천민이었다. 이들은 궁궐과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로서 양반 지배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전통적인 기생들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학문도 겸비한 다재다능한 존재였다. 하지만 식민지배는 기생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체제에 속박되어 일제의 의도적인 공창화 과정에 편입되어갔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임금이 돌아가시자 조선의 백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덕수궁 내전은 물론 대한문 밖에서는 수백 명이 엎드려 매일같이 슬프게 통곡하였다. 이때 누구보다도 국부를 잃은 슬픔을 서럽게 토해낸 이들이 기생들이었다. 뒤이어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와 경제적 예속 관계에 저항하며 3·1운동을 일으켰다. 3·1운동은 농민, 노동자, 상인, 지식인, 청년학생, 기생들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3·1운동은 거족적인 민족해방운동이었으며 동시에 보잘 것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민중들의 힘이 다시금 역사 속에서 하나로 뭉쳐 위력을 보였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사건 속에 민중의 일원이었던 천한 기생들도 생존권

의 바탕위에 민족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기생들의 3·1운동은 단순한 즉자적인 의기의 행동이 아니었다. 일제의 식민 통제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섰을 때, 기생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비록 천한 신분을 면하지 못하고 외부의 따가운 시선 속에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식민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권 투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기생들은 나름대로 궁중 관기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조하고자 하였고, 국부를 잃어버린 슬픔을 곡성으로 표출하며 전통을 이어간다는 민족적 명분 또한 내세우고자 했다. 이러한 기생들의 집단적 대응과 성격은 기생들이 식민사회에서 받고 있었던 사회적 인식과 상품화 과정 속에서의 적극적인 생존권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삼일운동과 평택 5강

## 3.1운동은 과연 비폭력운동이었나

성주현(숭실대학교 교수)



3.1운동 봉기도



### 3.1운동은 과연 비폭력운동이었나

- 강서군·맹산군·수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성주현 송실대학교 교수

#### 차 례

- I. 머리말
- II. 강서·맹산·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의 전개
- III. 공세적 만세시위에 대한 일제의 대응과 탄압
- IV. 공세적 만세시위의 특징-폭력적 만세시위로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3.1운동의 ‘역사적 평가’ 내지 ‘의의’에 대해선 대부분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1운동을 오랫동안 연구한 김진봉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3.1운동은 비폭력운동이었다. 독립만세운동이 점차 결렬한 양상을 띠게 되자 일제의 무력 탄압은 야만적 행위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은 농기구·몽둥이·돌맹이를 가지고 일본 관헌을 대항한 것은 사실이었다.<sup>1)</sup>

1) 김진봉,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223쪽.

이에 의하면 3.1운동은 비폭력운동이었으며, 격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무력적 탄압,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만세시위 과정에서 농기구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로 일본 측에서 8명이 타살되었고 158명이 부상당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이 파괴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3.1운동은 ‘폭력 반, 비폭력 반의 운동’이라는 주장을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sup>2)</sup>

일반적으로 3.1운동을 비폭력 평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평화주의와 공약삼장의 ‘질서 존중’ 등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일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도 “결단코 난폭적 행동라든지 파괴적 행동을 勿行”<sup>3)</sup>할 것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화적 만세시위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3.1운동 당시 만세시위는 비폭력 평화적 만세시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세적 만세시위’<sup>4)</sup>를 전개한 곳도 적지 않았다.

---

2) 김진봉, 앞의 책, 224쪽.

3) 『조선독립신문』 제1호, 1929년 3월 1일자.

4) 일반적으로 3.1운동의 만세시위 양상을 크게 비폭력 또는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세시위의 양상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적 비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또는 거리, 산상에서 한 만세시위를 하고 해산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했더라도 헌병이나 군대가 동원된 만세시위, 헌병이나 군인이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세시위를 해산한 경우, 헌병이나 군대가 동원 진압하더라도 투석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일제 식민기관 즉 군청, 면사무소, 우체국 등을 습격 내지 공격하거나 또는 일본인 상가,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일제 식민통치기관 중 가장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헌병주재소 등을 습격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만세시위를 단순히 비폭력, 폭력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만세시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공세적 시위’라는 분류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제식민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 만세시위의 경우 그것이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세적 시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세적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공세적의 사전적 의미는 관형사의 의미에서는 ‘공격하는 태도와 시세를 띤’이라고 하고 있고, 명사의 의미로는 ‘공격하는 태도와 시세를 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문으로는 “저렇게 공세적 자세로 일관하니 도대체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또 “상대 쪽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해.” 등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세적’이라는 용어이다. 즉 투·공세적 투자, 공세적 협상, 공세적 지원, 공세적 기동 작전, 공세적 활동 등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초기에는 비폭력 평화적 만세시위였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적 시위’의 경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측 자료에서도 보이고 있다.<sup>5)</sup> 그렇지만 평안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는 3.1운동 초기부터 공세적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이 적지 않았다.<sup>6)</sup> 이들 지역의 만세시위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전개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의 만세시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을 기해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등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강서와 맹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3월 초순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만세시위를 전개한 초기부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강서군은 3월 3일과 4일 양일간 만세시위에서 헌병분대장과 보조원을 살해한 바 있으며, 일본 군경의 무차별 사격으로 10명의 사망과 6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맹산군은 3월 6, 9, 10일의 만세시위에서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으며 헌병의 사격으로 54명이 순국하고 13명이 부상당하였다. 수안군 역시 3월 3일 만세시위에서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고, 헌병의 총격으로 9명의 사망과 18명의 중상이 있었다. 이처럼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의 만세시위는 어느 지역보다 3월 초순부터 공세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에서처럼 그 쓰임새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만세시위 양상에서도 ‘공세적 만세시위’는 반드시 폭력성을 내포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폭력적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나 저항하였을 경우 활용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의 과정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의 여러 가지 양상을 ‘비폭력’과 ‘폭력적’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5) 박찬승 외 역주,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 민속원, 2018, 296쪽.  
“소요 발생 초기에는 두세 차례 폭행을 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온화하고 소극적인 수단을 취하여 만세를 제창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그 성격이 악화되어 점차 폭동의 색채를 띠었다.”
- 6) 『시정25년사』에 의하면 “각도 중에서 소요가 격심했던 곳은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경상남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성천군이었으며, 이외에도 안성군의 양성과 원곡, 수원군의 송산과 화수리 등이 있다.
- 7) 『독립운동사』에 의하면 강서군, 맹산군, 수안군의 3.1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sup>8)</sup> 본고에서는 평안도의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황해도의 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강서·맹산·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의 전개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내세웠지만,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은 초기부터 적극적 공세를 통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 지역의 만세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서군의 만세시위는 살펴보자. 강서군의 만세시위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 3월 초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강서군 3·1운동의 만세시위 현황

일자	장소	만세시위 내용	일본 측 피해	시위대 피해
3월 2일	증산	3백여 명 만세시위, 주모자 체포		
3월 3일	강서	4천여 명 만세시위		
3월 4일	반석사천시장	헌병분견소 습격,	분견소장 및 헌병보조원 등 4명 살해	사망 9명, 부상자 4명
3월 6일	강서	1천여 명 만세시위		

시(부)·군별	운동 집 회 회 수	동원 인원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피검자 수
강서(江西)	강서 3 합중 9	5,000 13,760	58 3	120 27	29 255
맹산(孟山)	5	1,500	253	250	-
수안군	11	3,500	15	32	80

8)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맹산군과 강서군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수안군은 조규태, 「황해도 수안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승실사학』 23, 승실사학회, 2009가 있다. 다만 서북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로 이운상, 「평안도 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김진봉, 「관서지역의 3·1운동」,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이용철, 「평안북도 정주지역의 3·1운동」, 『역사와 담론』 86, 2018.4 등이 있다.

	함종	1천여 명 만세시위, 헌병 발포		사망 1명, 중상 1명
3월 9일	강서	주모자 검거에 대응하여 항의		
3월 10일	증산 강서	수천 명이 만세시위를 하고 추 도회 개최		

〈표 1〉에 의하면, 강서군에서는 7,8차례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중 공세적 만세시위는 3월 4일 사천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로 헌병분견소장과 헌병보조원 등 4명이 살해되었다. 이날 만세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천헌병주재소는 삼월 사일에 폭민이 음습하여 헌병주재소장 좌등 실오랑(佐藤實五郎) 상등명과 보조원 세 명이 힘을 다하여 이것을 물리치기에 노력하였으나, 탄환은 다 써버리고 종과가 부족하여 마침내 소장 이하 네 명은 장렬히 죽었더라. 이 급보를 접하고 평양 헌병분대장 이하가 현지에 급행하였는데, 폭민 중에도 죽은 자가 오십 이명이요, 부상한 자의 수호는 불명하더라.<sup>9)</sup>

3월 4일 수천 군중이 헌병분견소를 포위하고 만세를 부르자 헌병분견소장 佐藤實五郎은 보조원 3명과 총을 난사하여 현장에서 사살된 사람이 50명이고 부상자는 백여 명이었는데, 이때 탄환이 떨어지자 뒤쪽으로 도망함을 본 군중은 이를 추적하여 소장과 보조원 3인을 타살하였다.<sup>10)</sup>

주재소는 폭민의 맹렬한 습격을 받아 탄약으로 저항하였으나 마침내 소원(상등병 1명, 보조원 3명) 전부 살해됨<sup>11)</sup>

사천헌병주재소에 시위대가 내습하였으며 소장 상등병 左藤實五郎 외 보조원 3명이 극력 격퇴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총기를 사용하였지만 종과부적으로 마침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침. 평양 헌병분대장 등 10여 명이 현지로 파견하였으며 시위대 다수 사상자 발생함<sup>12)</sup>

9) 『매일신보』 1919년 3월 8일자.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3월 4일 반석면 사천의 만세시위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으며, 사토 지쓰고로(左藤實五郎) 상등병 분견소장과 보조원 3명이 총격을 하면서 이를 격퇴시키고자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살해당하였다. 이는 3.1운동 전개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본 헌병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날의 공세적인 만세시위의 주도인물은 조진탁이었다. 조진탁의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피고 曹振鐸은 宋賢根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천의 군중을 지휘하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沙川시장으로 몰려가자 그곳 헌병주재소 헌병 상등병 사토 지쓰고로(左藤實五郎)는 헌병보조원 朴堯燮 등과 함께 그 부근 거리에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해산을 명하였으나 듣지 않자 발포하니, 이에 군중들은 크게 격앙되었는데 車廷信이란 자는 군중 속으로부터 뛰어나와 헌병 상등병의 총기를 탈취하였고, 피고 조진탁은 崔能賢, 송현근 등과 함께 그 상등병을 살해하려고 돌맹이와 곤봉으로 구타하여 기절시켰고, 그 상등병이 소생하여 사천 헌병주재소 부근 金宋律의 집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고 조진탁 등은 다시 그를 발로 차고 곤봉으로 머리 등을 구타하여 김송률 집 앞에서 살해하였다.<sup>13)</sup>

이른바 모락장 만세시위로 알려진 사천시장 만세시위는 조진탁, 송현근, 최능현 등이 수천 명의 만세시위대를 이끌고 사천시장으로 몰려가면서 시작되었다. 시위대는 근처에 있는 헌병분견소로 향하자 일본인 상등병 사토와 보조원 박요섭 등이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총격을 가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는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다. 차정신이 사토의 총을 빼앗자 조진탁과 최능현 송현근 등이 돌맹이와 곤봉으로 사토를 구타하였다. 사토는

10) 이병현,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출판국, 1959, 978쪽.

11) 강덕상, 『3.1운동』 (1), 미즈즈書房, 1967, 94쪽.

12) 김정명, 『조선독립운동(1)』, 원서방, 1967, 325쪽.

13) 「조진탁 판결문」.

김송률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의 집 앞에서 살해되었다. 이외에도 이날 시위대의 헌병분견소 습격으로 보조원 박요섭, 강병일, 김성규 등도 함께 살해되었다.<sup>14)</sup> 그리고 시위대 측에서는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sup>15)</sup> 이처럼 사천시장 만세시위는 초기에는 평화적으로 만세시위를 불렀지만, 일제 측의 위협과 총격으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으며, 결국 유혈투쟁의 공세적 만세시위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독립운동사략』에는 ‘血戰’이라고 하였다.<sup>16)</sup>

다음으로 맹산군의 3.1운동을 살펴보자. 맹산군의 3.1운동은 3월 6일과 10일 두 차례 전개되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맹산군 3.1운동의 만세시위 현황

일자	장소	만세시위 내용	일본 측 피해	시위대 피해
3월 6일	맹산	30여 명 독립선언서 배포하고 만세시위, 주모자 체포		
3월 10일	맹산	시위 군중 1백여 명이 헌병분견소를 습격	상등병 1명 즉사, 보조원 1명 중상	50명 사상

<표 2>에 보듯이, 맹산군의 만세시위는 두 차례 일어났지만 3월 10일의 만세시위는 시위대 측과 일본 측 쌍방에서 피해가 있었던 유혈투쟁이었다. 이날 만세시위는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이날 만세시위의 기록

14) 박요섭, 강병일, 김성규에 대해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9년 3월 4일, 평안남도 강서군 사천시장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주재소장 사토 지쓰고로(佐藤實五郎) 상등병의 지휘 아래 출동하여 시위 군중에게 발포함으로써 13명을 사살하고 4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15) 『한국독립운동사략』에는 사천만세시위에서 윤관도(尹寬道), 현경묵(玄景默), 현인묵(玄仁默), 윤창도(尹昌道), 김면호(金冕浩), 차진규(車鎭奎), 현승철(玄承哲), 김종권(金鍾權), 김광옥(金光郁), 함병하(咸炳河), 김점현(金漸鉉) 등 11인이 탄환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16)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 『독립운동사 자료집』 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56쪽.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읍내 동편으로부터 동지 헌병분견소에 향하여 약 1백 명의 군중이 살같이 온다는 급보를 접하고 동소 정구 헌병 오장은 부하 7명을 거느리고 주모자를 체포하러 간즉, 일변 군중은 아무도 없는 짝을 보고 사무실에 돌입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헌병과 및 보조원은 방어코자 하여 이에 대 격투가 시작되었는데, 마침내 헌병 상등병 좌등연 씨는 다수의 군중과 용감히 격투하다가 죽고, 박 보조원 감독은 중상을 당하였고, 사무실 안은 수라장이 되었는데, 다른 헌병과 보조원 등은 마침 응원하여 온 보병과 한 가지 뒤뜰에서 협력하여 발포한 까닭에 격퇴하였는데, 소요자의 사상은 50명이라더라.<sup>17)</sup>

오후 2시 반 천도교인 약 1백 명이 헌병분견소를 습격하므로 발포하여 진압하였으며, 시위대 50여 명 사상자 발생, 상등병 1명 즉사, 보조원 1명 중상 당하였다.<sup>18)</sup>

3월 10일 읍내에서 수천 명이 집합하여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자, 헌병분견소에서 井口 헌병 조장이 보조원 7명을 인솔하고 달려와서 군중에게 총을 쏘아 수십 인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군중은 헌병분견소로 쫓아가서 사무실로 들어가려 할 때 보조원이 칼을 들고 쫓아 나와 군중을 향하여 함부로 내리침에 일대 격투가 벌어져 헌병 상등병 佐藤은 현장에서 제 칼에 죽고 보조원 한 명은 중상을 당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날 군중 측은 사상자 50명이였다.<sup>19)</sup>

위의 기록에 의하면, 천도교인 1백여 명이 헌병분견소로 몰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구치(井口) 헌병 오장이 보조원 7명을 인솔하여 주모자를 체포하려 나간 사이, 시위대는 헌병분견소에 이르렀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돌입하였다. 그러나 안에 남아 있던 헌병 사토(佐藤) 상등병과 보조원 1명과

17)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자.

18) 김정명, 앞의 책, 347쪽 및 349쪽, 351쪽

19) 이병헌, 앞의 책, 980쪽.

격투가 벌어졌다. 사토 상등병은 분견소 안에서 살해되었고, 보조원 1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분견소로 돌아온 이구치(井口) 오장과 보조원은 시위대에 총을 난사하여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맹산군의 만세시위에 대해 『한국독립운동사략』은 ‘천도교인의 참사’라고 하면서 ‘박내준, 방윤격 등 53명이 사살되었다’고 기록한 바 있다.<sup>20)</sup>

수안군의 만세시위는 3월 3일부터 18일까지 7차례 전개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수안군 3.1운동의 만세시위 현황

일자	장소	만세시위 내용	일본 측 피해	시위대 피해
3월 3일	수안	만세 시위대 헌병 분대 세 번 습격		9명 사망, 18명 부상
3월 5일	수안	1백여 명 만세시위하고 해산		
3월 6일	석달리	헌병분견소 앞에서 만세시위		10여 명 피검
3월 9일	율리	1백여 명 만세시위하고 해산		11명 피검
3월 9일	능리	만세시위		
3월 10일	능리	형세불안, 만세시위		
3월 18일	은율리	학생 50여 명 만세시위하고 해산		교사 피검

수안군의 만세시위는 <표 3>과 같이 7차례 있었지만, 공세적 만세시위는 3월 3일에 있었다. 이날의 만세시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20) 김병조, 앞의 책; 『독립운동사』 6, ---쪽.

만세시위가 세 번에 걸쳐 헌병분대 습격하였으며, 헌병은 병기를 사용하여 대응하였다. 시위대가 두 번째 습격 때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였으며, 세 번째 습격 때는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였다.<sup>21)</sup>

삼월 삼일 아침에 약 이백 명의 천도교도가 수안헌병대를 음습하였으므로 설유하여 해산케 하였으나 오전 열시쯤부터 오후 일곱 시까지 세 번이나 천도교도의 일단은 함성을 지르면서 분대 안에 쇄도하여 분대와 군청을 내어놓으라 하여 위협이 급박하여 도저히 진압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총기를 사용하여 폭민 아홉 명을 죽이고 십팔 명의 중상자를 내어 헤쳐 보냈더라.<sup>22)</sup>

3월 3일 오전 약 3백여 명의 천도교인이 헌병대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였는데, 헌병이 해산을 강요하였으나, 당일 오후 7시까지 천도교인은 우리 조선이 독립되었으니 군청과 헌병대를 철거하라고 하다가 헌병 총탄에 수십 인의 부상자와 3인의 피살자를 내고 백여 인이 검거되었다.<sup>23)</sup>

3월 3일의 공세적 만세시위는 세 차례에 걸쳐 헌병분견소를 세 차례 습격하였고, 일제의 폭력적 대응으로 시위대에서 9명이 사망하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당시의 만세시위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일 천도교구실에서 만세시위를 모의를 한 후, 다음날인 3월 3일 새벽 6시 무렵 130여 명이 천도교구실로 집결하였다. 선두에는 이영철, 중앙에는 한청일, 그리고 홍석정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인솔하여 금융조합 앞에 이르렀다. 이영철은 “우리는 오늘로써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 자유민이 되고 조선독립의 목적을 이룰 것인 즉, 일동 독립만세를 부르고 수안헌병대로 하여금 퇴거시켜야겠다”라고 연설을 한 후 시위대를 이끌고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영철과 홍석정은 헌병분대장 중위 노로 교(野呂匡)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다.

---

21) 김정명, 앞의 책, 317쪽 및 321쪽.

22) 『매일신보』 1919년 3월 7일자.

23) 이병헌, 앞의 책, 964쪽.

우리는 이미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으니, 속히 이곳을 우리에게 양도할 것. 만일 이에 불응하면 지방으로부터 계속 내습할 천도교도가 늘어나 끝까지 이의 관철을 요구할 것<sup>24)</sup>

「안봉하 등 판결문」. 이와 같은 협박을 하였지만 시위대는 헌병분대장의 어려 차례 해산 권유함에 따라 대표자 두 명만 남기고 해산하였다. 바로 제1차 습격이었다. 천도교구실로 돌아온 시위대는 홍석정의 통지를 받고 오전 11시경 1백여 명이 다시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만세를 외치며 퇴거를 다시 요구하였다. 격렬하게 시위하던 군중은 헌병의 발포로 물러났다. 제2차 습격이었다. 이때 헌병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잠시 진정한 시위군중은 다시 한청일과 홍석정의 지휘로 160여 명이 또 다시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입구에 세워놓은 통행차단 시설을 돌파하고 구내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분견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죽여라’고 외치며 분대원을 협박하였다. 헌병들이 총격으로 저지함에 따라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세 번째 습격이었다. 이날 만세시위에서 헌병분견소를 세 번이나 습격한 것은 유일할 정도로 적극적 공세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수안사건’이라고 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상으로 강서군,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를 살펴보았다. 이들 지역의 공세적 만세시위의 특징은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의 헌병경찰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 Ⅲ. 공세적 만세시위에 대한 일제의 대응과 탄압

일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1919년 3월 1일 경성을 포함한 평양, 진남포, 선천, 의주, 원산 등지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만세시위가 전개

24) 「안봉하 등 판결문」.

되자 무단통치의 연장선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였다. 3.1운동 이전의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제로서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식민통치의 추진력으로 삼았다. 헌병경찰 조직은 중앙의 경무총감부, 지방의 경무부를 정점으로 그 아래 헌병분대, 헌병분견소, 헌병파출소,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등 방대한 조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무단통치기의 식민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발발하자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3.1운동 당시 총독인 하세가와(長谷川)는 3.1운동이 일어나자 곧 바로 유고를 발표하였는데, 이 유고에는 “輕舉妄動 虛說浮言을 捏造하야 人心을 搖亂케 함과 如흔 言動을 敢行하는 者가 有함에는 本 總督은 職權으로써 嚴重處分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豪無假借’ 즉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고 엄포를 하였다.<sup>25)</sup> 뿐만 아니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고우츠(郷津友彌)는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만세시위에 참가한 자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是等 騷擾의 徒輩는 法の 許하는 限度에서 幾何까지던지 嚴罰에 處하는 것이 至當한 즉 裁判所는 寸毫도 假借치 않고 酷嚴히 處分할 心算이라. 目下 逮捕된 者만 하여도 非常한 數에 上하였고, 又 續續 檢舉될 事로 思하는 故로 監獄은 既히 幾百名이던지 收容할 수 있도록 準備가 整了한 바, 無論 取調되는 者는 收監할 터이라.<sup>26)</sup>

즉 만세시위에 대해 ‘嚴罰에 處’할 것과 ‘酷嚴한 處分’을 할 것이며 시위 참가자 모두를 감옥에 수감할 것이라고 하여, 무단통치의 탄압을 그대로 유

25) 『매일신보』 1919년 3월 2일자. 하세가와 총독의 諭告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大勳位 李太王 國葬의 儀가 將次 再明 三日로써 舉行되려 하니, 庶民은 宜當 勤慎 하야써 哀悼의 至情을 表하 것시오. 苟히 喧噪에 巨함과 如흔 行動은 秋毫도 此가 無하도록 用意치 안이치 못하리라. 然而 此 聖儀의 行하려함에 當하야 無稽의 流言蜚語를 放하며 徒然히 人心을 蠱惑케 하고저 하고, 時又 喧擾에 巨하는 徒輩가 有함은 實로 遺憾에 不堪이라. 庶民은 宜當 相度相誠하야써 敬弔의 誠意를 致하기에 萬一의 遺漏가 無하 事를 期하리라. 若夫 輕舉妄動 虛說浮言을 捏造하야 人心을 搖亂케 함과 如흔 言動을 敢行하는 者가 有함에는 本 總督은 職權으로써 嚴重處分할 것시오. 毫無假借이러라.”

26) 『매일신보』 1919년 3월 7일자.

지하켰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제는 헌병경찰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동원하여 강력하게 만세시위를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조선헌병대사령관에게 보낸 통첩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회 조선 각지에서 봉기한 선인의 폭동은 그 범위가 數道에 걸쳐 소요지가 20여 개에 미쳐 그 거동에 경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발발 후에 있어서의 제 정보에 徵驗하건대 暴民 등은 脉絡을 保持하고 특히 그 이면에는 이의 선동 지도에 임한 자가 있어 계획적으로 誘起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 이를 미연에 防遏하여 미리 화근을 芟除하는 조처를 강구하였더라면 금회와 같은 소요를 크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차제 특히 부하를 독려하여 불상사의 진정을 빨리하게 함은 물론 그 폭거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精探하여 장래 이들 폭거에 대해 미연에 이를 防遏하는 수단에 있어 遺算이 없게 할 것을 기하기 바람.<sup>27)</sup>

이 통첩에 의하면, 우선 만세시위를 경시하지 못할 것이며, 미연에 방알하여 화근을 芟除하는 조처를 했더라면 3.1운동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하를 독려하여 불상사 즉 만세시위를 빨리 진압함을 물론이고 망알하는 수단에 있어 遺算이 없게 할 것이었다. 헌병대사령관이 부하를 독려하여 만세시위를 속히 진압하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헌병경찰을 동원 강력하게 진압하라고 하는 메시지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만세시위를 강력하게 진압을 하되 외국인이 주목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sup>28)</sup> 이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유념해서 잘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1운동에 대한 탄압은 초기부터 헌병경찰과 군을 동원되었다.

데라우치 총독도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의 사용을 일본정부에 진정하였다. 즉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를 예방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북한 및 남

27)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2)』, 국회도서관, 1977, 1-2쪽.

28)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2)』, 2쪽.

선지방에 만연할 징조가 있어 이제야 군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소요지역 외에도 미치도록 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함이 필요한 정황에 달”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조선군사령관에게 이를 시달한 바 있다.<sup>29)</sup>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의 만세시위는 헌병분견소와 면사무소 등 관공서를 습격하고 관공리들이 살해되는 등 공세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제도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3월 1일부터 조선 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이 개시되어 이후 거의 전도에 파급하여 11일까지 지극한 운동 또는 소요의 현저한 장소는 경성, 기타 수 수십 개소에 미치고 시위운동 또는 소요에 참가한 인원은 많은 것은 수천 명에 달하고 헌병대 경찰서를 습격하여 심한 것은 수명의 헌병과 동 보조원을 살해하는 등의 거동으로 나왔으므로, 각지에 병력을 분견하여 헌병과 경찰관을 원조하여 폭민을 진압하고 또 속속 주모자를 체포하고 있으나 (후략)<sup>30)</sup>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서군, 맹산군, 수안군처럼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서 공세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여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헌병과 보조원이 살해당하자, 일제는 군 병력을 파견하여 강력하게 진압할 것을 조선군사령부에 시달하였다.

일제 측 자료에 의하면 강서군, 맹산군, 수안군의 만세시위에 대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해 <표 4>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표 4>강서군, 맹산군, 수안군의 만세시위와 병력 출동 상황

날짜	지역	소요인원	소요자의 행동	소요자의 특징	출동병력	상황
3월	수안	수	3회나 헌병대를	천도교도	보 병	피아에 사상이 있

29) 앞의 책, 22쪽.

30) 앞의 책 27쪽.

3일		불명	습격하다		20명	다.(死9, 傷18)
3월 4일	증산 (강서)	수불명	사천헌병대를 습격하여 상등병 1, 보조원 3을 살해하고 보조원 집을 방화하다.	폭도	장교 하 11명	폭도는 퇴각하다. 진정 중
3월 5일-7일	강서	수불명	평온한 형태를 띠다.	폭민	보병 11명	탄광노동자가 폭동에 가담할 것을 고려하여 부근의 병력을 집결 진정 중
3월 7일	율리 (수안)	다수	평양방면에서 침입한 조짐이 있었다.		헌병이 출동	
3월 7일	석달 (수안)	약 40명	주재소를 습격하다	천도교도		해산시키다
3월 8일	함중 (강서)	약 3백명	불온한 거동이 있었고 제지를 듣지 않다			실탄을 사용 해산시키다. 선인 사상 3
3월 9일	맹산	군중 약 백명	약 백 명의 폭민이 헌병분견소에 난입하여 폭행함	천도교도	덕천에 장교 하 10명	헌병 상등병 1명, 보조원 1명 부상, 선인 사상 51명, 폭민은 해산되었다.(9일) 헌병 보병이 협동하여 격퇴하였음. 헌병 사망 1, 보조원 1 부상, 폭민이 약 50명 사상하였음 (10일)

그리고 만세시위 중 군대가 진압에 출동하였다가 피해를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있는데, 맹산군의 경우 <표 5>와 같다.

〈표 5〉 3.1운동 당시 맹산군에 파견된 군대의 피해

일시	부대명	진정예 종사한 인원	군대와 경찰관 현	조선인 사망	조선인 부상	군대 사망	군대 부상	비고
3월 10 일	보병 77	장교 이하 10	협력	54	13	1	1	헌병 상등병 사망, 보조원 부상

〈표 4〉와 〈표 5〉에 의하면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의 만세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군을 출동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헌병과 협력하여 시위대를 강력하게 탄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북지역의 중심인 평양에서 3월 1일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조선군사령부는 보병 1중대를 출동시켰다.<sup>31)</sup> 이어 평양과 인접한 강서에서 일어난 3월 2일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의 파견을 요청에 따라 장교를 포함하여 보병 11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강서군 반석면 사천에서 헌병 상등병 1명과 보조원 3명이 살해당하자 강서군의 파견부대에서 장교 등 11명을 급파하여 만세시위를 진압하였다. 함종지역에서 3월 8일 만세시위에는 헌병들이 해산을 요구하였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였다. 이에 진남포에서 파견된 장교 등 15명은 실탄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이 즉사, 1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강제적으로 진압하였다.

한편 강서군 반석면 사천시장 만세시위를 주도한 조진탁은 일제의 검거를 피하여 원산부 상리1동에 숨어 지내다가 1921년 3월 19일 피체되어<sup>32)</sup> 1922년 10월 17일 사형집행을 당하였다.<sup>33)</sup> 또한 사천시장 만세시위에 참여한 김준관 역시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1921년 1월 17일 검거되었다.<sup>34)</sup> 역시

31) 앞의 책, 1쪽.

32) 『동아일보』 1921년 3월 28일자.

33) 『동아일보』 1922년 10월 22일자. 조진탁은 3.1운동 직후 권석재판으로 사형선고를 언도받았다. 피체 이후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당하여 평양감옥에서 순국하였다.

34) 『매일신보』 1921년 2월 14일자. 신문 기사에 의하면 「헌병 살해 범인 체포」 라고 하여 ‘살인자’로 묘사하였다.

사천시장 만세시위에서 헌병보조원을 살해한 윤희도도 만세시위 이후 평양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면서 피신생활을 하였지만 1926년 4월 피검되었다.<sup>35)</sup> 이처럼 강서군 사천시장의 공세적 만세시위에 참가한 주모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한 것도 일제의 3.1운동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맹산군의 만세시위에 대해서도 일제는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3월 9일 만세시위대는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만세를 부르자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헌병분견소에서는 덕천으로 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즉시 장교를 포함한 11명이 출병하였고, 시위대가 헌병분견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헌병과 군의 발포를 하여 시위대 1백여 명 중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sup>36)</sup> 이 과정에서 상등병 1명이 즉사하고 보조원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일제는 어느 지역보다 강력하게 탄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맹산군 만세시위의 진압과정에 대해서 일제 측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 3월 10일 평안남도 맹산 소요 진압상황

1. 3월 6일경부터 평안남도 맹산군 맹산에서 소요가 일어나 일어났으므로 보병 제77연대장은 이노우에(井上) 중위 이하 10명을 맹산으로 파견하다. 해 부대는 3월 10일 오전 9시 20분 맹산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맹산에서는 동일 약 백 명의 폭민이 집합하여 오후 3시를 기하여 운동을 개시할 계획이므로 행동 개시에 앞서 헌병분견소장은 시장에 집합을 하면 부민 등 피등이 유인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모자를 검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오후 2시 井尻 헌병 오장 이하로 하여금 천도교도 약 백 명을 맹산 공립보통학교 문전에 집합케 하여 해산을 명하고 주모자 4명을 헌병분견소로 인치하려고 하였다

35) 『매일신보』 1927년 5월 26일자. 이 기사에 의하면 그동안 사천시장 만세시위에서 헌병의 총격으로 즉사한 것으로 알려진 윤창도와 윤관도는 즉사하지 않고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윤창도와 윤관도의 공훈록에 의하면 둘 다 즉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윤희도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언도받았으며(『매일신보』 1927년 6월 25일자), 복심법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1927년 10월 15일자)

36)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2)』, 23쪽.

니, 그들 일동은 끝까지 완강히 저항하여 헌병오장 이하 5명을 포위하고 주먹으로 구타라고 혹은 투석하는 등의 폭행을 연출하면서 분견소로 몰려와 창유리를 파괴하고 투석하며 유치시키려고 하는 주모자 5명을 탈취하려고 폭도 일동이 분견소 사무실 내로 闖入하다. 헌병 일동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나 다시 폭행을 감행하였으므로 이노우에(井上) 중위는 시기를 유예하여서는 안 될 것을 察知하고 하사 이하와 헌병을 지휘하여 뒤뜰에서 사무실에 있는 폭도에 대해 사격을 명하였다. 그런데 헌병 상등병 1명과 보조원 감독 1명이 부재임을 알고 일시 사격을 중지하였더니 사토(佐藤) 헌병 상등병이 전사하고 보조원 감독이 부상해 있으므로 이를 뒤뜰로 끌어내다. 그러나 폭도는 그래도 폭행을 행하므로 다시 사격을 행하여 이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사격시간은 3분이며 사격 정지 후는 보병이 분견소 내외의 경계를 임하고 헌병은 사체의 검사를 하다.

## 2. 我 사상자와 그 상황

진압 행위에 종사한 군대에는 사상자가 없다. 경찰관헌에 있어서는 헌병 상등병 1명이 즉사하고 보조원 감독 1명이 부상하였다. 사토 헌병 상등병의 전사와 보조원 감독의 부상 원인은 양명이 주모자를 유치장에 구속하려고 했을 즈음 폭도로부터 저항을 받고 사토 상등병이 이를 방위하려고 하여 격투 중 폭도의 손에 가지고 있던 돌에 前頭部를 구타당하여 그곳에 기절한 것을 보조원 감독이 이를 보고 동 상등병을 안아 일으키어 扶出하려고 할 때 다중의 폭도에게 압도되어 깔렸기 때문에 드디어 신체의 자유를 잃은 당시 시기는 유예할 수 없는 정도로 절박하였고 물론 헌병은 전원 실외로 나온 것으로 믿고 사격을 하였으므로 사토 상등병은 흉부에 관통 총상을 받고 보조원 감독은 齶部에 동 총상을 받게 되었다.

## 3. 병기의 손상과 소비탄약

병기의 손상은 없다.

38식 보병총 실탄 28발(보병)

동 10발(헌병)

16년식 권총 실탄 28발(헌병)

## 4. 폭도의 사상과 그 상황

폭도의 사상은 사무실 안과 그 앞에서 총탄에 명중하여 즉사한 자가 51명이며, 부상 후 도주하여 도중에서 사망한 자가 3명으로 死者의 총수는 54명이며, 부상자는 13명으로 부상자는 부상 후 도주하였다. 주모자인 4명은 모두 분견소 사무실 내에 즉사하였다.

## 5. 폭도 사상자에 대한 처치

폭도의 사체는 맹산면장에게 인도하여 동지 공동묘지로 부민으로 하여금 운반케 하여 감시자를 두고 유족의 신청에 의해 인도하였는데, 전부 유족으로부터 신청이 있었다. 부상자는 도주 후 소재가 불명한 자가 많다.<sup>37)</sup>

일제의 맹산군 만세시위 진압과정 보고에 의하면, 사토 헌병 상등병과 보조원의 살해는 만세시위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오판과 총격에 의해서 즉사한 것이다. 이는 시위대가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사무실로 진입한 것은 검거된 주모자를 구출해내려고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총격을 가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본군과 헌병은 총격은 3분 정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총격 실탄은 보병과 헌병 모두 66발이었다. 이 총격으로 만세시위에 참가한 시위대 중 사망자가 54명에 달하였으며, 부상자 13명으로 사상자가 67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진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살 즉 '체노사이드'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살된 사망자의 시신은 김상각 맹산면장에게 인도되었고, 유족들의 의해 수습되었다. 그럼에도 일제의 보고는 상당 부분 축소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일제는 시위대에 대한 정당방위로 부득이 총격을 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다.

한편 수안에서 3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헌병분대를 습격하자 두 차례 총격을 가하여 9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만세시위대가 해산하였지만 또 다시 내습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의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평양에 주둔한 77연대는 40여 명을 수배 하였다.<sup>38)</sup> 뿐만 아

37) 앞의 책, 243~244쪽.

38) 앞의 책, 6쪽.

니라 용산 조선군사령부에서는 보병 1중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에 앞서 조선군사령관은 국장에 참례한 보병 77연대의 중대 중 장교와 병사 20명 등 1소대를 수안으로 급파시켰다.<sup>39)</sup>

이처럼 평양 주둔 77연대에서 평양과 주변 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진압을 위해 각 지역 파병으로 2년병이 부족하자, 3월 6일 보병 78연대에서 장교를 포함하여 1백여 명을 평양으로 증원하였다.<sup>40)</sup> 뿐만 아니라 조선군사령관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에 제19사단장으로 하여금 보병 제39여단을 사용하여 현황에 응해 配備를 결정하였다”고 일본 육군대신에게 보고한 바 있다.<sup>41)</sup>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이 있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공세적으로 만세시위가 이어지자 군의 파견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 IV. 공세적 만세시위의 특징-폭력적 만세시위로

이상으로 평남의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황해도의 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 공세적 시위의 특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공세적 만세시위가 3월 1일부터 5월까지 이어진 여타 지역의 공세적 만세시위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수안군의 만세시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들 지역의 공세적 만세시위는 3월 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3.1운동 전개과정에서 초기에는 평화적 시위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살펴본 강서군과 맹산군, 수안군의 격렬하고 공세적 만세시위는 모두 3월 10일 이전에 전개되었다. 즉 강서군은 3월 4일,

---

39) 앞의 책, 7쪽 및 8쪽.

40) 앞의 책, 11쪽.

41) 앞의 책, 24쪽.

맹산군은 3월 10일, 수안군은 3월 3일에 각각 공세적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볼 때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3월 초기부터 공세적 시위가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이들 지역의 공세적 시위의 대상은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헌병을 살해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만큼 헌병경찰이 식민지배의 첩병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헌병경찰에 대한 실생활에서도 불만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기구 가운데 가장 악명을 떨친 것은 헌병경찰이었다.<sup>42)</sup> 헌병경찰제도는 3.1운동 이전 식민지배의 핵심으로, 헌병경찰은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주 임무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내면생활까지 간섭하였다. 더욱이 치안법규<sup>43)</sup>를 무기로 조선인을 일상적으로 억압하였다.<sup>44)</sup>

헌병경찰은 한말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1907년 발표된 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제강점 직후 식민탄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헌병경찰의 임무는 첩보수집과 의병의 토벌 이외에도 검사업무 대리, 범죄즉결 처분권 및 민사쟁송 조정권, 징세원조 등 광범위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일본어 보급, 위생검열, 부업장려까지 강제하여 조선인의 실생활을 통제하였다.<sup>45)</sup> 때문에 헌병은 식민지 조선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병보조원 역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협력자<sup>46)</sup>였다는 점에서도 적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42) 야마다 겐타로 저, 최혜주 역음,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 어문학사, 2011, 35쪽.

43) 조선인을 억압한 치안법규는 한말의 보안법과 신문지법을 비롯하여 범죄즉결령, 경찰범처벌규칙 등이 있다.

44) 송이량,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방식』, 세종출판사, 1999, 100~103쪽.

45) 헌병의 임무는 1. 첩보수집, 2. 폭도토벌, 3. 장교와 하사의 검사사무 대리, 4. 범죄의 즉결, 5. 민사소송의 조정, 6. 집달리 업무, 7. 국경 세관 업무, 8. 산림 감시, 9. 민적 사무, 10. 외국여권, 11. 우편 호위, 12. 여행자 보호, 13. 종두, 14. 屠獸 검사, 15. 수출우 검열, 16. 우량 관측, 17. 수위 측량, 18. 해적 밀어선 밀수입의 경계 취체, 즉 경비선에 관한 업무, 19. 害獸 驅除, 20. 묘지 취체, 21. 노동자 취체, 22. 재류 금지자 취체, 23. 일본어 보급, 24. 도로 개수, 25. 국고금 및 공금의 경호, 26. 식림농사 개량, 27. 부업 장려, 28. 법령 보급, 29. 납세 권고 등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46) 야마다 겐타로 저, 최혜주 역음, 앞의 책, 36-37쪽.

이는 여타 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강서군과 맹산군, 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의 첫 목표는 조선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헌병이 그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헌병분전소를 습격하고, 헌병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만세시위에 대한 탄압은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셋째는 이들 지역의 공세적 만세시위의 주도세력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공통점일 가지고 있다. 3.1운동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폭력적 만세운동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서군과 맹산군, 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이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이었다. 이는 일제의 종교정책과도 밀접하다고 보여 진다. 일제는 통감부시기의 종교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포교에 관한 법적 규정 즉 포교규칙을 제정하고 종교를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와 같은 정치색이 많은 종교는 철저히 탈정치화를 시켜 수양단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였으며, 정치색이 적은 천주교와 러시아정교, 기독교 역시 비정치적인 사회교화단체로 육성하고자 하였다.<sup>47)</sup>

또한 일제강점 이후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내세워 기독교를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을 전면으로 금지시키려고 하였으며 교원의 자격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sup>48)</sup> 심지어 “기독교적 교육의 종착역은 교육가들의 入獄”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적 교육과 의식이 민족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sup>49)</sup> 여기에 더하여 ‘105인 사건’으로 서북지역의 기독교를 탄압한 것도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기독교 탄압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배일의식을 고양시켰던 것이다.

47) 박승길, 「일제 무단통치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문학과지성사, 1992, 43쪽.

48) 高橋浜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430~431쪽.

49) 문형모, 「일제의 식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식민교육과 미션계 학교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대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55쪽.

그리고 천도교의 경우도 배일적 의식이 컸다. 천도교의 경전인 『용담유사』의 「안심가」에 의하면 ‘개 같은 왜적’이라고 하여 일본을 경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배일 의식이 여타 종교보다 강하였다. 더욱이 천도교를 유사종교라 하여 취체의 대상으로 삼아 탄압이 심하였다. 특히 일제강점 직후인 1911년 천도교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sup>50)</sup> 따라서 일제는 천도교를 취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였고, 종교행사에 헌병들을 임석시켜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교인들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때문에 천도교인 역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3.1운동 당시 천도교인은 식민지배 관공서를 대상으로 공세적 저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수안군 만세시위의 주도인물인 이영철이 “오늘부터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고 조선국의 독립 목적을 달할 터”<sup>51)</sup>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천도교인들은 3.1운동을 ‘실제적으로 독립’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던 것이다. 이에 앞서 수안군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이경섭은 “이제 조선은 독립국가가 되고 조선민족은 자주민이 되는 기운의 시기를 만났다. 민족자결은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다. 이 시기를 맞아 조선민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에 순응병진하여 일어나서 독립을 외쳐 민족적 요구가 치열함을 천하에 발표하여 목적달성을 향해 맥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2)</sup>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만세시위를 적극적 내지 공세적으로 전개하라고 하는 지시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종교정책은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로 하여금 배일 의식을 고양시켰으며, 3.1운동 당시 공세적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도별 폭력적 만세시위와 비폭력 만세시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표 7>과 같다.

50)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시정연표』, 1911, 77쪽.

51) 『동아일보』 1920년 7월 23일자.

52) 「안봉하 외 판결문」.

<표 6> 지역별 폭력과 비폭력 만세시위의 현황<sup>53)</sup>

지역별	폭력적 만세시위		비폭력 만세시위		합계	
	참가인원	횟수	참가인원	횟수	참가인원	횟수
경기	83,420	74	55,893	135	139,293	209
충북	19,600	19	3,450	8	23,050	27
충남	23,330	32	13,977	33	37,707	65
전북	1,880	3	1,240	7	3,040	10
전남	다수	1	3,548	16	3,548	17
경북	14,460	20	2,545	27	19,015	47
경남	49,820	31	31,000	50	80,820	81
황해	19,761	30	23,297	72	43,058	102
평남	7,220	14	25,297	37	32,527	51
평북	55,810	32	12,800	24	68,670	56
강원	8,620	16	7,400	30	16,050	46
함남	6,100	10	11,400	26	17,510	36
함북	9,750	8	6,282	21	15,032	29
계	299,751	290	209,751	486	509,402	776

<표 6>에 의하면 지역별로 볼 때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평북, 강원, 함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폭력 만세시위보다 폭력적 만세시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세시위 횟수에서는 폭력적 만세시위가 비폭력 만세시위보다 적지만, 이는 그만큼 1천여 명 이상 많게는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횟수에서는 비폭력 만세시위가 많았지만, 이들 만세시위는 50명 내지 1백여 명의 소규모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3) 이 <표>는 안성3.1운동연구소, 『안성3.1독립운동』, 안성문화원, 2012, 176쪽에서 인용하였다.

〈표 7〉 3.1운동의 지역별 시기별 사망 및 부상 추이<sup>54)</sup>

지역별	3.1~3.31		4.1~4.10		4.11~4.20		합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경기	23	71	21	86	36	20	81	177
충북	7	7	17	24	1	2	25	33
충남	17	20	37	39	-	-	54	59
전북	-	-	13	6	-	4	13	7
전남	-	-	-	-	-	3	-	3
경북	14	13	1	-	-	-	15	13
경남	24	43	11	52	4	4	39	97
황해	10	55	11	15	-	-	21	70
평남	52	136	-	-	-	-	52	136
평북	17	67	23	112	-	-	40	179
강원	8	13	34	12	-	-	42	25
함남	10	50	-	-	-	-	10	50
함북	4	26	2	-	-	-	6	26
계	186	501	170	346	41	33	398	875

〈표 7〉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1운동 초기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폭력적 공세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망자 및 부상자의 수치는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함 바와 같이 평남 맹산군에서는 3월 10일 만세시위에서 일제의 보고에 의하면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표 7〉에 의하면 평남은 사망자가 52명에 불과하다. 이는 일제가 3.1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조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축소 또는 왜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4월 15일 수원 ‘제암리 학살’에서도 보이고 있다. 4월 16일자 문건에서는 32명이었지만, 4월 19일자 문건에서는 2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축소 왜곡하였다고 할 수 있다.

54) 이 <표>는 안성3.1운동연구소, 『안성3.1독립운동』, 안성문화원, 2012, 177쪽에서 인용하였다. 그런데 <표>에서 합계 수치에 오류가 있음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를 바로 잡았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평남의 강서군과 맹산군, 그리고 황해도의 수안군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시위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들 지역의 만세시위는 평화적 비폭력적 시위보다는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헌병을 살해하는 공세적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3.1운동이 초기에는 평화적 만세시위였지만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격화되었다고 하지만, 이들 지역은 3.1운동 초기부터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서군은 3월 2일부터 10일까지 7,8차례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공세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한 것은 3월 4일 반석면 사천시장 일명 모락장에서 전개한 만세시위였다. 이날 만세시위에서 시위대는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상등병 사토와 보조원 3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시위 군중에서도 헌병의 총격으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날 시위를 주도한 조진택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였지만 1921년 3월 원산에서 피체되어 1922년 10월 17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맹산군은 3월 6일과 10일 두 차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지만 3월 10일 만세시위가 공세적이었다. 이날 만세시위 역시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고, 그 결과 헌병 1명이 즉사하고 보조원 1명이 중상 당하였다. 그리고 헌병과 군대의 연합으로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54명이 학살 당하였고, 1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수안군은 3월 3일부터 18일까지 7차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중 첫 만세시위인 3월 3일의 만세시위가 가장 공세적이었다. 이날 만세시위는 세 차례나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였으며, 진압과정에서 헌병의 발포로 9명의 시위군중이 사망하였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강서군과 맹산군, 수안군의 공세적 만세시위는 첫째 3월 초에 집중되었다는 점, 둘째, 헌병분견소와 헌병을 살해하였다는 점, 셋째 종교인이 주도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의 만세시위를 통해 3.1운동은 반드시 비폭력운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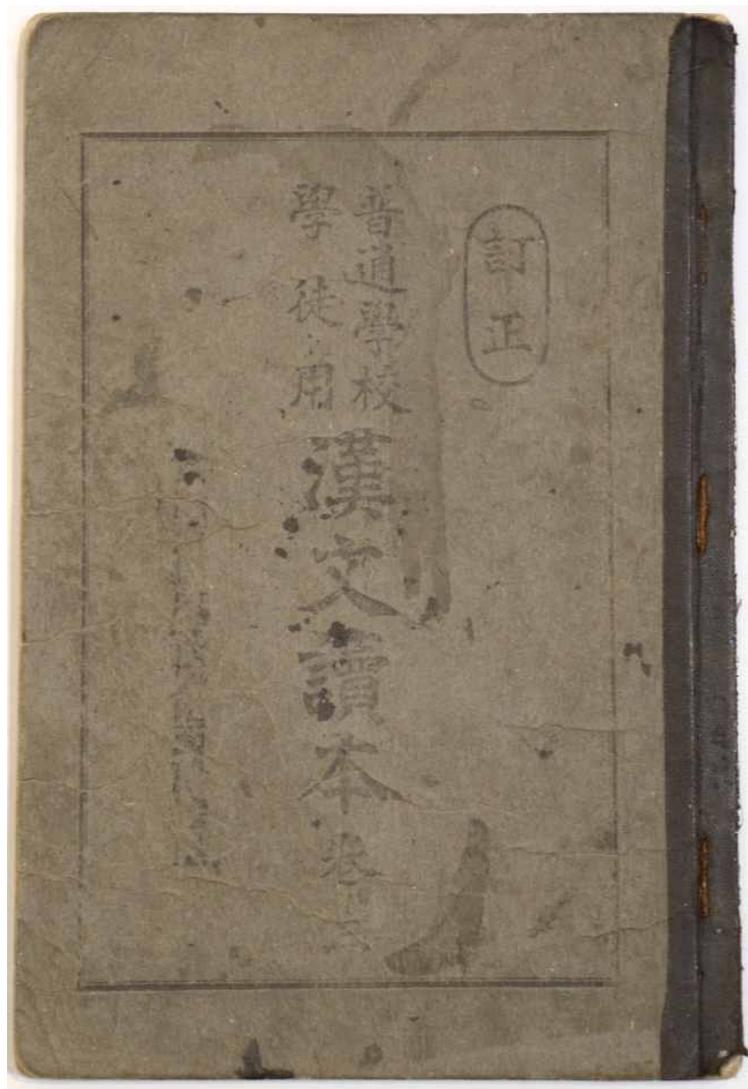
3.1운동은 평화적 비폭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평화적 비폭력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평화적 비폭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민족운동과 평택 1강

평택지역 민족운동 어떻게 전개되었나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평택공립보통학교(현 성동초) 학생이 사용한 한문독본



# 평택지역 민족운동 어떻게 전개되었나

김해규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 차 례

- I. 머리말
- II. 대한제국 시기의 민족운동
- III. 3.1운동과 민족운동의 확산
- IV. 1930년대 진보적 사회운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민족운동(民族運動)’은 19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저항했던 여러 가지 운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내의 민족운동은 동학농민전쟁과 을사늑약 후 전개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국권강탈과 1919년 3.1운동은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독립의지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이념과 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말의 민족운동은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위정척사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반제, 반봉건운동이며, 마지막은 개화운동이다. 위정척사운동은 보수적 양반유생층이 주도한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하지만 이들의 운동은 제국주의침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봉건적 지배질서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동학농민전쟁은 반제국주의를 표방했고 반봉건적 성격을 가졌던 민족운동이며, 개화운동은 조선의 근대화를 통해 자강(自強) 개혁으로 나가려던 측면에서 민족운동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1905년 을사늑약 전후의 민족운동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은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던 사회진화론적 시각의 실력양성 운동이며, 의병투쟁은 국권수호를 위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키고 1920년대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부문별 운동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다. 이후 민족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추구하는 민족주의계 중심의 운동과 제국주의 타도하고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계의 민족운동으로 분화되었다. 필자는 동학농민전쟁과 의병투쟁, 애국계몽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제국 시기의 민족운동과 평택지역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고, 3.1운동 이후 1920, 30년대 민족운동이 어떤 양태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한제국 시기의 민족운동

### 1. 동학농민전쟁

1894년 동학농민전쟁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민족운동이다. 평택지역은 동학이 창도된 지 20여 년이 지난 1880년대 전후에 전래되었다<sup>1)</sup>. 평택지역에서 첫 동학교도로 확인되는 인물은 현덕면 권관리 출신의 이민도다. 이민도는 1879년에 동학에 입도했다. 또 초기 동학포교의 중요한 인물로 활동한 김래현도 1884년경에 입교했으며, 그의 포교로 민공익, 민재명 부자, 한홍유, 한철성 부자, 김명수, 김화덕 부자가 입교했다.

평택지역 동학교도들은 수원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활동했다. 1992년

---

1)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과 평택」, 『평택학시민강좌 자료집-평택 근현대 읽기』, 평택문화원, 2014

이후 서병학, 서인주가 주도한 교조신원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도 참여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도 ‘기호대접주 안승관과 기호대접사 김래현 등이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원부를 점령한 뒤 남쪽의 동학군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바’라고 하여 평택출신의 동학교도들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려준다. 또 수원유수도 ‘양성소사(현 평택시 소사동)에 동학군 1만여 명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1894년 진위현령 보고에도 평택지역에 적지 않은 동학군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밖에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에는 평택지역 동학지도자로 김용희, 김형식을 지목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1880년 전후부터 동학을 받아들여 활발한 전교활동으로 교세가 확장되었으며, 동학농민전쟁에서는 수원부와 연합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 2. 항일의병투쟁

항일의병투쟁은 1895년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촉발된 을미의병, 1905년 을사조약으로 촉발된 을사의병,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확대된 정미의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을미의병은 보수적 유생층과 동학농민전쟁 잔존세력의 참여가 있었고 을사의병은 평민층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의 참여로 의병투쟁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평택지역에서도 항일의병투쟁이 활발했다. 대체로 경기남부지역의 의병부대와 연합하거나 합류하여 투쟁하는 양태였고 게릴라전술을 이용하여 군자금 모금과 철도와 같은 식민지 침략시설을 공격했다. 정미의병시기 정주원 의병과 합류하여 활약하였던 안춘경과 홍일초 등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안춘경은 대장장이 출신으로 정미의병 시기 정주원 부대의 선봉장과 부대장으로 활약했으며 서평택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군자금 모금을 했다. 결과 1909년 체포되어 7년형은 언도받고 2년여를 복역했으며 출옥 후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12년 형을 언도받았다. 홍일초도 화성과 용인, 양성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청북읍에 지휘소를 마련하고 활동했다<sup>2)</sup>.

### 3. 민중계몽과 근대교육운동

1905년 전후 사회진화론이 우리 사회를 풍미했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이었지만 우리민족은 근대화를 통한 실력양성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했다. 평택지역의 애국계몽운동은 근대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평택지역 근대교육운동은 을사늑약 후에 활발했다. 특히 1906년 반포한 고종의 ‘홍학조칙-사학설립조칙’도 교육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3)</sup>. 이에 따라 한남홍학회<sup>4)</sup>가 조직되고 진흥의숙(1906년), 동명의숙(1907년), 수성학교(1907년), 대한성공회 신명강습소((1906년)<sup>5)</sup>와 같은 많은 수의 근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학교는 진흥의숙이다. 진흥의숙은 전직관료 이범창과 참봉 이범철이 설립했다. 이들은 당시 헤민회사를 조직하여 빈민구제사업을 했고 한남홍학회를 조직하여 교육운동에 동참했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했다. 1907년 합정동 조개터마을에 진사 김춘희가 설립한 동명의숙은 초기에는 민가의 사랑방을 빌려 40여 명을 교육하다가 김춘희가 사망한 뒤 폐교(廢校)상황에 놓였는데, 숙장과 숙감이 서울에서 새로운 교사를 초빙하고 지역유지들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 시설을 확충했으며 야학부도 병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수가 80여 명으로 늘었다.<sup>6)</sup> 수성학교는 전 참봉 서상천이 진위군의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고 신명강습소는 성공회 객사리성요한교회(현 팽성교회)를 설립한 김인순이 교

---

2) 김일,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민족운동 양상」, 『2014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평택문화원, 2014

3) 고종의 홍학조칙, 다시 말해서 사학설립조칙은 국력배양의 지름길로 근대교육을 내세웠는데 일반인들 뿐 아니라 전 현직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기관 설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이 단체는 1907년 고두면 율포리(고덕면 율포리)에 거주하는 전 참봉 이범철이 진위군수 백남규와 상의하여 조직했다. 한남홍학회를 조직하는데 진위군수가 간여한 것은 학교 설립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죄로 다스린다는 고종의 홍학조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5) 『황성신문』 1910년 4월 21일

6) 『기호홍학회 월보 제8호 학계휘문』, 1909년 3월 25일

회부설로 설립한 근대교육기관이었다. 당시 설립된 근대학교는 내외인사들의 후원도 받았다. 고종은 수원능행 중 진위군 근대학교에 50환을 내렸으며, 지역유지들도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후원했다. 하지만 을사늑약 후 설립된 근대학교들이 근대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모두 민족자강과 국권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명의숙이 일제강점을 앞두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했다던가 서상천이 대표적인 친일지주였던 점, 일제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지역 유지층들을 중심으로 국어(일본어)강습소가 곳곳에 설립된 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sup>7)</sup>

#### 4. 국채보상운동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을사늑약 후 전개된 경제자립운동이다.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의 보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평택지역도 1907년 3월경부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sup>8)</sup>. 최초의 참여는 ‘진위면울포의약사’가 33환 10전을 기탁한 것이다. 이후 진위군 주사 박준화, 진위소학교 교사 운대선 등은 ‘국채보상회연의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각 동리(洞里) 뿐 아니라 서민층과 관료, 지역유지층, 여성, 학생,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줄을 이었다. 국채보상운동에 민중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던 것은 당시 이 운동을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한 점, 일반 민중들도 쉽게 국권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근대교육 및 민중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사실은 이 운동이 갖는 성격과 의미를 말해준다.

7)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8)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 Ⅲ. 3.1운동과 민족운동의 확산

#### 1.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발생한 3·1운동은 한국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이며 민중운동이었다. 3·1운동에서 우리민족은 종교적, 계급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일제의 식민지배에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투쟁했다. 이것으로 민족의 독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제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고, 국내에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국내와 만주, 연해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진위면(북면) 봉남리, 병남면(구 평택시) 평택리가 중심이 되었고, 면(面) 단위에서는 각 지역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천도교, 계층별로는 농민층과 상인층이 적극 참여했다. 평택지역이 이른 시기에 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은 철도교통의 발달과 천도교의 영향 때문이다. 또 철도교통의 영향으로 과거 진위군의 읍치(邑治)였으며 현병주재소가 있었던 봉남리와 함께, 근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현병주재소 및 각종 공공기관이 있었던 평택역전이 중심으로 역할을 했다.

평택지역에서는 3월 9일에서 4월 10일까지 모두 23회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성주현은 평택지역 만세시위를 일본 측이 작성한 조선군사령부의 정보와 『매일신보』, 구속자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sup>9)</sup>.

#### 〈평택지역 3·1운동 발생지역과 참가인원〉<sup>10)</sup>

날짜	장소	중심인물	인원	검거자	출전
3월9일	현덕면 옥녀봉,	이민도 외	미상	이민도 외	국내자료

9) 성주현,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앞의 논문

10)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 재검토와 전개양상」 재인용

	계두봉				
3월10일	오성면 숙성1리		150여명	연행8	국내자료
3월10일	청북읍 토진리, 신포장터				국내자료
3월11일	평택역전	이도상 외	수십명	13명(구속 5, 훈방8)	판결문, 『매 일신문』
3월21일	진위면 야막리	박창훈	500여명		국내자료
3월31일	진위면 봉남리	박성백 외	500여명	구속6	판결문
4월1일	평택역전		3,000여명	사망1, 부 상4	일본 측 기 록
	서면, 부용면				국내자료
	송탄면 독곡리		500여명	사망2	국내자료
	고덕면	황순태 외			국내자료
	청북읍 백봉리, 오성면 안화리	안육만 외		구속6	판결문
	북면 은산리	정경순 외	약간명	구속2	판결문
4월2일	북면, 송탄면			사상자약간	국내자료
	오성면 안중리				일본 측 자 료
4월3일	서탄면 금암리, 사리	윤기선 외			국내자료
	진위군 여러마을 오성면 학현리	김용성 외	약간명		판결문
4월9일	고덕면, 진위면, 서탄면 금각리	평택역전 진출 시도	100여명 40여명	사망6,7, 부 상60	일본 측 자 료
4월10일	서탄면 금암리		100(40)명	사망1, 부 상 약간명	일본 측 자 료
	서탄면 사리		500여명		국내자료
	서탄면 수월암리		다수		국내자료

이처럼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월 9일부터 시작되어 4월 1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진위군 북면 봉남리와 병남면 평택리를 비롯 전 지역에서 23차례 약5,800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가했고<sup>11)</sup>, 이 과정에

11)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

서 257명이 체포되었으며 사망 64명, 부상 174명의 피해를 남겼다.

## 2. 청년운동

3.1운동은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독립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일제의 식민지배정책도 폭압적인 헌병경찰통치를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만주지역에는 수많은 무장독립군이 조직되어 국내진입작전을 펼쳤고, 국내에서는 청년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사운동과 같이 부문별 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부류가 다타났고, 만주나 중국으로 망명하거나 국내에서 일제에 저항했던 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sup>12)</sup>, 미국에 대한 실망과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에 경도된 젊은 혁명가들도 나타났다. 그 가운데 평택지역 사회운동을 이끈 단체는 진위청년회<sup>13)</sup>였다.

평택지역 청년단체는 1917년(대정 6년) 처음 조직되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해산했다.<sup>14)</sup> 3.1운동 이후에는 유창근, 신찬우 등 지역유지층을 중심으로 1921년 5월 평택청년체육구락부<sup>15)</sup>가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1922년 진위청년회로 개편되었다. 초기 진위청년회는 실력양성과 민중계몽에 바탕을 둔 단체였고 주요 사업도 민립대학설립운동과 강연회<sup>16)</sup>와 운동회 개최<sup>17)</sup>, 야학부 설립 결의<sup>18)</sup> 등이었다. 그러다가 1924년 경 유지층의 퇴진과 국내외적인 변화

---

구』, 2014

12) 3.1운동 전후 평택지역에서는 민족독립을 꿈꾸며 활동하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1910년 가산을 정리하고 일가족과 함께 서간도 삼원포로 망명했던 이석영, 이회영 형제, 안재홍의 청년외교단과 대한애국부인회, 이일영, 정창수, 윤용주가 참여했던 조선민족대동단, 황로태, 이민중, 이기혁 등의 조선독립단, 안구현, 이택화, 오창선, 이조현 등의 임시정부 군자금모금활동이 대표적 사례다.

13) 당시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이 '진위군'이었기 때문에 진위청년회라고 했다.

14) 『동아일보』 1927년 12월 12일자 순회방담

15) 『동아일보』 1921년 5월 15일

16) 『동아일보』 1923년 7월 21일

17) 『동아일보』 1923년 2월, 1923년 6월 6일 춘계육상운동회 참석인원은 6백 명에 달하였다.

18) 1924년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청년회 내에 야학부설치가 결의되었다. 야학부 설치

에 조용하여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1926년 9월경부터 방향전환 논의가 전개되었다.<sup>19)</sup> 혁신총회 이후 청년대중의 이해와 요구 뿐 아니라 조선사회가 당면한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의 계급적 각성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sup>20)</sup> 하지만 방향전환 노력은 기존 부르주아 청년층의 참여와 후원을 약화시켰다.<sup>21)</sup> 평택지역 청년운동은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공황의 영향으로 국내외적 혁명적 분위기가 고양되면서 혁명적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청년단체들은 혁명적 시기 민족해방운동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조선청년총동맹을 해소하고 혁명적 농민, 노동운동에 적극 가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진위청년회도 이 같은 변화에 조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30년 10월 제9회 정기총회<sup>22)</sup>에서는 진위청년회를 진위청년동맹으로 혁신하고 집행위원장으로 안충수를 선출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조직 장악력을 높였으며 사회주의적 성향이 뚜렷한 리홍종, 남상환, 홍선유, 김학룡<sup>23)</sup>과, 중앙과 평택지역을 오가며 활동하였던 조선공산당협의회 중앙부 심인택, 3.1운동을 주도한 뒤 지역사회운동가로 성장한 안충수<sup>24)</sup>, 김영상같은

---

의 목적은 ‘귀인교육’에 두었고 교사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야학부 설치의 청년회의 내부사정으로 당장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1928년이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19) 『동아일보』 1927년 4월 23일. 1926년 9월의 혁신총회에서 이민두, 정인창, 등 새로운 인물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중앙의 선진적 청년단체와 같이 회장제를 집단지도 체제인 위원제로 바꾸었으며, 선언과 강령을 쇄신했다

20) 1927년 3월 5일 평택면 평택리 김영주의 집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무리한 소작권 이동에 대하여 박영환, 김영주를 조사위원으로 파견할 것’, ‘재만동포 박해에 대한 선전문 배포 및 시위운동 전개’, ‘무산아동교육과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진척학원 설립 결의는 진위청년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21) 『동아일보』 1927년 11월 8일자 기사에 나오는 진위청년회 소인극 기부자 명단에는 기존의 이성렬, 이명환, 안종철, 신찬우, 윤응구와 같은 청년 유지층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22) 『동아일보』 1930년 10월 30일

23) 홍선유와 김학룡도 사회주의자로 판단된다. 홍선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김학룡은 함경도 명천공산당재건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인물이다. 이들은 1930년 7월 노동조합활동과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24) 안충수는 3.1운동 당시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른 인물로 1930년 전후에는 과수농업전문가, 동아일보 평택지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인물들이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노동문제나 농민운동에 적극 개입하고 사상조직을 이끌며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 3. 교육운동

교육 및 민중계몽운동은 1920년대 민족주의계가 주도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다. 민족주의계는 실력양성과 민중계몽으로 일제를 타도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20, 30년대로 들어오면서 민중들의 근대교육 요구도 거셌다. 하지만 일제는 취학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했다<sup>25)</sup>. 1920, 30년대 야학·강습소 운동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1920년대 전반 교육운동은 지역 유지층들이 주도했다. 당시에 설립된 것으로는, 1920년 배재고보 출신의 최기환이 서탄면 회화리에 설립한 회화강습소, 1923년 유인이 현덕면 신왕리에 세운 신왕리강습소, 1923년 양재근이 청북면 울북리에 세운 일신강습소, 1924년 서탄면장 이필성이 발기하여 세운 진서강습소, 평택장로교회에서 설립한 은평강습소, 팽성읍 함정리의 팽성학관, 객사리의 객사리아학원, 원평동의 점원야학이 있었다. 야학·강습소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의 강습소는 실력양성과 민중계몽 목적의 야학·강습소와 피지배층의 계급적 각성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야학·강습소로 나뉘었다. 1928년 5월 진위청년회에서 설립한 진청학원, 1931년 오성면 양교리에 세운 신흥학원(양교리강습소), 1935년 오성면 숙성리에 설립한 서일학원, 포승읍 원정리의 중성학원, 청북면 울북리의 울북리강습소, 송탄동의 가재리강습소, 포승읍 방림리의 대덕학원, 팽성읍 도두리의 도청학원(도두리강습소) 등은 이와 같은 범주에 속했던 사립교육기관이었다. 1930년대에는 다양한 계층이 야학·강습소 운동에 동참했다. 1920년대가 유지층들의 설립이나 지원으로 학교가 설립되고 민중들은 수혜를 받는 쪽이었다면 1930년대에는 민중들 스스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비슷한 처

25) 1936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택지역의 공립보통학교 취학대상인원은 2,300명이었지만 교육시설 미비로 취학가능인원은 560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1933년 평택리(원평동)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야학을 설립했으며, 현덕면 덕목리의 박성훈도 무산아동을 대상으로 무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1934년 송탄동 가재리에서는 박종갑, 이영재가 농민야학을 설립했고, 진위청년회 핵심간부였던 김영기는 고덕면 문곡리, 동청1리 일대에 45개의 야학을 설립했다. 합정동 조개터의 양석철은 머슴 살고 받은 세경으로 노동야학을 세운 뒤 본인도 공부를 하는 열성을 보였다. 야학·강습소는 일제의 전시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립학교에 통폐합되거나 폐교되었고 교과과정도 황국신민화교육정책에 따라 개편되었으며, 간이학교를 비롯해 농촌진흥회와 같은 관변단체나 친일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관제야학이 설립되었다<sup>26)</sup>.

#### 4. 기타

일제강점기 언론은 민중계몽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평택지역에는 1920년부터 중앙 언론사의 지국과 분국이 설립되면서 언론운동이 시작되었다. 평택지역 최초의 언론사는 1920년 유창근이 평택역전에 설립한 동아일보 평택분국이다<sup>27)</sup>. 평택분국은 분국 내에 기자를 두 명이나 채용했고 광고도 자체적으로 수주했다. 평택분국은 1923년 지국으로 승격되었다. 평택지국은 1930년 서정리역전에 주재기자로 박수훈을 임명했고, 2년 뒤에는 서정리분국을 설치했으며, 1936년에는 안중분국을 설치했다. 1923년에는 조선일보 평택지국이 설치되었다. 초대지국장인 윤용섭, 총무겸 기자 윤용규, 기자 겸 외무원 이상준이었다. 이밖에도 평택지역에는 조선중앙일보 평택지국, 서정리지국과 중외일보, 시대일보 지국도 활동했다. 평택지역 언론인들은 1927년 조선문화기우구락부라는 연합조직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언론권위 신장, 언론기관 설치, 지국 인사 채용, 돌발사건 조사, 강연회 개최, 서화전람회 개최, 청소년운동 후원, 지방미풍장려 등을 논의했다.

26) 김해규,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야학·강습소운동」,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문화원, 2015

27) 성주현,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언론」,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문화원, 2015

소년운동은 1923년 창립한 평택소년야구단이 효시다. 이 단체는 이듬해 평택소년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강연회 개최, 소년광(少年光)이라는 잡지를 발행, 중선소년정구대회 개최 등 계몽운동을 전개했고, 1927년에는 재만 동포 박해에 대한 선전문을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1927년에는 경성애우소년학우회 진위지부가 창립되었으며, 서정리소년회, 평택소년군도 출범했다. 1926년에는 진위군 봉남리에서 진흥소년회가 창립되어 노동야학을 운영하고 마을마다 순회하며 소인극을 공연했다. 이들 소년단체는 1920년대 후반부터 사상적 변화를 보였고 1930년대 초에는 서정리소년동맹과 같은 진보적 소년단체로 전환했다.<sup>28)</sup>

#### IV. 1930년대 진보적 사회운동

##### 1. 1930년대 평택지역 사회운동의 변화

평택역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회운동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진보적 성격으로 발전하면서 서정리역전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1929년 대공황 이후 사회운동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을 도모하거나 사상운동을 전개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걸출한 사회운동가들이 유입되거나 배출되었다.

1930년대 평택역전에서는 진위청년동맹 핵심간부를 중심으로 평택노동청년회가 조직되었다. 평택노동청년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홍선유와 김학룡이었다. 홍선유, 김학룡은 평택노동청년회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였다.<sup>29)</sup> 평택노동청년회는 1932년 9월 평택노농협의회로 발전했다. 평택노농협의회의 중심인물은 수진농민조합사건과 평양사범적화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종필과 이희수, 김창기 등이었다.<sup>30)</sup>

28) 장연환,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소년운동」,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문화원, 2015

29) 『동아일보』 1930년 7월 14일

30) 『동아일보』 1932.12.13. 평택노농협의회에서 평택지역의 중심인물 홍선유, 김학룡

1931년 11월에는 평택에서 ‘사상문제연구회’라는 적색사상단체가 창립했다. 이정근이 중심이 된 이 단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학습을 했던 조직이다. 1938년 7월에도 평택독서회사건이 발생했다<sup>31)</sup>. 이 사건은 이두중, 신태호, 최웅진, 이영선 등 20여 명이 1935년 ‘평택독서회’라는 독서모임을 만들어 ‘메이데이의 의식’, ‘자본주의의 기구’, ‘변증법적 유물론’과 같은 사회주의 서적을 학습하다 치안유지법 위반, 육군형법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평택역전에서는 1930년대들어 진위청년회가 진위청년동맹을 거쳐 평택노동청년회로 발전했으며 이종필, 이두중, 이희수 등 다수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활동가들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은 남상환이었다. 1920년대 말 진위청년회에도 관여했던 남상환<sup>32)</sup>은 자신과 연고<sup>33)</sup>가 있는 경부선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남상환의 학력은 확실치 않으며 1930년대 초반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을 지냈다는 이력으로 짐작할 때 중앙에서 활동하던 직업적 활동가로 판단된다.<sup>34)</sup> 남상환이 평택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와 고덕면 율포1리 출신인 유명한 사회주의자 심인택과의 인연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정리역전에 고모가 거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35)</sup> 남상환은 1930년 3월 적색농민조합인 수진농민조합을 결성을 주도했고<sup>36)</sup>, 1930년 7월에는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청년

---

이 제외된 것은 1930년 8월 평택노동청년회에서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京高特秘 제1735호 사상에 관한 정보』 (10), 1938년 7월 25일

32) 남상환은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위원에 선출된 사회주의 활동가로 경부선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수진농민조합 결성을 주도하여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미결수 상태에서 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사망했던 인물이다.

33) 남상환과 평택지역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경기도 양주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전해오기로는 서정리역전에 고모가 거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34) 1930년 8월 동아일보에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자격으로 총회준비를 위한 임시집행부 서기에 선출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35) 남상환과 심인택과의 관계는 1932년 ML과의 이종림이 주도했던 경성제국대학학생결사사건에 함께 연루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36) 『조선일보』 1930년 7월 10일

회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30년대 평택역전과 서정리역전을 중심으로 진보적 청년사회단체가 조직되자 사회운동단체 연대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32년 3월에 조직된 ‘진위사회단체회’<sup>37)</sup>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후 진위사회단체회의 활동이 사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연대조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평택출신의 활동가들로 지역 밖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살펴보자. 1930년대 중앙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로 대표적인 인물은 심인택과 이종림이다. 심인택은 고덕면 율포2리 양성말 출신이다. 경성제1고보와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했는데 이 시기를 거치며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대 후반 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영등포에서 미곡상과 중외일보 영등포지국을 운영했고 면(面)·리(里) 단위에 침투하여 암약했다. 1930년 12월부터 ML파의 중심인물 이종림, 이화영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을 협의했으며, 권린갑, 이진일 등과 함께 북경에 근거를 둔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와 프로핀테른 9월 테제에 따라 레닌주의 정치학교 출신들이 주도했던 조선공산당 재건 적색농민조합조직준비위, 공산청년동맹준비위 결성에 앞장섰다. 1931년에는 탄광노동자들로 혁신회를 조직했고, 1931년 5월에는 평양승실학교 학생들과 공장노동자를 포섭해 공산청년회를 조직하도록 지도했다. 그 해 대구에서 열린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에 평안남도 대표로 참가했으며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31년에는 이종림, 고경흠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본부 사건에서 검거를 면한 권대형, 서인식, 김기선을 만나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결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1931년 다시 회합을 갖고 현 정세에서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은 시기상조라는 합의하에 조직을 해체하고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적색농민,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sup>38)</sup>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심인택은 전국을 돌며 적색농조 및

37) 『조선중앙일보』 1932년 3월 14일

38) 김방,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사회운동」, 『평택근현대읽기』 -2014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평택문화원, 2014

적색노조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1931년 5월에는 고덕면 율포리에 은거하던 중 수진농민조합고덕지부 창립에 관여했다. 그러다가 1932년 3월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조직변경과 대회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권대형 등과 회합하다가 검거되었으며 1935년 7월 2년형을 선고받았다.<sup>39)</sup> 선고공판당시 재판부는 심인택을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중앙부’라고 하여 그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중심인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해방 후 심인택은 평택지역으로 내려와 남로당 평택위원장을 지내며 각종 좌익사건을 주도했다. 1947년에는 8.15 폭동사건을 일으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데 한국전쟁 중 사망했거나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1930년대 평택지역 및 평택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했던 인물로는 이종림, 이종필, 이두중, 이희수, 김창기, 최수일, 한준택과 같은 인물들이 활동했다.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지만 1930년대 초 오성면에서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했고 서일학원이라는 사립학교를 운영했던 서병창, 송탄면 가재리의 김현욱 형제 등도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처럼 평택지역 사회운동은 1920년대 후반 청년단체가 혁신되면서 사회주의적 성향의 직업적 활동가들에 의해 노동청년단체, 농민청년단체로 발전했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단체를 해소하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결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평택출신의 직업적 활동가와 중앙에서 낙향한 직업적활동가들이 지역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적색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공재건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 2. 수진농민조합운동

39)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10일. “일찍이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김와실리, 리종림, 김민우 등을 중 노동자, 농민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전심으로 한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은 경성제대생 등의 반제동맹, 적우회 등의 각 지방 그룹이 검거되었고 대구에서 이상조, 서인식, 이우적, 등의 후계 중앙부와 경성에서 김두정 등의 재건사건이 무두 잡히어 일단락 지었으나 중앙부 한 사람인 경기도 진위군 고덕면 율포리 출생의 심인택은 도주한 것 때문에 검거치 못한 채로 내려왔든 바 재작년 가을에 드디어 경성 서대문서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작년 봄에야 경성지방법원에 송국되어 혼자 예심에 있었던 바 최근에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제1고보와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처음부터 리면 조직에서 활동한 “움가나이서”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은 1920년대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고 식민지적 착취구조를 정착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지주와 마름의 착취와 부당한 소작관행처럼 봉건적이면서 식민지적인 수탈에 대하여 소작쟁의로 대항했다. 소작인회나 소작조합을 결성하여 생존권 투쟁 형태로 전개되던 농민운동은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9월 조선농민총동맹과 같은 합법적 농민조직을 결성되면서 조직적으로 연대했다. 합법적 농민조직들은 소작료문제, 부당한 소작권이동, 동척이민철폐와 같은 농민층의 생존권 문제와 야학, 독서회, 소인극 등 농민층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려는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농민운동은 1930년 전후 대공황 후 운동조건의 변화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운동을 청산하고 비합법적이고 혁명적인 적색농민조합 건설, 이것을 통한 조선공산당 재건을 추진했다.<sup>40)</sup> 또 평택출신 및 중앙에서 파견된 직업적 활동가들이 지역활동가들과 결합하여 노동·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조공 재건운동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였다.<sup>41)</sup>

적색농민조합으로 설립된 수진농민조합(水振農民組合)은 1930년 3월 10일 100여 명의 농민들이 진위군 북면 야막리 박규희의 집에 모여 ‘진위농민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sup>42)</sup> 창립을 주도한 인물은 전국농민총동맹 중앙위원이며 서정리청년동맹 중앙위원과 서정리노동조합 집행위원장이던 남상환(1908~1933)이었고, 발기인은 진위면 야막리에 살며 천도교 진위교구를 대표하고 오산사회운동단체를 이끌던 박규희, 고덕면 두릉리의 김영상,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의 장주문, 이원섭이었다. 수진농민조합(이하 수진농조)은 창립목적으로 농민의 이익획득과 생활향상, 문맹퇴치와 의식적 교양, 상호부조를 통한 확고한 단결도모를 내세웠다.

40) 평택시·진위면지편찬위원회, 『진위면지』, 1999

41) 위의 견해는 이준식 『농촌사회 변동과 농민운동-일제침략기 함경남도의 경우』, 민영사, 1993 ;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같은 논문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주장되어 왔던 농민운동의 외부적 영향에 대한 견해를 극복하고 내재적 발전론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42) 『동아일보』 1930년 3월 13일 김창순, 김준엽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는 조명재 등 8명이 오산연합회관에서 수진농민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1930년 3월 28일 진위면 갈곶리 강우찬의 집에서 개최된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는 본부를 오산으로 옮기고 평택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했던 심인택, 박승극, 장주문, 이원섭 등 수원지역 활동가들을 포섭한 뒤 명칭을 ‘수진농민조합’으로 개칭했으며 지부설치를 결의했다. 수진농민조합 지부설치는 고덕면과 양감면이 거론되었다. 고덕면은 서정리역전에서 활동하던 남상환과<sup>43)</sup> 두릉2리 계루지 마을 출신 김영상의 암약으로 수진농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많았고, 양감면은 수진농민조합 간부 박승극을 비롯하여 장주문, 이원섭의 활동 근거였기 때문이다. 고덕지부설치는 고덕면 울포리 뒷산에서 남상환의 주도로 모의되었다. 하지만 1930년 5월 초에 있었던 고덕지부 설치에 평택경찰서의 금지로 실패하였고 이어 추진된 양감지부 설치도 성사되지 못했다.<sup>44)</sup>

수진농민조합은 빈농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다. 수진농조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종 농민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이었다. 특히 남상환을 중심으로 하는 쟁의부는 진위군과 수원군 일대의 소작쟁의와 무리한 소작권이동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투쟁을 지도하고 문제를 해결했다.<sup>45)</sup> 1931년 11월 진위군 서탄면 금각리와 황구지리 발생한 소작쟁의에는 장주문, 이원섭을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남상환의 지도로 소작쟁의를 일으켜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도록 했다.<sup>46)</sup>

수진농조가 농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일제는 핵심인물 남상환과 초대집행위원장 박규희를 탄압했다. 평택경찰서는 남상환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서정노동청년회와 서정리청년동맹의 월례회를 금지하고 각종 활동을 방해했으며,<sup>47)</sup> 남상환이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회에 다녀온 것을 조사했고, 수원소년동맹 양감지부 정기대회에서 서정리소년동맹에서 보낸 축문(祝文)이 불온하다며 문제를 삼았으며, 오산사회단체연합회 집행위원이며 수진농조집행위원장이었던 박규희를 격문내용이 불온하다며 검거했다가 석방하

43) 1930년 수진농민조합 창립 당시 남상환의 본적과 주소지가 고덕면 당현리였다.

44) 『동아일보』 1930년 5월 13일, 1930년 10월 12일

45) 『중외일보』 1930년 5월 9일

46) 『조선중앙일보』 1931년 11월 30일

47) 『동아일보』 1930년 7월 10일

고<sup>48)</sup> 가택수색<sup>49)</sup>을 하는 등 탄압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농조 활동이 활발하자 조직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1932년 12월 핵심간부 8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남상환, 박승극<sup>50)</sup>, 김영상, 장주문, 이원섭<sup>51)</sup>을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특별공판에 회부<sup>52)</sup>했다.<sup>53)</sup>

수진농조사건은 진위, 수원 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진위, 수원 지역에서는 재판 일에 50여명의 조합원이 상경하여 응원했으며,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관심 속에서 일제는 구속된 조합원들을 서대문형무소에 1년 반 동안 수감하고 미결수 상태로 방치했다. 결국 일제가 핵심인물을 구금하고 탄압하자 수진농조는 견디지 못하고 와해됐다. 일제는 수진농조가 와해되자 1년 반 만에 조합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했고 남상환은 석방직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된 남상환은 한 달여를 투병하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sup>54)</sup>

## V. 맺음말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은 민족운동의 선진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 말부터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

48) 『조선일보』 1930년 11월 6일

49) 『동아일보』 1931년 11월 5일

50) 박승극은 수원사람으로 1920년대 후반 수원청년동맹의 간부를 지냈으며 1929년 조선청년동맹 정기대회 해금교섭위원이었다. 1931년에는 신간회 전체대회 수원대표로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으며 수원적색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였다. 수진농조가 결성될 당시 조선일보수원지국장이었다.

51) 김영상은 고덕면 두릉리 계루지 마을 사람으로 부친은 동척농장 농감이었고 직업은 동아일보 고덕분국장이었으며, 장주문은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사람으로 농민이었다. 이원섭은 양감면 용소리에서 서당 훈장을 하였는데 상당한 식견을 갖추었던 인물이었다.

52) 수진농조 간부들의 죄목은 농민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고 투쟁훈련을 시켰으며,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치안유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53) 『동아일보』 1932년 12월 24일

54) 『조선중앙일보』 1933년 4월 21일

3.1운동 때는 6천여 명의 민중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하여 70여 명의 사망자와 백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일제강점 직후 진위면 봉남리, 가곡리 일대의 경주 이씨 가문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이석영, 이회영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만인의 귀감이 되었으며, 안재홍은 국내에서 교육자,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신간회운동을 비롯한 각종 운동을 주도했다. 원심창과 이조현은 아니키즘 운동에 동참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평택지역에 남았던 인사들 중에는 청년운동, 교육운동, 경제자립운동, 여성운동, 형평사운동, 소년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 각성과 실력양성에 노력했다. 이 가운데 1920년대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청년운동이었다. 청년운동은 초기에는 보수적 지역유지층이 주도했지만 1920년대 후반 조직과 이념을 혁신했으며 운동방법도 식민지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무산자계급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1930년 전후에는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대상으로 삼았으며, 일제와 함께 지주와 자본가 등 지배계급도 타파하려고 했다. 사회주의 활동가로는 고덕면 출신의 심인택과 김영상, 신대동 출신의 이종림, 이종필 등이 중앙과 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 중앙에서 직업적 활동가로 활동했던 남상환이 내려와 암약하면서 지역사회운동은 활발해졌다. 이들은 심인택의 지도와 남상환, 김영상의 활동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1930년에는 적생농민조합인 수진농민조합을 결성하여 농민문제, 소작문제에 관여하며 일제 및 지주들과 맞섰다.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간부들이 미결수 상태로 장기간 구속 수감되면서 수진농조는 와해되었다. 이 같은 수법은 1930년대 일제의 전형적인 사회운동단체 탄압방식이었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조선 말 동학농민운동과 의병투쟁, 애국계몽운동, 1920, 30년대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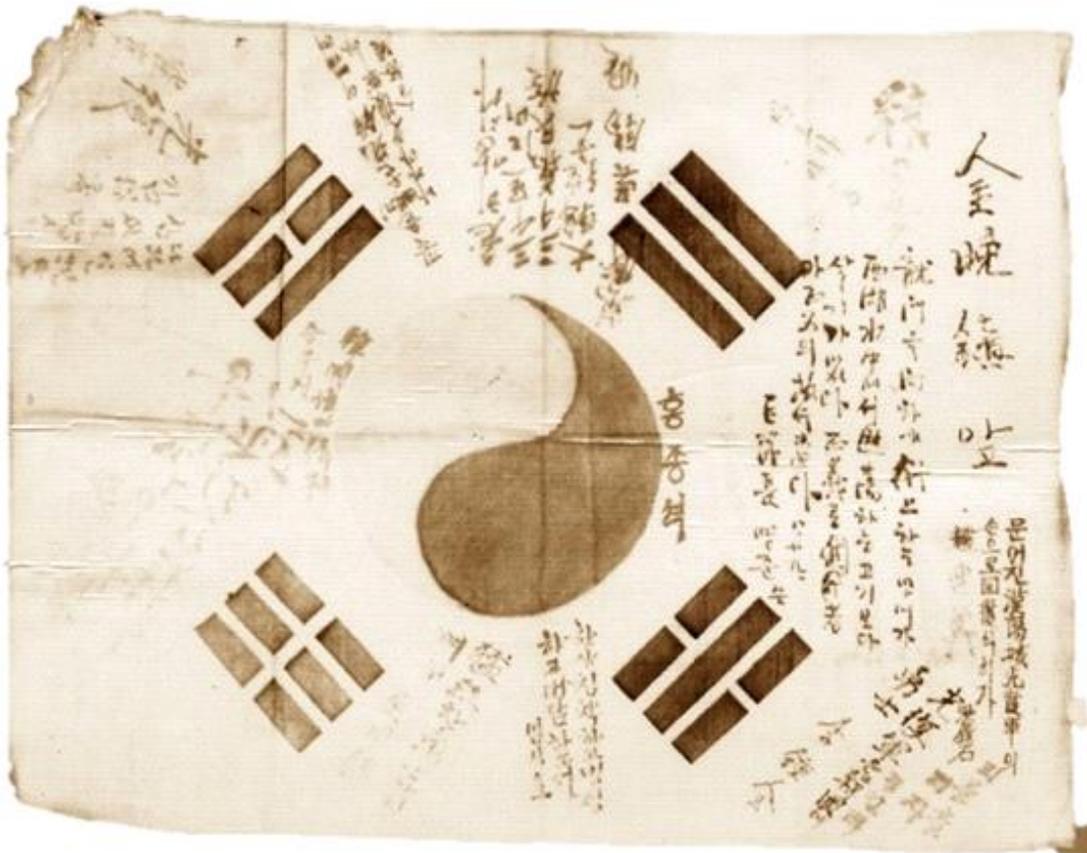
■ 참고문헌

- 『황성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기호홍학회월보』 제8호 학계휘문, 1909년 3월 25일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평택문화원, 2014  
평택문화원, 『평택학시민강좌 자료집-평택 근현대 읽기』, 2014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박철하,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안재홍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2014  
김해규 외,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문화원, 2015

# 민족운동과 평택 2강

국외로 간 민족운동가들 누구였나

박환(수원대학교 교수)



평택출신 김만진의 태극기



# 국외로 간 민족운동가들은 누구였나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

## 차 례

- I. 광복군과 고려혁명당
- II. 대한민국임시정부

### I. 광복군과 고려혁명당

#### 1. 광복군

##### 1) 김만진

경기 평택(平澤) 사람이다.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 2) 김영오

1944년 11월 중국 북경(北京)에서 화북지구(華北地區) 공작책임 김광언(金光彦)과 접선되어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고 북경 지하공작원으로 임명된 뒤, 반정공작(反正工作) 전개 활동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3) 김하진

경기 평택(平澤) 사람이다.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대적선전공작 및 초모공작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4) 신순우

경기도 평택(平澤) 사람이다. 광복군 징모제3분처에 지하공작 책임자로 임명되어 초모공작 및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5) 정우진

경기도 평택(平澤) 사람이다.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2. 만주 고려혁명당

### 1) 오성환

경기 평택(平澤) 사람이다. 1919년 형평사(衡平社)를 창립하여 대표로서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4년에 있었던 형평사 본부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 또는 대전으로 옮기는데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그 결과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대전에서 이른바 대전 회의를 열고 전라·경기·강원·평안도의 동지들을 모아 형평사혁신회(衡平社革新會)를 발기하고 형평사 본부의 이전을 결의하였다.

동년 3월에는 다시 형평사혁신회의 창립총회를 천안(天安)에서 열고 혁신회 창립 동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2주일 이내에 형평사 본부를 서울로 옮길 것을 결의하고 장지필(張志弼)등 4명과 함께 이전 준비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동년 8월에 개최된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 임시대회에서는 조사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서무부 백송계(白松溪), 재무부 조귀용(趙貴容), 교육부 이이규(李利圭), 사교부 이지영(李祉永), 산업부 이학찬(李學贊) 위원 등과 함께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섰다.

1925년 4월 24일, 25일 양일간에 서울 시천교당(侍天教堂)에서 있었던 전조선형평대회에서는 이학인(李鶴仁)·이춘봉(李春峰)·이광수(李光洙) 등 20인과 함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만주로 망명하여 혁명원로인 정의부의 양기탁(梁起鐸)을 위시하여 고활신(高豁信)·현정경(玄正卿)·곽종대(郭鍾大) 등과 천도교 혁신파인 김봉국(金鳳國)·이동구(李東求)·송 헌(宋憲) 그리고 노령에서 온 이규풍(李奎豐)·주진수(朱鎭秀)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무장항일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1926년 12월 만주 장춘(長春)에 있는 동아정미소에서 이동락(李東洛)이 일본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당원 16명이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1928년 4월 22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으며, 동년 10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II. 대한민국임시정부

### 1. 수립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과 시도는 경술국치 직후부터 있었다. 1914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李相高)·이동휘(李東輝) 등이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수립한 일이 있고, 1917년 상해에서는 신규식(申圭植)·조소앙(趙素昂) 등 17명이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었다. 3·1운동은 온 민족이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의 절대독립을 요구한 독립운동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니, 이를 상징할 수 있는 민족의 대표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통해 표출된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었다.

3·1운동이 확산되어 가던 1919년 3월과 4월 국내외 각처에서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고려공화정부(高麗共和政府)·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등은 주체나 수립과정이 분명하지 않은 채 전단으로만 발표된 정부이다.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것은 노령(露嶺)·상하이(上海)·한성(漢城)의 임시정부였다. 노령에서는 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개편,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상하이에서는 국내외에서 모여든 독립운동자들이 4월 10~11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성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비밀리에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고, 4월 23일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한성정부’의 수립을 세상에 알렸다.

노령·상하이·한성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모두 민족을 대표할 수는 없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운동은 노령측의 원세훈(元世勳)과 상하이측의 안창호(安昌浩)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 통합논의를 거쳐,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둔다고 하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실현한 것은 1919년 9월 11일이었다.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결정되었고, 임시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민족적 대단결이 이루어졌고, 민족의 대단결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귀결된 것이다. 임시정부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식’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시’로 세운 정부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대표기구로,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통할해 나갈 독립운동 중추기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갖고 있었다.

## 2. 광복군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37년 7월

15일 유동열(柳東說)·이청천(李青天)·이복원(李復源)·현익철(玄益哲)·김학규(金學奎)·안공근(安恭根)을 위원으로 임명, 임정의 군사정책과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만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던 군사인재들이었다. 군사전문가들에게 임정의 군사정책과 활동을 맡긴 것이다. 충칭에 도착하면서 군대편성을 추진하였다. 충칭은 비교적 전란으로부터 안정된 지역이었다.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을 최전방 지역인 시안(西安)으로 파견하여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동안 중국의 각종 군관학교와 낙양군관학교를 통해 양성한 군사간부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청천·이범석·김학규 등 만주독립군 출신들을 중심으로 1940년 9월 임정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정의 전략(戰略)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대일전쟁을 전개함으로써 전후 연합국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이었다. 1941년 12월 미국과 일본간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한 것, 1945년 2월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발표한 것이 그러한 의도였다. 그리고 광복군과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도모하였다. 1943년 인도 버어마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영국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하였으며,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와는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매개로 합작하여 국내진공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 민족운동과 평택 3강

우리 문화재 어떻게 지켰나

김인덕(청암대학교 교수)



간송 전형필



# 우리 문화재 어떻게 지켰나

-우리 문화재 수난사-

김인덕 청암대학교 교수

## 차 례

- I. 문화재 수난 보기
- II. 문화재란 무엇인가?
- III. 역사 속의 조선총독부박물관
- IV.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난  
우리가 주목할 <간송 전형필(1906-1962)>

## I. 문화재 수난 보기

국가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의 우리 문화재 피해사례를 직시하여 보고서로 엮었다. 그리고 중요한 문화재의 피해 사실을 수록한 책자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일에 무관심한 편이다. 사건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2월 송례문 건물이 방화로 대부분이 불 타 무너졌다.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전후에 발생하여 다음날인 2008년 2월 11일 오전 0시 40분경 송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되었고,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오전 1시 54분 석축을 제외

한 건물이 붕괴되었다.

→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논의하여 복원 사업을 2011년 진행, 완료했다.

사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복원해도 그 가치가 분명 다르다. 그리고 그 어떤 상징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본질의 변화는 원상을 돌릴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문화재 수난의 역사는 복원을 통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 익산에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현재도 수리는 진행 중이다. 출발은 일제에 의해 보수가 되기 시작하면서로 콘크리트 덩어리가 현재도 남아 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보수의 시작은 2001년 11월이었다.

## II. 문화재란 무엇인가?

### 1.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문화재(Cultural Heritage)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 2. 문화재의 종류

한국의 경우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정의하고 있다.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

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을 통칭한다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記念物) : 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과 같은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民俗資料)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을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문화재들은 중요도에 따라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이다.

2)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

3)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4)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이다.

5)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이다.

### Ⅲ. 역사 속의 조선총독부박물관

#### 1. 전사 : 시정 5년 공진회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5년 12월 1일 개관했다.<sup>1)</sup> 이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는 1910년 합방 이후 이른바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였다. 당시 조선총독은 여러 차례의 훈시에서 공진회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 공진회 개최의 취지는 널리 조선 물산을 수집 진열하고 산업개발 진보의 실적을 명시해서 일반 조선인의 분발심을 환기하고 출진생산품과 생산사업의 우열득실을 심사공격해서 당업자를 고무작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더불어 행정, 교육, 교통, 경제 등 제반시설의 상황을 전시하고 나아가 조선구래의 문물 중 특히 참고의 자료로 삼을 만한 것으로 신구시정의 비교대조를 밝혀서 조선민중에게 신정의 혜택을 자각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지 물산 중 특히 조선에 관계되는 것의 출진을 촉구하고, 첫째, 조선의 산업무역의 발달에 투자하며, 둘째, 촉진개선의 표적을 시범으로 보여 조선인의 구안을 경계해서 그 결과 조선인으로 깊이 스스로 반성개발해서 사치하고 노는 폐습을 고치고 근검역행의 미풍을 조장해서 서로 격려해서 날로 산업의 개량발달과 국부의 증진을 도도해야 하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 있다.(朝鮮總督府, 『朝鮮彙報』 1915. 9.)

이른바 박람회는 대량의 전시물을 특정 공간에 집중시켜 기획자의 의도대로 그것을 분류 진열하여 주최 측이 목적하는 바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시하려는 이벤트이다. 일제시대 한국의 경우도 공진회를 통해 식민지 지배자인 조선총독부는 ‘시정(施政)’의 내용을 널리 선전하고자 했다. 특히 공진회의

---

1) 이하 내용은 필자의 선행 연구 참조한다.(김인덕, 『식민지시대 근대 공간 국립박물관』, 2007, 국학자료원, 김인덕, 「시정5년 기념 공진회와 미술관 전시에 대한 소고」, 2010. 9,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김인덕,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 상설 전시와 식민지 조선 문화-전시 유물을 중심으로-」, 2010. 10, 『향토서울』 (7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강의원고(2014).)

개최 취지에는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신정부의 혜택을 각성하게 하고, 많은 일본인들을 오게 하여 조선의 실상을 보게 하여 향후 조선 개발이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진회는 경복궁을 훼손하고,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열렸다. 결국 경복궁은 공진회에 의해 왕실의 권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역사적 유래가 분명한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기념비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징적인 만들어진 식민지배의 공간은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열등감을 강조했다. 그것은 일제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한 동화정책의 차원에서 1910년 합방 직후부터 진행되었던 통치술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술 분야의 경우, 한일 작품을 함께 진열하여 대비시키기 위한 전람회가 정책적으로 개최되었다. 1915년 10월 경복궁의 '시정5년 공진회'에서도 그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공진회의 한 공간으로 마련된 미술관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일제는 1907년부터 1945년 동안 전국 단위의 박람회와 공진회를 20여 차례 개최했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시정을 기념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시정5년과 시정20년, 시정30년에 열었다. 1915년의 공진회는 만들어진 대조선 홍보공간이었다. 따라서 찬란한 조선의 문화 보다는 열등한 조선의 문화, 제국주의적 권위에 압도된 조선의 왕권, 일본의 발달된 근대의 모습을 학습하는 장소였다.

공진회의 전시장은 대규모 전시 공간으로 규모가 72,800평이었다. 전시장 조성에 약 24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진열관의 규모도 약 5,352평이었다.

공진회의 전시물품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5년 1월 18일 공진회에 출품하는 물품의 통관규정을 고시하고, 7월 초순에는 관람자 및 출품인들이 기차나 배를 이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출품물의 운임 할인을 알렸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각도에 공진회 출품과 전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한

다는 취지를 알려 출품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 공진회에 전시물을 출품한 인원은 총 18,976명이며, 각 분야, 각 전시관에 전시된 출품물의 총수는 42,026점이었다. 총 제13부 이외에 공진회에는 심세관·참고관·미술관·동척특별관·철도관·기계관·영림관 등 7개의 특별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이른바 ‘근대적인 문물’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었다.

공진회는 진열품 중에 미술, 고고자료를 제13부로 분류했고, 출품된 미술 자료는 고고자료와 함께 전시되었다. 이 가운데 미술자료를 살펴보면, 45류로 이를 대분하면 회화류와 조각류이다. 회화류는 서양화와 동양화로 출품 총수는 151점이다. 동양화는 98점, 서양화는 36점, 조각류는 17점이다. 이들 작품을 제작한 사람들로 일본인은 동양화 52점, 서양화 28점, 조각14점이고, 조선인은 동양화 46점, 서양화 8점, 조각류 3점이다.(朝鮮總督府,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2卷, 1916, 555쪽.) 이 미술품은 고미술 및 고고자료와 함께 미술 본관, 강녕전 등지에 전시했다.

이렇게 미술관은 다른 특설관과 함께 위치했고, 이왕직특설관 부근에 설치되었다. 다른 건물들이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 건물이었던 것에 비해 근정전의 동쪽, 조선시대에는 왕세자의 거처인 동궁이 있었던 자리의 이 미술관은 2층 벽돌의 영구적인 건물로 지었다. 이 건물은 정면에 열주를 배치하고 지면에서 계단을 통해 쳐다보면서 올라가 입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제국주의적 권위가 강조된 건물이었다. 따라서 한국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 공진회의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상설화시킨 것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의 명령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고미술품과 고고자료는 전술했듯이 준비된 공간인 공진회 미술관에 전시되었다. 미술관의 정면 1층에서 보면 경주 남산의 약사여래좌상이 놓였다. 그리고 뒤로는 좌우에 역시 경주 감산사터의 미타여래와 미륵보살이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천장에는 평안남도 강서군 우현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악천녀상도 그려져 있다. 1층의 동쪽으로는 고려청자와 신라시대의 유물로 장신구, 문양전, 삼국의 토기 등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금속기로 신라와 고려의

청동 범종, 청동 방울 등, 조선시대의 목가구, 철제와 동제 유물 등이 전시되었다. 이렇게 1층은 불교문화로 우리 문화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골동품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즉, 우리 역사의 설명은 의도하지 않았다.

미술관의 2층은 동쪽으로 조선시대 김명국의 산수도, 김홍도의 신선도, 김정희의 글씨 등 서화류가 전시되었다. 서쪽은 금동불상과 대장경 등의 불교 문화재와 조선시대의 인쇄 관련된 활자와 책자가 전시되었다. 2층은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규정하고 미정리 상태의 활자와 각종 서적을 전시했다. 아울러 불교문화의 진수로 대장경 전시를 시도했다. 신작 미술품의 경우는 강녕전과 그 부속건물인 연생전·경성전·응지당 등에 미술분관으로 전시되었다.

이와 함께 개성·원주·이천 등지에서 가져온 석탑, 부도, 불상 등이 옮겨졌다. 지광국사현모탑, 개국사지 7층 석탑 등이 그것이다. 이후에도 석물의 이동은 총독부에 의해 계속 추진된다. 이러한 미술관의 유물은 조선총독부의 행정력이 없이는 수집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석조물의 경우는 역사성을 없애면서 조직적으로 민족문화를 말살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 2. 조선총독부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건물이 출현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유일하게 내화 건축물인 본관은 공진회의 미술관으로서 지어진 것으로 박물관으로서의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협소할뿐더러 진열실의 구조도 채광 기타 설비도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1916년 이래 매년 증축안을 제출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할 수 없이 방화의 설비가 없는 경복궁의 근정전, 사정전, 수정전을 진열실로 하고 겨우 일시적 미봉에 지나지 않는다. 반도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부끄럽다.(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報』(1-1), 1926, 3쪽.)

시작부터 왜곡된 공간에서 출발한 것이 조선총독부박물관이었다.

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사무분장 상의 업무를 살펴보면, 사무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다음의 일은 관방 회계과 소관으로 했다. 그리고 첫째, 건조물의 보존 관리, 둘째, 입장자의 취체, 셋째, 용인의 취체와 경비, 급료 및 보통 사무비는 조선총독부 본부의 일반 사무비(청비, 잡비)로 지불하고, 이밖에 고적조사 및 진열품비로 3만 2천 688원으로 충당했다.(「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 참조.)

그런가 하면 이곳의 관람구역은 광화문부터 신무문에 이르기까지 경복궁 전부를 대상지역으로 했다. 이미 시정5년 기념공진회 때, 가설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었으나 미술관만은 영구적 건축으로 남겨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그 때 전시된 수집품을 기반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개관되었던 것이다. 백악(석회석)으로 된 이 서양식 이층 건물은 정면에 석단주를 배열하고 내부는 중앙의 큰 홀을 중심으로 좌우 2칸씩 모두 6칸으로 나뉘서 여기에 주요 진열품을 전시했다. 박물관 본관 건물은 해방 후 학술원·예술원 소관 시설로 이용되었으나, 1997년 총독부 청사와 함께 철거되었다. 또한 창경궁 내 이왕직박물관처럼 경복궁 내 전각을 박물관 시설로 이용했다. 박물관 사무실은 고종의 양모의 거전이었던 자경전을 이용하고 경복궁 정전·근정전 뒤에 있던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과 전랑은 창고로 이용했으며, 근정전 회랑에는 근세의 여러 병기, 고려석관, 석불 등을 전시했다. 또한 수정전에는 오오타니 코즈이(大谷光瑞) 등이 서역에서 가져온 벽화, 유물을 전시하고, 경회루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공간에는 조선 각지에서 반입한 석탑·비석·석등을 진열했다. 경복궁은 “12만 여평의 대박물관”(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334쪽.)이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주요 유물은 공진회 인계물품, 내무부 및 회계과 보관고물, 내무부 편집과 조사 수집품, 참사관 분실 보관 활자, 탁본서류, 고적조사 물품, 구입품 등으로, 그 중심은 공진회의 인계물품이다.(「大正4年 12月 所藏品目錄」.)

1915년 12월 개관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독립기관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총괄 하에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의 유적 조사가 착수되었다. 그것은 전술한 고적조사위원회를 통해서였다. 이에 앞서 일제는 고적조사 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일제시대 고적조사사업의 역사를 정리하면, 첫째, 구한국시대와 일제시대 초기의 고적조사사업(1895년부터 1915년), 둘째, 고적조사위원회의 운영시기(1916년부터 1932년), 셋째, 조선고적연구회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운영시기(1933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특별전을 열었다. 1926년 11월에는 경주 서봉총에서 발굴한 신라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열었다. 1930년 5월에는 조선사료전람을 개최했다. 조선사료전람은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했다. 장소는 조선총독부 제3회의실에 조선 왕실, 외교, 사회, 문화의 4종류에 관련된 사료 22종을 전시했다.

#### IV.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난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이후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로 온갖 서러움과 통분을 겪었다. 전통적인 문화도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변형되었다.

일본은 고려청자부터 조선시대의 목가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갔다. 특히 불교문화재의 경우 사찰의 문화재부터 산이며 들에 방치되어 있던 폐사지 유적에 이르기까지 약탈되었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제자리에서 이동된 경우이다. → 갈항사 삼층석탑, 남계원 칠층석탑 등 현재 경북궁에 모여 있는 문화재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청와대 안에 있는 석불좌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조선총독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방군수가 올려 보낸 것이다.

둘째, 형태가 훼손되거나 파괴된 경우이다. →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들

수 있다.

셋째, 제자리에 잘 있고 외형상 파손된 것은 없으나 내용물이 없어진 경우이다. → 불국사 다보탑이 좋은 예이다. 다보탑은 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리장엄을 탐낸 일본인들이 비밀리에 사리장엄을 꺼내갔고, 수리 보고에 관한 글이 없다

넷째 일본에 불법 반출된 경우이다. → 현재 일본 도쿄의 네즈(根津)미술관 마당에 놓여 있는 고려시대 부도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술한 범종 등이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다. 네즈미술관의 부도는 고려 초의 팔각원당형 부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가 많지 않은 종류다. 또 일본 내에 있는 범종 가운데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신라시대 범종이 있다.

다섯째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국내에 환수된 경우이다. → 경천사 10층석탑이 대표적 사례이다. 경천사 탑은 한때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국내외적으로 비등하자 마지못해서 되돌려 보낸 것이 원위치인 개성까지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송사 석조보살상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있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일환으로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반환협상이 있었다. 이때 총 438점이 국내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강릉 한송사 고려시대 석조보살상과 문경 봉서리 삼층석탑 사리장엄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438점이라는 수 자체가 일본에 불법반출 된 전체 문화재를 놓고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량인데다가 주로 고분출토품이 들어서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

## 우리가 주목할 <간송 전형필(1906-1962)>

세종대왕 , 이순신장군, 안중근의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 민족의 체면을 지켜준 인물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

한 간송 전형필이 있다.

그의 행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종로에서 중추원의관 전영기의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나 휘문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했다.

10만석의 재산을 상속받은 간송은 대학졸업 직후인 25세 때부터 고증학자인 오세창과 교유하며 민족문화재 수집 -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전 재산을 문화재의 일본 유출을 막는데 활용했다.

1938년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을 세워 문화재들을 수장 - 연구 - 복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1940년에 동성학원을 설립하고 보성중학교(종전 보성고보)를 인수하여 육영사업에 착수하였다.

간송의 뜻에 따라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곳 간송미술관에는 국보 72호 계미명 금동삼존불, 국보 70호 훈민정음,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의 작품 등 5천점이 넘는 소장품이 있다. 위치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다.

간송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은 수집에 얽힌 몇 가지 일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존 갯스비라는 영국인이 25년에 걸쳐 수집한 고려자기를 1937년에 내놓았을 적에 일본에 가서 그 전부를 사들인 일이 있었다. 영국인 그는 25세에 일보에 건너와 변호사로 활약했다. 처음에는 일본 도자기에 흥미를 갖기도 했는데, 이후 조선의 고려자기에 매료되어 일본에서뿐 아니라 조선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고려자기를 수집한 것이다. 갯스비가 그것을 내놓은 이유는 1936년에 일본에서 젊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다 실패한 2.26사건이 있어서였다.

1930년에 그는 부도(浮屠) 1기(基)가 일본인에 의해 인천항에서 이미 배에 실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에 내려가 그것을 사들였다. 그것이 지금 간송미술과의 뜰에 있는 보물 579호인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이다.

국보 70호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파는 사람의 부르는 값 보다고 몇 배를 더 주고 구입했고, 간송은 6.25 당시 피난시절에는 다른 것은 서울에 두고 가면서 이것만은 항시 품고 다녔고 베개 속에 넣고 잠을 잤다고 한다.



# 민족운동과 평택 4강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둔 독립운동의 성과

한시준(단국대학교 교수)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둔 독립운동의 성과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

## 차 례

- I. 머리말
- II. ‘국제공동관리’문제 대두와 임시정부의 반대운동
- III. 미·중간의 회담교섭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장개석 면담
- IV. 장개석의 한국독립 제의와 카이로 선언
- V. 맺음말

## I. 머리말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영·중 3국의 정상들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카이로선언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카이로선언에 “위의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독립시킨다는 것으로,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독립의 문’<sup>1)</sup> 아닐 수 없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카이로회의와 선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갖는 중요성만큼이나,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제정치학·정치외교사·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1)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선한약속, 2010.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카이로선언이 갖는 의미를 비롯하여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문제가 들어가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상당한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문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장개석이 주장한 것이고, 장개석을 움직인 것은 주석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를 부정하는 저서와 글이 발표되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독립이 카이로선언에 들어간 것은 의외였다. 신비스럽기조차 한 것이다” “중국은 아니다”라며, 카이로선언은 “루스벨트와 홉킨스의 합작품”이라는 내용의 저서가 발간된 것이다.<sup>3)</sup>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장제스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 도중 한번도 한국문제를 공식 거론한 일이 없다”며, “이승만이야말로 카이로선언의 탄생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한국인 공로자였다”는 글이 발표되고,<sup>4)</sup> 이를 일부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지난 2013년은 카이로선언이 발표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지만,<sup>5)</sup> 그 내용보다는 종전의 연구성과를 뒤집는 저서와 논의가 일부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이로써 카이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 ‘중국에 의한 것’이나 ‘미국에 의한 것’이나, ‘김구의 공로’나 ‘이승만의 공로’나 하는 것으로 비화되는 실정

2)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1999 ; 박명희,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중화민국정부의 태도」, 『동양학』 47, 2010 ;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이외에 중국에서도 梁敬鎔의 『開羅會議』(臺灣商務印書館, 1978)와 楊天石的 『尋眞實的蔣介石 - 蔣介石日記解讀』Ⅱ(華文出版社, 2010)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梁敬鎔의 「開羅會議之背景」(『近代史研究集刊』 제3기, 1972)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3)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선한약속, 2010.

4) 유명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58 - 62쪽.

5)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아시아사회과학원의 주관으로 2013년 7월 24일 카이로선언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대주제 : 카이로선언 정신 구현과 아시아의 평화문제)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 이완범은 「카이로선언의 결정과정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문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장개석의 주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 장개석을 움직인 것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승만의 역할보다는 김구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밝혔다.

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카이로회의와 관련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카이로회의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이런 생각에서 카이로회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카이로회의에 참석하였던 중국의 王寵惠가 작성한 「開羅會議日誌」를 비롯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새로이 발굴할 수 있었다.<sup>6)</sup> 이들 자료에 미국이나 영국측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고, 카이로회의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제의·논의·결정한 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새로이 발굴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카이로회의에서 한국독립문제가 제의·논의·결정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에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임시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한 사실과 미·중간에 회담교섭이 추진되고 있을 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리고 카이로회의에서 누가 한국독립문제를 제의하였고, 한국독립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과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카이로선언이 발표된 과정을 살펴보고 싶다.

6) 劉自勤 編, 『開羅會議全貌』, 1943년 12월 28일. 이는 카이로회의 직후인 1943년 12월 28일 劉自勤이 카이로회의의 전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이는 總統府機要檔案에서 대일항전 시기 외교관계 자료들을 모두 5권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중 제3권에 카이로회의의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다. 이 자료들 중에는 중국군사위원회와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카이로회의에 서 제안할 내용을 준비한 중국의 사전준비를 비롯하여, 국방최고위원회 비서장으로 카이로회의에 참석하였던 王寵惠가 작성한 ‘開羅會議日誌’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II. '국제공동관리' 문제 대두와 임시정부의 반대운동

### 1. '국제공동관리' 문제 대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약칭)가 크게 긴장한 것이 하나 있었다. 국제공동관리 문제였다. '국제공동관리'란 전후 한국을 열강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국제신탁통치를 일컫는 말이다. 이를 임시정부에서는 '국제공동관리'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연합국들 사이에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임시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긴장한 것이다.

국제공동관리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연합국과 전쟁을 추진하는 전략을 비롯하여 전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8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이 아우구스타(Augusta) 함상에서 만나 대서양회의를 한 이래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41년 12월과 다음 해 6월에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1942년 8월에는 소련의 스탈린과 처칠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1943년에 들어와서도 루스벨트와 처칠은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5월에 워싱턴에서, 8월에 퀘벡에서 만났다.<sup>7)</sup>

미국은 연합국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전후 대외정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방안은 대체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국제신탁통치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신탁통치문제가 거론되었다. 1942년 2월 국무부 극동국 관리 랭던이 '한국인들은 반일정서와 독립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기간 열강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sup>8)</sup> 이러한 미국의 방안은 대통령 루스벨트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다. 1942년 11월 '아시아에서 해방된 국가는 자치능력이 부족함으로 교육을 통한 준비기를 거쳐 독립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다.<sup>9)</sup>

7) 梁敬鎔, 「開羅會議之背景」, 『近代史研究集刊』 第3期, 1972, 2 - 3쪽.

8)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 출판부, 2003, 41쪽.

1942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국제신탁통치에 대한 구상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후 대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부 관리와 외교관, 재계인사, 학자, 언론인 등으로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sup>10)</sup> 이 자문위원회가 전후 세계질서의 수립방안을 논의하면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국제신탁통치 문제와 더불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는 내용이 자주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거론된 것은 1942년 중반부터였다. 미국에서 발행되던 《포춘(Fortune)》 《타임(Time)》 《라이프(The Life)》 등의 잡지를 비롯하여, 7월에도 《아시안 매거진(Asian Magazine)》에 전후 한국문제에 대해 국제공동관리 방식이 거론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언론만 아니라 학회에서도 같은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국제학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은 아직 독립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1943년에 들어와 미국과 영국이 전후 한국에 대해 국제공동관리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43년 4월 29일 중국의 각 신문들이 워싱턴 전보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이는 루스벨트와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이 만나 협의한 내용이 신문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영국 외상 이든은 미국을 방문하여 1943년 3월 27일 루스벨트와 회담을 가졌다. 이때 루스벨트가 만주·한국·인도차이나·대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은 전후 국제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든은 이에 찬성하였다.<sup>11)</sup>

루스벨트와 이든이 워싱턴에서 만나 회담한 이후, 그 내용이 신문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4월 27일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The Chicago Sun (太陽報)》가 런던 통신으로 ‘영국 외상과 미국 대통령이 전후 세계기구를

9) 이완범, 「카이로선언의 결정과정에 대한 고찰」, 20쪽.

10)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20쪽.

11)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역사비평사, 1995, 257쪽.

논의하면서 한국은 독립되기 전에 국제공동관리로 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중국 신문들이 이를 워싱턴 전보로 보도한 것이다.<sup>12)</sup>

이상의 예를 든 것과 같이 1942년 이래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국제공동관리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1943년 3월 루스벨트와 영국 외상 이튼이 만나 한국에 대해 국제공동관리를 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은 임시정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 2. 임시정부의 반대운동

임시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에 파견되어 있던 중국 언론의 특파원들이 그 소식을 전해왔고, 이러한 내용들이 《大公報》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신문에도 그대로 보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외무부 정무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기타 방면에서는 작년 3월까지의 통계로 전후 문제를 토론하는公私機關이 199개 단체이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불리한 소식으로는 본년 4월 27일 전보로 발표된 바 시카고 太陽報에서 발표한 英美戰後世界機構建設計劃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관한 이러한 결론을 내리었다. 전후 한국이 독립하기 전에 응당 國際監護下에 두어야겠다고 하였다.<sup>13)</sup>

이는 1943년 10월 외무부가 임시의정원에 보고한 정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임시정부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1943년 3월 루스벨트와 영국 외상 이

12)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 1943년 8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290쪽).

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2007, 64쪽.

든이 만나 국제공동관리 한다는 것을 가장 불리한 것으로 보았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임시정부는 그 내용과 실상을 파악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운동은 외무부로 하여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때, 외무부장 趙素昂이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다. 조소앙은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경에 있는 각 신문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발표하였고, 중경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공보》는 1943년 2월 1일자에 이를 그대로 게재하였다.<sup>14)</sup>

조소앙은 성명서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윌슨 대통령이 누차 민족자결의 원칙을 언급한 바 있는데, 위임통치나 국제공동관리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은 문화·정치·역사 등 모든 면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을 외국인이 대신 관리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셋째는 한국을 국제공동관리에 두는 것은 일종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한국민족은 완전한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난 30년간 혈전을 전개해왔던 것처럼 어떠한 형식이라도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임시정부는 국제공동관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 이어 임시정부는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계기는 루스벨트와 이든 사이에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즉각 국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책은 크게 4가지 였다.

1. 외무부가 중국 외교부에 대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알아보고, 아울러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
2. 미·영·소 각국 원수에게 반대하는 전보를 보내고, 중국 당국자에게는 정식으로 신문에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

14) 《大公報》 1943년 2월 1일자.

3. 선전부에서는 우리측 간행물과 다른 나라의 간행물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반대의사를 방송할 것.
4. 당·정·군 각 수뇌자를 소집하여 그 진상을 보고하고 대책을 토론케 할 것.<sup>15)</sup>

임시정부는 이러한 결의에 따라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반대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외교부 및 각 기관을 방문하여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실상과 그에 대해 중국정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중국의 주요 인사 방문, 각종 성명서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반대운동의 하나로 중국인사들의 지지와 후원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중한문화협회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중한문화협회는 1942년 10월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한 일종의 한중 민간우호 단체였다.<sup>16)</sup> 중한문화협회에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중국의 당·정·군을 비롯한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중한문화협회를 통해 중국측 인사들에게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중한문화협회 주최로 중국 인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943년 5월 9일 ‘전쟁 후의 한국독립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임시정부측에서는 조소앙·김규식·장건상 등이, 중국측에서는 司徒德·胡秋原·程希孟·謝仁釗 등 80여명이 참가하였다. 좌담회는 嚴恒燮의 ‘전후 한국독립문제에 대한 각국의 여론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중한문화협회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중국측 인사들의 반대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중국측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참정회의 호추

15)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 1943년 8월 4일(『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91쪽).

16) 한시준,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10, 383쪽.

원을 비롯한 중국측 인사들은 “한국인들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에 수십년 동안 반일투쟁을 전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한국인민이 남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증거”라거나 “영국과 미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하자는 것은 일본에 침략의 기회를 주는 잘못된 것”이라면서,<sup>17)</sup> 한국에 국제공동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중국측 인사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다음 날에는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재중국자유한인대회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 및 한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3년 5월 10일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한국애국부인회·한국청년회 등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당 및 단체, 그리고 중경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중국자유한인대회가 개최되었다.<sup>18)</sup>

재중국자유한인대회는 대회를 주관하는 주석단을 선출하여 진행하였다. 주석단은 김봉준·김규광·유월파·김순애·한지성 등 각 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였고, 대회를 총괄하는 총주석은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이 맡았다.<sup>19)</sup> 홍진의 주관하에 자유한인대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각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설이 있었다. 조소앙·손두환·박건웅·유월파·방순희·성현원 등이 연사로 나서 “전후 한국은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sup>20)</sup>

각 단체 대표의 연설에 이어 선언문과 결의안, 그리고 각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한국은 마땅히 독립되어야 하고 한국민족은 마땅히 자유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소위 국제감호나 다른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4개 항

17)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中韓文化協會 戰後 韓國獨立問題 座談會 開催」.

18)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在中國自由韓人大會」.

19)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272쪽.

20)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在中國自由韓人大會 要求戰後韓國之完整獨立 反對任何形式之外來干涉」.

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 “전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 우리 국가의 완전 독립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각 동맹국 원수를 향해 “우리 민족이 對日作戰의 주요한 역량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원조와 임시정부의 국제합법적인 지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였다.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임시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한국은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어떠한 형태이든지 국제세력에 의한 간섭이나 통치는 견결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외무부장 명의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미국·영국·소련 등에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경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와 한인들을 동원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 Ⅲ. 미·중간의 회담교섭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장개석 면담

#### 1. 미·중간의 회담교섭

임시정부는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측에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당시 임시정부로서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나 정보력이 없었다. 때문에 중국측을 상대로 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중국의 여러 기관과 인사들을 방문하여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탐문하였다. 외무부의 정무보고에 의하면, 외무부에서는 중국의 외교부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입법원장 孫科와 행정원장 于右任 등을 찾아가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탐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21)</sup> 중국의 외교부·국방최고위원회·입법원·행정원 등의 기관과 인사들을 방문하여 그 책임자들을 만난 것이다.

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66쪽.

신익희는 중국 외교부를 방문하였다. 1943년 5월 6일 외교부를 찾아가 吳國楨 차장에게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후 한국의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sup>22)</sup> 당시 신익희는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이었고, 중국어가 서투른 외무부장 조소앙을 대신하여 외교부를 방문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국제공동관리 문제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회담교섭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회담교섭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제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루스벨트는 1942년 장개석과 宋美齡에게 미국을 방문하도록 요청한 일이 있었다. 장개석은 자신은 가기 어렵다며 송미령만 보냈고, 송미령과 만나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sup>23)</sup> 송미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에서 연설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러 인사들을 만났다. 1943년 6월 송미령은 중국 외교부장 송자문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였다. 이때 루스벨트는 송미령에게 미·영·중·소 4국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sup>24)</sup>

이후 장개석과 루스벨트 사이에 회담문제를 가지고 교섭이 이루어졌다. 장개석은 루스벨트가 회담을 갖고 싶어한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 소련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은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고,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을 회담에 참여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개석은 1943년 6월 7일 미국에 있는 송자문에게 전보를 보내 ‘소련이 일본과 결렬하기 전에 미·영·중·소의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스탈린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sup>25)</sup>

중국과 미국 사이에 회담문제가 진전된 것은 1943년 7월 이후였다. 송미

2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08쪽. 「政情字第68號」

23) 박명희, 「宋美齡과 戰時中國外交-宋美齡의 訪美活動이 중국정치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1, 2011, 151쪽.

24) 李雲漢, 『中國國民黨史述』 第3編,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94, 540쪽.

25)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491쪽. 「蔣委員長自重慶致外交部長宋子文請面見羅斯福總統密商在蘇日未公開決裂以前委員長參加會談是否將使史達林感覺不便電」.

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장개석은 송미령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루스벨트와 만나기로 하였다. 7월 8일 장개석은 부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루스벨트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여러 문제들을 의논하자며, 9월 이후에 만날 것을 제의한 것이다.<sup>26)</sup>

이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 회담장소와 참석대상자 및 시기를 두고 교섭이 오갔다. 회담장소로는 알래스카와 이집트 등이 거론되었고, 처칠과 스탈린도 참석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몇 달 동안 교섭이 이루어졌다.

결론이 난 것은 11월에 들어서면서였다. 11월 1일 루스벨트가 장개석에게 장소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리고 루스벨트·처칠·장개석 세 사람이 만나자고 한 것이다.<sup>27)</sup> 중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영·중 3국의 영수들이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게 되었다.

## 2. 임시정부 요인들의 장개석 면담

임시정부에서는 중국측에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탐문하면서 루스벨트와 장개석간의 회담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임시정부는 장개석을 만나고자 하였고, 당시 중국국민당 조직부장으로 한국담당자인 吳鐵城을 통해 장개석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장개석과의 면담이 마침내 성사되었다. 1943년 7월 26일 오전 9시 주석 金九, 외무부장 趙素昂, 선전부장 金奎植, 광복군 총사령 李青天, 부사령 金元鳳 등 임시정부 요인 5명이 통역 安原生을 대동하고, 군사위원회 2층 접견실에서 장개석과 만났다. 당시 장개석의 공식직함은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중국에서는 중국국민당 조직부장 吳鐵城이 배석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만나고자 한 데는 목적이 있었다. 미국과 영

26)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492쪽. 「蔣委員長自重慶致美國總統羅斯福建議相晤時間以九月以後最爲適宜電」.

27)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495쪽. 「美國總統羅斯福自華盛頓致蔣委員長希望委員長能決定於11月26日與邱吉爾首相及羅斯福總統會晤開羅附近之處電」.

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대해,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임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즉각 독립을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측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장개석이 만나 나눈 대화를 기록하여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라는 제목으로 남겨 놓았다.

총재 :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은 조선과 태국의 완전 독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한국혁명 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노력 분투하여 복국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김구·조소앙 : 영국과 미국은 조선의 장래 지위에 대해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중국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 : 영국과 미국 쪽에서는 확실히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爭執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한국 내부의 精誠統一과 工作表現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도 力爭할 수 있고, 이 일에 착수하기도 쉬울 것입니다.<sup>28)</sup>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을 찾아가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공동관리 문제에 현혹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장개석은 비교적 명쾌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완전 독립을 돕겠다는 것,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이지만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싸우겠다’고 한 것이다.

장개석은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세력들에 여러 당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한국혁명 동지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복국운동을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2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대중국 외교활동), 238 - 239쪽 ; 대한매일신보사, 『白凡金九全集』 5, 1999, 251 - 252쪽.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이 단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장개석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일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조선혁명당 영수 김구 등을 만났다. 그들한테 내부 단결에 힘써 달라고 권하고 격려하였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려 하고 있는 전후 조선 독립 주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했다.<sup>29)</sup>

이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난 바로 그날 장개석이 일기에 적어 놓은 내용이다.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싸우겠다’고 한 약속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무렵 장개석은 루스벨트와 회담을 갖기로 하고, 그 시기와 장소 문제를 가지고 교섭하던 중이었다. 루스벨트와 만날 때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파되어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김구 등에게 그것을 당부한 것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을 면담하고,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겠다는 ‘약속’에 크게 고무되었다. 장개석을 면담하였던 김규식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과 면담한 사실과 그 내용을 8월 5일 미주교포들에게 방송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당시 김규식은 임시정부의 선전부장이었다. 김규식은 라디오를 통해 미주교포들에게 “7월 26일의 사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면서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하였다.

국민당 비서실장 오철성 장군의 도움으로 김구·조소앙·이청천·김약산(김원봉) 그리고 저 이렇게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의 요인들이 장개석 총통과 면담할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29)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7쪽.

장개석 총통과 면담 중 나온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장개석 총통은 “한국은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독립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 혁명운동의 지도자들이 조속히 통일을 이루어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큰 통일을 이루어 활동하는 것이 내가 희망하는 바이며, 이것은 중국정부의 분명한 정책이자 나의 개인적 입장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sup>30)</sup>

이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면담한 사실, 장개석이 전후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특별히 조선민족혁명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선전부장이면서 조선민족혁명당의 주석을 맡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동시에 한국독립당과 더불어 주요 독립운동 세력이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을 향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종용한 것이기도 하였다.

#### IV. 장개석의 한국독립 제의와 카이로선언

##### 1. 카이로회의에 대한 중국측의 사전준비

중국은 카이로회의를 앞두고, 카이로회의에서 중국이 제의할 문제들에 대해 사전준비를 하였다. 사전준비는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軍事委員會參事室과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에서 각각 별도로 중국이 제안할 준비사항을 정리하였고, 이를 장개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두 곳에서 준비한 사항은 카이로회의에서 중국이 무엇을 제안할 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담겨져 있다.

군사위원회와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에 모두 ‘한국의 독립문제’가 들어가 있다. 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에 대한 反攻戰略 설비와 遠東의 여러 문제에 관한 토론, 둘째는 일본이 무조건투항할 때 접수해야 하는 조항, 셋째는 전후의 중요 문제에 관

30) 『백범김구전집』 5, 266쪽. 「Radio Broadcast Message to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Hawaii and the Mainland U.S.A.」

한 것이었다.<sup>31)</sup> 이 중 한국의 독립 문제는 세 번째인 ‘일본이 무조건투항할 때 접수해야 하는 조항’에 들어 있다. 이 조항은 모두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7항목에 “承認朝鮮獨立”이라고 한 것이다.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에도 ‘한국의 독립’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작성한 준비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다. 「戰時軍事合作方案」 「戰時政治合作方案」 「戰後中美經濟合作方案」이 그것이다.<sup>32)</sup> 이 중 ‘한국의 독립’에 대한 것은 「戰時政治合作方案」에 들어 있다. 이는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제일 첫 번째 항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중국이 한국독립문제를 먼저 제안하는 데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중·미·영·소는 즉시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거나 조선의 전후 독립을 보장하는 선언을 발표한다. 기타 연합국가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설명 : 조선의 독립을 즉시 승인하거나 혹은 전후 조선의 독립을 보증하는 것에 관하여.

소련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은 인도문제에 끼칠 영향으로 인해 이에 대해 틀림없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소련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정형하에서 만일 중국이 단독으로 승인한다면 앞으로 세계인과 더불어 동맹국가로서 분열되는 나쁜 인상을 줄 것이니, 이것이 단독으로 승인하는 단점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소련의 충돌이 언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소련정부가 혹은 우리보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소련이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소련보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아울러 현재 중경에 있는 조선혁명정부와 관계를 발생시킨다면, 앞으로 소련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 해도 조선정

31)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498 - 499쪽. 「軍事委員會參事室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中我方應提出之問題草案」,

32)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03 - 506쪽. 「國防最高委員會秘書廳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準備在開羅會議中提出之戰時軍事合作, 戰時政治合作及戰後中美經濟合作等三種方案」,

부와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는 불편한 것이 있다, 이것이 단독으로 승인하는 이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조선혁명정부를 승인하는 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할 것이니, 적당한 시기에 먼저 승인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3)</sup>

중·미·영·소가 즉시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도록 하거나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중국이 한국독립문제를 제안할 경우, 소·영·미가 보일 반응과 그것이 중국에 미치는 장단점을 언급하였다.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로 한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은 인도문제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과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또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련이 먼저 한국의 독립을 제안할 경우도 있으니, 장차 한국과의 문제를 고려하면 중국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장개석의 일기에도 한국의 독립을 제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개석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주요 사항, 그 날 해야 할 일, 그 날 한 일을 비롯하여, 금주 해야 할 일과 반성록 등을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 카이로에 도착한 이후의 일기에도 장개석은 루스벨트와 처칠을 만나 제안할 내용들을 적어 놓았는데, “전후 한국의 완전 독립과 자유”라는 조목을 빼놓지 않고 적어 놓았으며, 회담에 임하기 직전인 22일자 일기에도 ‘금주의 주요 예정 업무 요강’에 회담에서 제안할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후 조선의 독립”이었다.<sup>34)</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카이로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사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에도,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에도, 그리고 장개석의 일기에도 모두 ‘한국의 독립’ 문제를 포함시

3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04 - 505쪽, 「戰時政治合作方案」.

34)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8쪽.

키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장개석은 카이로회의에서 루스벨트에게 한국의 독립을 제의하게 된 것이다.

## 2. 장개석의 한국독립 제의와 초안 작성

카이로회의는 미·영·중 3개국 원수가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장개석이었다. 장개석은 11월 21일 오전 7시 5분 카이로 교외 Paynefield공항에 도착하였고, 첸놀트(陳納德) 장군과 미제9항공대 장교들의 영접을 받았다.<sup>35)</sup> 그리고 카이로 서남쪽 나일강 서안에 있는 메나(米納, Mena)호텔에 도착하여 제1호실에 숙소를 정하였다. 이어 21일 오후 3시 반에 처칠이,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루스벨트가 각각 도착하였다.

카이로에 도착한 3국 영수들은 정식회의에 앞서 만남을 가졌다. 처칠이 도착 직후 장개석에게 만남을 제의하였고, 21일 오후 6시에 장개석과 처칠은 왕총혜 비서장과 마운트배튼(Lord Louis Mountbatten) 경이 배석한 가운데 만나 약 30분간 담화를 나누었다.<sup>36)</sup> 이어 장개석과 루스벨트도 만났다. 22일 오후 5시에 장개석이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스벨트를 내방하여 만남을 가졌다. 이는 공식회의가 아니라 개별적인 인사차원의 만남이었다.

카이로회의의 공식회의는 23일에 개최되었다. 23일 오전 11시 루스벨트 숙소에서 루스벨트·처칠·장개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제1차 정식회의였다. 이후 오후부터 군사부문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3국의 실무담당자들 사이에 회담이 이어졌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영·중 3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즉 대일작전에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한국문제가 논의된 것은 11월 23일 저녁이었다. 이 날 저녁 7시 반 장개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스벨트 숙소를 찾아가 저녁 만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개석과 송미령,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 홉킨스 등 4명이 참석하였고, 시간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이때 장개석은 일본이 패망하면 일

35) 梁敬鎔, 『開羅會議』, 81 - 82쪽.

36)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10쪽.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본이 차지한 만주와 대만·펑호도는 중국에 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일본이 차지한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 귀환하도록 한다.
2. 태평양상에서 일본이 강점한 島嶼들은 영구히 박탈한다.
3.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 독립을 획득하도록 한다.<sup>37)</sup>

이는 왕총혜가 작성한 카이로회의 일지에 들어 있는 것으로,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회담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기록해 놓은 것이다. 미국측에는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만찬에서 협의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측에는 왕총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 장개석도 자신의 일기에서 루스벨트에게 한국독립문제를 제의하였음을 기록해 놓았다. 장개석은 11월 24일자 일기에 “어제 일을 계속 적는다”고 하면서, 23일 밤 루스벨트와 나눈 이야기를 10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적었는데, 그 중 7번째 항목에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조선독립 문제에 대해 나는 특별히 루스벨트의 중시를 끄는 데 힘을 넣었다. 나는 루씨한테 (조선문제에 관한) 나의 주장에 찬동하고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sup>38)</sup>

장개석은 11월 23일 루스벨트 숙소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제의하였고, 루스벨트는 이에 동의하였다.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다.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소위 카이로선언의 초안이 작

37)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28쪽.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38)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 사료」,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8쪽.

성되었다. 장개석과 만찬을 가진 후 루스벨트는 그의 특별보좌관 홉킨스에게 장개석과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sup>39)</sup> 루스벨트의 지시를 받은 홉킨스는 초안을 작성하였다. 홉킨스가 초안을 작성한 과정은 미국측 기록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홉킨스는 24일 오후 루스벨트 숙소의 조용한 일광욕실로 백악관 문서기록관인 코넬리우스(Albert M. Cornelius)를 불러, 자신이 구술하는 내용을 타이프로 받아 적으라고 하였다. 당시 홉킨스는 아무런 문서나 쪽지를 갖지 않은 채 초안을 부르기 시작했고, 코넬리우스는 이를 타이프로 정리하였다고 한다.<sup>40)</sup>

코넬리우스가 타이핑한 것을 홉킨스가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홉킨스가 마련한 초안에는 한국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반역적인 한국인의 노예화를 잊지 않으면서 일본패망이 있는 후 한국을 가능한 가장 빠른 순간에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다.<sup>41)</sup>

홉킨스는 자신이 일부 수정한 것을 코넬리우스에게 다시 타이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한 것을 루스벨트에게 제출하였다. 루스벨트는 이를 검토하고 5곳 정도 문장을 빼거나 단어를 바꿨다.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에(at the possible earliest momen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절한 순간(at the proper moment)’으로 고쳤다.<sup>42)</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이 완성되었다.

### 3. 한국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카이로선언

장개석과 루스벨트가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39)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28쪽. “羅總統遂命霍布金斯根據討論之內容起草公報”.

40)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30 - 31쪽.

41)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32쪽.

42)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37쪽.

초안은 이후 미·영·중 사이에 다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파란이 일어났고, 많은 부분이 수정된 후 카이로선언으로 발표되었다. 논란과 파란이 되었던 문제의 하나는 한국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초안은 먼저 중국측에서 검토하였다. 초안을 작성한 홉킨스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초안 1부를 가지고 와 송미령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왕충혜와 더불어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개할 의견이 있으면 다음 날 오전 회담을 할 때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왕충혜는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장개석에게 보여주었다. 장개석은 ‘澎湖島’가 ‘小笠原島’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sup>43)</sup> 장개석은 초안에 대해 비교적 만족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표가 루 총통이 작성한 회의 성명서 초안을 가지고 와 부인한테 건네며 내 뜻을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그 안의 모든 사항이 완전히 전날 밤 내가 루 총통한테 제기한 요지 그대로임을 알고 마음속 깊이 루씨가 중국에 대한 성심성의를 자세와 정신을 알 수 있었다.<sup>44)</sup>

이는 장개석의 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자신이 초안을 검토한 사실과 그에 대한 감상을 적은 것이다. 장개석은 초안에 자신이 전날 저녁 루스벨트와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루스벨트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홉킨스가 가지고 온 초안에는 한국문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日本對朝鮮人民之奴隸待遇 吾人初未忘懷. 日本潰敗後 於適當時期 吾人決定使朝鮮成爲一自由與獨立之國家.<sup>45)</sup>

4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28쪽.

44) 이상철, 「장제스, “전후 한국의 완전독립과 자유” 다짐」, 《월간조선》 2010년 11월호, 538 - 539쪽.

45)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29쪽.

(일본이 조선인민에 대해 노예대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일본이 패망한 후 적당한 시기에 우리는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 독립의 국가가 되도록 결정한다)

중국에 이어 영국도 초안을 검토하였다. 영국이 홉킨스로부터 초안을 건네 받은 것은 11월 25일 오전이었다. 영국이 중국보다 늦게 초안을 받게 된 것은 영국 외상 이든(Anthony Eden)과 차관 카도간(Alexander Cadogan)이 11월 24일 카이로에 도착한 때문이었다. 영국측은 초안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초안이 중국측에 먼저 전달되었다는 점도 그렇고, 내용도 유럽전쟁 보다 중국에 주는 선물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도 그랬다. 영국은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도서들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령했거나 차지한 것’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sup>46)</sup>

초안을 가지고 3국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11월 26일이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중국의 왕총혜, 영국의 카도간, 그리고 미국에서 주소미국 대사 해리만이 참석하였다. 이때 한국의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파란이 일어났다. 영국측이 한국문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영국은 초안에 들어있는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되게 한다(成爲一自由與獨立之國家)”는 내용 대신에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脫離日本之統治)”로 고치자는 것이었다.<sup>47)</sup>

이러한 영국측의 수정제의에 대해 중국의 왕총혜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왕총혜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병탄되었고, 일본의 대륙정책은 한국을 병탄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단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과 “선언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및 원동방면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sup>48)</sup> 왕

46)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46 - 49쪽.

47)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30쪽.

48)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532쪽.  
“王秘書長對此表示不贊成 聲稱朝鮮原由日本侵略併吞 而日本之大陸政策即由吞併朝鮮而開始 僅言「脫離日本之統治」 而不言其他 則祇爲將來留一重大之問題 殊非得計 宜於此時決定將來自由獨立之地位 並爲公報中關於此點 在中國及遠東方面視之 甚爲重要”.

총혜가 강력히 반대하자, 영국도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카도간은 “영국은 내 각에서 한국독립에 대해 토론한 일이 없다”, 그리고 “소련의 한국독립 문제에 대한 태도와 반감에 대해 의견을 나눈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한국독립에 관한 것을 모두 빼버리자”고 한 것이다.<sup>49)</sup> 영국측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초안에서 한국독립 문제를 완전히 빼버릴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한국독립 문제를 두고 중국과 영국 사이에 대립과 파란이 일어났다. 이를 수습한 것은 주소미국대사 해리만이었다. 해리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견으로 볼 때 한국독립 문제에 대해서 소련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히 소련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sup>50)</sup> 루스벨트의 의견이란, 11월 23일 만찬에서 장개석이 제의한 한국의 자유와 독립에 동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측이 중국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초안에 있는 그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왕총혜· 카도간· 해리만 3인의 실무자들은 협의를 마친 후, 3국 영수들이 회담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당시 3국 정상들은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있었다. 회의장에는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과 송미령이 참석해 있었다. 3인의 실무자들은 정상들 앞에서 자신들이 협의한 초안의 내용을 낭독하였다. 한국독립 문제에 이르렀을 때, 루스벨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련의 의견을 헤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낭독을 마치자 3영수는 모두 찬성한다고 하였다.<sup>51)</sup> 이로써 한국독립 문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3국 영수들의 찬성으로 카이로선언이 채택되었다.

49)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쪽. “賈德幹次長謂關於朝鮮問題 英內閣前此並未討論 英係內閣制 若未經閣議而在此間決定 殊為不宜 且蘇聯對此問題之態度與反感 事前未與接洽 無從知悉 事宜顧及 故如不能照修正案更改 轉不如全段刪去也.”

50)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쪽. “哈立曼旋謂照羅斯福總統之意見 此一問題似與蘇聯無甚關係 殊不必與蘇聯商量”.

51)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3編 戰時外交(3), 532 - 533쪽. “其時三領袖及蔣夫人正在會談中 上述商談會議公報草案之各員即前往參加 將最後稿朗讀一次 讀至關於朝鮮一段 羅斯福總統謂蘇聯對於此點 諒無意見 讀畢 三領袖贊成 遂作為定稿”.

11월 26일 카이로선언이 채택되었지만, 곧바로 발표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카이로회의에 이어 테헤란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1월 27일 장개석은 중국을 향해 떠났고, 루스벨트와 처칠도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테헤란으로 떠났다. 테헤란회담에서 카이로선언을 확인한 스탈린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였다.<sup>52)</sup> 이로써 카이로선언은 미·영·중·소 4개국 영수들의 동의를 얻어 12월 1일 대내외에 발표되었다.

임시정부는 카이로선언이 발표된 당일 날 그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그 기쁨을 형언할 수 없다’며, 즉각 주석 김구 명의로 ‘3국 영수에게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開羅에서 개최된 3국회의에서 일본을 타도한 후 한국의 독립 자유를 보증한다는 공보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유쾌는 형언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3·40년간 혈전고투하던 3천만 한인의 전도의 광명을 전망하고 비상히 감분되는 바이다. 나는 3천만동포를 대표하여 3영수에게 만공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에 무조건으로 투항할 때까지 동맹국의 승리와 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최후까지 동맹국과 공동분투할 것을 확보한다.<sup>53)</sup>

이 담화문은 12월 2일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를 통해 발표되었다. 여기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리고 3·40년간 혈전고투한 3천만 한국인의 앞날에 광명을 안겨준 것이라며 감격해 한 임시정부의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임시정부는 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2일자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를 발간하여 카이로회의에서 미·영·중 3국이 한국의 독립 자유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공포한 것이다.

52) 梁敬鎔, 『開羅會議』, 149쪽.

53)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43년 12월 2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99쪽).

## V. 맺음말

카이로선언은 미·영·중 3국 정상들이 회의를 갖고, 그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는 미·영·중 3국의 자료를 섭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미국과 영국의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종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한 중국 측의 자료를 통해 카이로회의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제의·논의·결정된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에도 카이로회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중 카이로 회의 직후인 1943년 12월 劉自勤이 펴낸 『開羅會議全貌』, 그리고 1981년 秦孝儀가 편찬한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제3편 戰時外交(3)에 들어 있는 「開羅會議」와 王寵惠가 작성한 「開羅會議日誌」 등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한 새로운 자료이다. 특히 후자는 總統府機要檔案을 정리한 것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들 자료에는 루스벨트와 장개석이 회담을 교섭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중국이 회의를 준비한 내용,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 명단, 카이로회의 일정 및 논의과정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카이로회의는 1943년 6월 루스벨트의 제의에 의해 비롯되었다. 이후 루스벨트와 장개석 사이에 회담장소·참석자·시기 등을 두고 교섭이 이루어졌고,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회의를 앞두고 군사위원회와 국방최고위원회에서 각각 회의에서 제안할 내용들을 준비하였다. 두 곳에서 별도로 작성한 준비사항에 모두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안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개석도 회의에 임하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주요 사항으로 기록해 놓았다. 중국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카이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었다.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의한 것은 장개석이었다. 장개석은 11월 23일 저녁 부인 송미령과 함께 루스벨트 숙소를 찾아가 만찬을 가졌다. 여기서 일본이 차지한 만주·대만·펑호도 등의 영토는 중국에 반환한다는 것과 더불어

어 일제가 패망하면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루스벨트는 이에 동의하였다.

초안은 홉킨스가 작성하였다. 루스벨트는 그의 보좌관 홉킨스에게 장개석과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홉킨스는 백악관 문서기록관 코넬리우스를 불러 초안을 만들었다. 홉킨스는 이를 루스벨트에게 보여주고 수정을 받았다. 그리고 11월 24일 오후 초안을 가지고 와송미령에게 건넸고, 왕충혜에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음 날 회담 때 제출해달라고 하였다. 왕충혜는 초안을 번역하여 장개석에게 보여주었다. 장개석은 전날 루스벨트와 협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영국측은 늦게 도착한 관계로 11월 25일 홉킨스로부터 초안을 받았다.

초안을 가지고 3국 실무자들이 협의한 것은 11월 26일 오후였다. 중국의 왕충혜, 영국 외무차관 카도간, 미국에서 주소미국대사 해리만이 참석하여 초안을 두고 협의를 가졌다. 여기서 ‘한국독립’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영국측이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한다’는 문구 대신에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로 고치자고 한 것이다. 왕충혜가 강력히 반발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병탄되었고, 일본의 대륙정책은 한국을 병탄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선언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 및 원동방면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논리였다.

논란은 격렬했다. 영국측이 ‘내각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한 일이 없다’는 것과 ‘소련의 태도와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한국독립에 관한 문구를 모두 빼버리자’고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독립문제를 두고 중국과 영국 사이에 대립과 파란이 일어났다. 이를 수습한 것은 해리만이였다. 그는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소련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소련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논란 끝에 초안대로 하기로 하였다.

협의를 마친 3국의 실무자들은 곧바로 루스벨트·처칠·장개석·송미령이 회담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3국 영수 앞에서 초안을 낭독하였다. 한국독립문제에 이르자 루스벨트는 ‘소련의 의견을 헤아릴 것 없다’고 하였고, 3국 영수들이 모두 동의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카이로선언이 채택되었고, 그 안에

한국독립문제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카이로회의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개석이었고, 루스벨트가 이에 동의하여 실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개석은 어떻게 해서 한국독립문제를 제안하였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에는 주석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역할이 있었다. 임시정부는 1942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개석이 루스벨트와 회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개석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1943년 7월 26일 장개석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주석 김구를 비롯하여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이 통역 안원생을 대동하고 장개석과 만났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에게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는 국제공동관리에 대해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개석은 ‘한국의 완전 독립을 돕겠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써 싸우겠다’고 하였다.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카이로회의에서 루스벨트에게 한국의 독립을 제의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카이로선언은 ‘루스벨트와 홉킨스의 합작품’ ‘중국은 아니다’는 것은 미국 측 자료만 근거로 한 데서 나온 잘못된 결론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공로자는 이승만’이라고 덧붙인 것은 올바른 학문적 태도라 하기 어렵다.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다.



# 민족운동과 평택 5강

종교는 어떻게 민족운동을 참여하였나

성주현(송실대학교 교수)



천도교중앙대교당



# 종교는 어떻게 민족운동을 참여하였나

성주현 송실대학교 교수

## 차 례

- I. 종교의 의미
- II. 종교와 민족
- III. 한국 종교와 민족주의의 형성
- IV. 3.1운동과 종교
- V. 3.1운동 당시 천도교 네트워크
- VI. 3.1운동 당시 기독교 네트워크
- VII 불교와 3.1운동\_김법린 회고
- VIII 일제강점기 종교의 동향과 민족운동
- IX 평택지역 종교와 민족운동

## I. 종교의 의미

- 어학사전 :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 종교의 형태 :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 종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가 있음
- 종교의 영역 : 순수 신앙(기복, 구도 등), 사회 활동(복지, 교육 등), 정치

활동(통치이데올로기, 정당, 사회변혁 등) 등

## II. 종교와 민족

- 보편 종교 : 모든 민족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데, 세계 3대 종교인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가 대표적
  - 민족 종교 : 특정한 민족과 그 문화에 밀착되어 있고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포교. 유대교와 힌두교가 대표적
  - 한국 민족 종교 : 한말에 형성, 동학(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 일본의 경우 : 신도, 천리교, 금광교, 흑주교 등
- \* 강점에 대한 일본 종교의 인식
- 불교(조동종: 축하칙서 발표, 승려를 모아 축하식 거행)
  - 기독교(조합교회) : ‘한일 양국민의 행복을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 ‘동화를 촉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 ‘조선인 전도의 기본목표를 “조선인을 제국의 忠良한 臣民”으로 만드는 것’
  -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대한 인식 : ‘正義를 위한 戰爭’, ‘神國建設을 위한 聖戰’
  - 海老明彈正 : “한국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겨다준 성가신 나라이다. 한때 정한론이 비등하여 국내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일청전쟁과 일러전쟁도 한국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작은 일들을 나열하자면 하나 둘이 아니다. 참으로 성가신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동양의 맹주인 이상, 어떠한 커다란 부담을 지더라도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일본이 없다면 동양의 천지는 암흑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일본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이나 부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일

러전쟁 후 한국은 우리의 보호국이 되었으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 Ⅲ. 한국 종교와 민족주의의 형성

- 기독교 : 종교입국론, 한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독교를 통해 민족 구원  
← 서구의 ‘근대화=문명화=선진국’이라는 의식이 크게 작용, 윤치호, 이승만 등
- 불교 : 전통종교화로 인한 민족의식 향유 → 한용운, 백용성 등
- 천도교 : 반외세, 반침략, 반제국 주장 → 최제우, 최시형, 전봉준, 손병희 등
- 유교(성리학) : 위정척사사상에 입각한 위정척사운동 전개 → 최익현 등
- 개신유학 : 근대문명 수용에 따른 애국계몽운동 전개 → 장지연 등
- 대종교 : 단군 신앙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 나철, 오기혁 등

### Ⅳ. 3.1운동과 종교

- 참여 종교 : 천도교, 기독교, 불교 3개 종단
- 종교의 연대를 통한 민족운동
- 일부 기독교인 민족대표 선정과정에서 천도교는 이단이므로 연대할 수 없다고 참여거부

### V. 3.1운동 당시 천도교 네트워크

대교구	관할교구 및 직접전실	비고	수
경성부 대교구	경성부교구, 용산교구, 파주군교구, 파주군 교하전교실, 양주군 묵은면전교실, 양주군 하도면전교실	경기	7

수원군 대교구	수원군교구, 진위군교구, 시흥군교구, 부천군교구, 인천부 교구, 강화군교구, 용인군교구, 안성군교구, 광주군교구, 수원군 남양교구	경기	10
이천군 대교구	이천군교구, 여주군교구, 양평군교구	경기	3
서산군 대교구	서산군교구, 홍성군교구, 서산군 태안교구, 당진군교구	충남	4
청주군 대교구	청주군교구, 음성군교구, 연기군교구, 영동군 황간교구, 진 천군교구, 충주군교구, 대전전교실, 공주군 신상면전교실, 공주군 동부면전교실	충북	9
평양부 대교구	평양부교구, 용강군교구, 강서군교구, 평원군 순안교구	평남	5
강동군 대교구	강동군교구, 강동군 삼등교구, 순천군 자산교구	평남	3
성천군 대교구	성천군교구, 순천군 은산교구, 양덕군교	평남	3
안주군 대교구	안주군교구, 평원군교구, 평원군 숙천교구, 개천군교구, 순 천군교구	평남	5
중화군 대교구	중화군교구, 중화군 상원교구, 황주군교구	평남	3
덕천군 대교구	덕천군교구, 영원군교구, 맹산군교구	평남	3
의주부 대교구	의주부교구, 용천군교구	평북	2
초산군 대교구	초산군교구, 벽동군교구, 위원군교구, 서변상계교구, 서변 하계교구	평북/ 만주	5
삭주군 대교구	삭주군교구, 창성군교구	평북	2
정주군 대교구	정주군교구, 정주군 광산교구, 박천군 가산교구	평북	3
선천군 대교구	선천군교구, 철산군교구	평북	2
구성군 대교구	구성군교구, 태천군교구	평북	2
영변군 대교구	영변군교구, 운산군교구, 박천군교구, 희천군교구	평북	4
강계군 대교구	강계군교구, 후창군교구, 자성군교구, 임강현전교실	평북/ 만주	4
함흥군 대교구	함흥군교구, 정평군교구, 장진군교구,	함남	3
영흥군 대교구	영흥군교구, 고원군교구, 문천군교구, 덕원군교구, 안변군 전교실	함남	5

북청군 대교구	북청군교구, 흥원군교구, 이원군교구, 단천군교구, 갑산군교구, 풍산군교구	함남	6
경성군 대교구	경성군교구, 성진군교구, 길주군교구, 명천군교구, 종성군교구, 온성군교구, 무산군교구, 북간도교구	함북/ 만주	8
장성군 대교구	장성군교구, 담양군교구, 광주군교구, 곡성군 창평교구, 나주군 남평교구, 고창군 무장교구	전남	6
순천군 대교구	순천군교구, 고흥군교구, 광양군교구, 보성군교구, 구례군교구, 곡성군교구, 여수군전교실	전남	7
강진군 대교구	강진군교구, 해남군교구, 장흥군교구, 무안군교구, 진도군교구, 완도군교구, 무안군 도초도교구, 무안군 장산교구, 영암군교구	전남	9
전주군 대교구	전주군교구, 전주군 고산교구, 진안군교구, 장수군교구, 김제군 금구교구, 임실군교구, 순창군교구, 남원군교구	전북	8
익산군 대교구	익산군교구, 논산군 은진교구, 익산군 여산교구, 익산군 함열교구, 옥구군교구, 김제군교구, 김제군 만경교구, 정읍군 고부교구, 정읍군 태인교구, 부여군교구, 논산군 연산교구, 논산군교구	전북/ 충남	12
서흥군 대교구	서흥군교구, 곡산군교구, 수안군교구, 신계군교구, 금천군교구, 평산군교구, 봉산군교구	황해	7
안악군 대교구	안악군교구, 연백군교구, 해주군교구, 웅진군교구, 송화군교구, 신천군교구, 재령군교구, 장연군교구, 웅진군 강르여교구	황해	9
대구부 대교구	대구부교구, 성주군교구, 경주군교구, 영천군교구, 안동군교구	경북	5
진주군 대교구	진주군교구, 울산군교구, 함양군전교실, 마산부전교실, 고성군전교실, 사천군교구, 합천군교구, 통영군전교실	경남	8
춘천군 내교구	춘천군교구, 홍천군교구, 가평군교구, 양구군교구, 화천군교구	강원	5
평강군 대교구	평강군교구, 연천군 삭령전교실, 철원군교구, 이천군 안협교구, 이천군교구, 금천군 토산교구, 김화군교구, 김화군 금성교구, 회양군교구	강원/ 황해	9
횡성군 대교구	횡성군교구, 원주군교구, 평창군교구, 정선군교구, 강릉군전교실, 삼척군교구, 양양군전교실	강원	7
계			193

- 3·1운동 당시 중앙에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교구에서 교구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인을 동원하는 등 지방에서 전개된 3·1운동에서 중심적 역할
- 천도교 지방교구의 3·1운동 참여 현황

지역	3.1운동에 참여한 천도교 교구	비고
평남	평양, 덕천, 양덕, 성천, 평원, 강서, 중화, 진남포, 맹산, 용강, 강동, 숙천, 순천, 은산, 안주, 영원, 개천	17
평북	의주, 선천, 용천, 철산, 구성, 정주, 운산, 창성, 강계, 자성, 초산, 벽동, 삭주, 위원, 영변, 태천	16
함남	함흥, 원산, 정평, 단천, 북청, 홍원, 이원, 풍산, 갑산, 삼수	10
함북	성진, 길주, 경성, 부령, 온성	5
황해	수안, 곡산, 사리원, 토산, 재령, 해주, 안악, 은율, 검이포, 송화, 연백, 신천, 평산, 장연, 서흥, 황주, 신계, 용진	18
경기	경성, 수원, 인천, 광주, 양주, 가평, 여주, 이천, 용인, 평택, 시흥, 부천, 강화, 양평	14
강원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정선, 삼척, 화천, 철원, 평강, 양구, 양양, 이천, 회양	13
경남	부산, 진주, 울산, 고성, 함양, 창녕, 영산, 창원	8
경북	대구, 경주, 안동, 김천, 성주	5
충남	대전, 논산, 부여, 청양,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아산, 공주	10
충북	청주,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7
전남	장흥, 완도, 진도, 강진	4
전북	전주, 임실, 남원, 순창, 강경	5
국외	집안, 장백, 화룡, 훈춘, 국자가, 해삼위	6
계		138

• 천도교 태천교구의 사례

- (1) 사전에 기독교 측과 연락할 것
- (2) 각 면 전교사는 미리 교인을 동원하여 그날 정오 이전에 읍내 부근에 잠복하였다가 정오가 되면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 중심지로 모여들 것
- (3) 읍내에서는 씩씩한 청년 한 사람을 큰 기를 들러 선두에 세우고, 첫 소리를 치게 할 것(고신봉 씨를 선정)
- (4) 교구 임원과 각면 전교사는 왜경에게 체포될 각오를 하고 교무에 지장이 없도록 후임을 내정할 것

VI. 3.1운동 당시 기독교 네트워크

선교회	선교부	관할 지역	비고
미국 북장로 회	서울	서울, 고양, 파주, 교하, 양근, 광주, 과천, 용인, 양지, 진위, 양성, 안성, 시흥, 김포, 죽산, 통진, 지평, 양주	19
	청주	청주, 연풍, 문의, 영동, 회인, 청산, 보은, 청안, 옥천, 황간, 괴산	11
	대구	대구,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달성, 고령, 성주, 김천, 포항	10
	안동	안동, 의성, 영덕, 울릉, 영주, 예천, 상주, 문경, 영양	9
	평양	평양, 안주, 속천, 영유, 순안, 강동, 자산, 삼등, 중화, 상원, 영원, 덕천, 개천, 순천, 은산, 맹산, 성천, 강서, 용강, 증산	20
	재령	재령, 봉산, 수안,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평산, 서흥	14
	선천	선천, 정주, 박천, 의주, 용천, 철산, 광산, 가산, 삭주, 박천, 구성	11
미국 남장로 회	강계	강계, 창성, 초산, 위원, 자성, 후창	6
	군산	군산, 대전, 부여, 목천, 서천, 보령	6
	목포	목포, 나주, 해남, 신안, 영암, 강진, 제주	7
	전주	전주, 익산, 김제, 남원, 임실, 무주, 금산	7
	광주	광주, 광산, 장성, 곡성, 화순	5
호주 장로회	순천	순천, 여수, 고흥, 광양, 구례	5
	부산	부산, 양산, 동래, 밀양, 김해	5
	마산	마산, 창원, 창녕, 함안, 통영	5
	진주	진주, 사천, 고성, 남해	4
캐나다 장로회	거창	거창, 합천, 함양, 산청	4
	원산	원산, 문천, 덕원, 인변, 고원, 영흥	6
	함흥	함흥, 정평, 함주, 이원, 갑산, 삼수	6
	성진	성진, 길주, 명천, 경성, 청진, 무산	7
미국 감리회	회령	회령, 경흥, 나진, 종성, 경성, 온성, 옹기	8
	서울	서울, 고양, 양천	3
	인천	인천, 교동, 강화, 부평, 옹진	5
	수원	수원, 안산, 남양, 여주, 이천, 광주, 음죽, 양근	8
	천안	천안, 아산, 연기, 음성	4
	공주	공주, 논산, 강경, 예산, 서산, 당진, 홍성, 진천	8
	원주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충주, 제천, 청풍, 영춘, 단양, 괴산	11
	강릉	강릉, 삼척, 속초, 울진, 평해	5
영변	영변, 희천, 태천, 북진, 개천, 양덕, 신창	7	

미국 남감리 회	서울	서울, 양주	2
	개성	개성, 개풍	2
	춘천	춘천, 가평, 양구, 인제	4
	철원	철원, 김화, 평강	3
	원산	원산, 회양, 안변, 용동, 고성, 통천	6
합 계			243

- 장로교와 감리교는 선교 분할구역으로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 교단 내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3·1운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선교회-교회-교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 3·1운동을 전개하거나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연대
- “우리는 그 체안을 얻자 비밀히 선전밀사가 전국으로 나갔으니, 서선(西鮮)방면에는 함태영(咸台永), 호남방면에는 김필수(金弼洙), 영남방면에는 박차완(朴車完), 기호에는 박용의(朴容義) 씨 등이 파견됐다”\_함태영 회고록
-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기미운동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봉기의 내고(內告)였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로, 신자의 입에서 신자의 귀로 우리 운동을 선전하며 교단에서 교원은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을 알렸고, 교회에서는 교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삼시간에 뻗어나갔다. 먼 지방에는 4명이 파견되었다.”\_함태영 회고록
- “셋째 문제는 누가 제1회 선언서에 서명하느냐가 최후의 난문제였다. 그 당시 작전 계획은 제1, 제2, 제2회로 우리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운동을 계속기로 되었고,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은 일본국법에 내란죄로 되어 사형은 갈 데 없으니, 누가 먼저 죽으러 가느냐 함이었다. (중략) 비록 죽기를 결심은 하였으나 내 입장은 역시 철석은 아닌지라 이 장면에 이르러 하는 수없이 고소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_이갑성 회고록

## VII. 불교와 3.1운동\_김법린 회고

- (1) 선언서 배포 : 선언서의 약 반부는 3월 2일 새벽 시내 동북부 일대를

각자 담당하여 배포하고, 기타는 지방으로 파견원이 휴행할 것

- (3) 지방 파견 결정 : 정병헌(鄭秉憲)은 전라방면, 김대용은 경북방면, 오택진은 양산 통도사, 김법린·김법헌은 동래 범어사, 김봉신은 합천 해인사에 파견하기로 하고, 충청 강원 함경 평안 경기의 각 지방에는 중앙에 남아있는 3인이 불교중앙학림의 학생 중에 적의 선택하여 파견할 것
- (5) 동지 규합 : 지방파견원은 각 사(寺)를 역방하여 동지를 규합하되, 기덕층(耆德層)에는 지방에서 후원기로 하고, 청년층에는 중앙으로 와서 실제 운동에 종사할 것.
- (8) 지방운동 요령 : 지방파견원은 각사를 역방하여 당해 사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케 한 후 선언서를 다수 등사하여 부근의 촌락, 도시에 가서 배부하고 선언식 거행, 만세시위를 하도록 할 것

## VIII. 일제강점기 종교의 동향과 민족운동

- 불교 : 사찰령과 30본산제 → 제국일본의 어용종교로 전략
  - 사찰령과 시행규칙에는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명시하였고, 전국의 사찰을 30개의 본사(本寺)와 말사(末寺)로 재편하는 규정
    - 본사와 말사의 경우에, 본사 주지는 총독, 말사 주지는 도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 한국불교의 행정체계를 총독부에 종속시키고 승려의 세속화를 권장
    - 항일불교 : 한용운과 백용성 중심, 卍黨,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이종욱, 신상완 등)
    - 승려 독립선언서 발표(1920)
    - 불교청년회 등 활동
- 유교 : 경학원과 서당규칙 → 제국일본의 어용종교로 전략,
  - 3.1운동 민족대표 참여 한계

- 파리장서운동 전개
- 대종교 : 총본사를 만주로 이전, 남도본사만 식민지조선에서 활동
  - 만주에서 무장투쟁 전개 : 청산리전투, 임오교변 등
- 시천교 : 동학의 한 갈래, 일진회 활동, 제국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 어용종교로 전락
- 흠치교, 보천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사종교로 인식하고 박멸운동, 보천교의 일제 협력(時局大同團)과 해체

## IX. 평택지역 종교와 민족운동

- 종교계의 민족운동 참여 사례 크게 드러나지 않아
- 천도교 : 3.1운동에 참여
- 기독교 : 강습소 등 교육운동
- 종교의 기반이 약하다



2019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 삼일운동과 평택, 민족운동과 평택

발행일	2019년 3월 1일
발행인	김은호(평택문화원장)
기획	황수근, 최실비
저자	2019 평택학 시민강좌 강사 공저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인쇄	평택복사프린트
저작권자	2019 평택문화원
ISBN	978-89-93983-46-3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자료집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